



5

1984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4. 5호

(루게 439)



◆◆◆◆◆◆◆◆ 차 례 ◆◆◆◆◆◆◆◆

어버이	4
산촌의 새 아침	5
금강의 만물상	5
룡남산의 노래	7
태양솟아	8
찬란한 미래	8
나의 청춘	9
광복의 메아리 힘있게 울려 퍼지는 영웅서사시적 화폭	10
불후의 고전적 명작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의 종자에 대하여	15
조선의 봄 (외 1 편)	19
창문들이 열린다	19
꽃도 무심치 않아 (외 1 편)	20
삼지연의 피리소리	20
영광이 있으라, 철의 도시여	21
형상창조에서 언어 구사문제	22
내 삶의 노래	24
큰 심장	25
소나기 내린 뒤	27
첫 열차가 온다! (외 1 편)	27
위훈의 새벽	28
한 부문당 비서의 수기	29
배 꽃	37
처녀가 받은 편지	43

막장의 노래	53
탄부의 영예	57
탄전을 지켜가는 사람	59
탄부의 집	62
탄전에 별들은 빛난다	63
수령님과 탄부	63
80 년대의 별	64
막장 한끝에 있어도	65
막장의 포도송이	65
제대군인탄부들에게	66
기적을 울려라, 통근렬차여.....	67
맺음시	67
세월은 흘러도...	68
장씨의 소원	69
향기	74
광주의 열 (외 2 편).....	78
원 한.....	79
한송이 두송이 없혀지는 꽃.....	79

아버이

백 의 선

조용히 우러르면
안기고싶고
부르고 불려도
다시 부르고싶은
아버이

그 어디 멀리 가도
따뜻한 사랑 가슴속에 차올라
내 마음에 그려지는
자애로운 그 영상

포근한 잠자리에 누워도
보살펴주시는 그 은정에 목메여
뜨겁게 새겨보는
경애하는 그 이름

내 요람 살피주고 걸음마 떼여준
아버지 어머니의 그 손길은
이제는 추억속에만 어려오건만
내 오늘도 순진하게 안겨 사노라
아버이의 그 품에

내 가슴속 하나의 꿈도
창창한 하늘처럼 펼쳐주시고
내 심장의 피방울마다
시대의 맥박으로 뛰게 하시며
나의 운명 보살피시는 아버지

나를 낳은 부모의 품에서야
어떻게 어떻게 지낼수 있었으랴
참된 인생의 뜻도, 신념도

영생으로 고통치는
고귀한 심장도

은혜로워라
세상에 태어난 첫 순간부터
떠나면 한생이 다하도록
한없는 사랑과 따스함으로
삶도 미래도 다 말아 꽃피주시는
자애로운 수령님의 품이여

그이의 사랑은
생의 젖줄기며
생명수
하늘이며 땅
그보다 그보다 더 귀중한것

아, 받아안는 그 사랑 하늘처럼 넓다면
그 하늘이 열린것도 그이의 품
안겨주신 그 행복 우주처럼 무한하다면
그 우주가 안긴것도 그이의 품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고
안기면 세월의 한끝까지
꽃처럼 별처럼 아름다운 삶을 주시는
아, 우리 수령님

천만 사람이 불려도
억만 사람이 불려도
한마음 합치며
아버이!
아버이!

산촌의 새 아침

유국전

봄빛 어린 파아란 잎새
층층 강냉이숲 설레이는데
밤새 내려앉은 안개
발머리에 흰주단 펼쳐 드리는가

령넘어 외진 마을
새벽이슬 헤치시며
산비탈 발머리에 이르신
아버이수령님

굽어보시여라
간밤 모진 비바람에
강냉이숲이 넘어지지 않았는가
이고장 농민이 되신듯

검푸른 강냉이바다
이른새벽 산언덕에
우렁우렁 울리는 목소리
귀에 익은 다정한 음성

-아버이수령님!
너무 기뻐 감격에 목메어
그이 품에 안기며
인사를 올리는 소조원처녀

그리도 다정히
어깨를 쓸어주시며
수령님께 선 말씀하시여라
강냉이밭을 잘 지켜냈다고
소조원을 만나보니
마음이 놓인다고

밤새 비바람을 막아
새끼줄 두르며 안아지킨
이랑이랑 끝없이 물결치는
검푸른 강냉이숲
대견스레 바라보시는 아버지수령님

너무도 기쁘시여
주체농법 꽃피워나가는 3대혁명전위
소조원처녀의 손을 잡으시고
높이 산언덕에 오르시는데

아, 수령님의 만족하신 그 미소
사랑의 해발로 쏟아져내리는가
단풍의 메부리
황금의 메부리를 안아 올리며
산촌의 새 아침은 밝아오누나!

금강의 만물상

백하

옥녀봉골안에 안개구름
하늘을 덮으며 일어서더니
불시에 어디로 갔는가
만물상의 수려한 련봉들

친애하는 그이를 모시였던
그날의 감격을 안고
일만가지 그 모습,
일만가지 형상으로
저저마다 자랑했던 만물상

삼시에 하늘은 막히고
소리치며 달려오는
폭우의 바다

암흑의 장막

우뢰치며 번쩍이는
번개불의 한가운데
천선대 무쇠란간의
쇠사슬 그러쥐고
하늘우에서 고개를 치여드니
막막한 우주에 홀로 남았는가
가슴을 광광 두드리는
뢰성의 격동뿐...

비발은 눈을 막고 귀를 막고
폭풍은 통채로
천선대 억년바위를

허공중천에 날려버릴듯

천주봉을 바라보니
하늘을 피었던 돌기둥들도
다 무너져내렸는가
고함치며 내닫는 폭우의 바다
동해가 그대로 여기에
가로 서서 밀려가는듯

오, 금강산
위훈의 갈망으로 불타는
들끓는 이 가슴을
후련히 들부서줄 철의 격동을
내가 지니고있었더냐

위대한 향도의 영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여
세계를 얻은 이 몸
바치고 바치여도 끝없이 불타는
이 가슴의 불덩이를 꺼내여
너와 함께 우주에 휘젓고싶음이여

불시에 비발은 눈발로 바뀌어
천선대우엔 다시 겨울이 왔는가
함뼉 비젖은 몸 요동치듯 떨려도
친애하는 그이 높이 서시였던
붉은 바위우에 섰나니
가슴에선 노래소리만 터져나온다

당의 전사된 존엄을 높이 치여들고
눈비의 회오리속에 웃음을 날리니
차츰 퇴성도 멎으며
절벽마다 쏟아지는 계절폭포들
눈부시여라 천만의 은 기둥이

땅우에 내리드리웠는데
비구름 걷히자
내 앞에 드러나는 네 모습
이 가슴을 황홀경으로 채우며
파란 하늘에 빛발치는 네 모습

폭풍과 우뢰와 천둥번개가
일만 봉우리를 다 들부서왔건만
사시절이 함께 어울려
하늘과 땅을 뒤섞어 놓았건만

아, 일만가지 만물상
그 어느 하나도 변함이 없이
한자옥도 물러앉음이 없이
한치도 고쳐앉음이 없이
그 모습 그대로 서있구나
친애하는 그이를 모시고
뜨거이 우러러 섰던
그날의 그 모습 그대로!

서있구나, 금강의 만물상
천만의 청옥을 깎아세운듯
억만의 홍옥을 다듬어 고인듯
그날의 그 아름다움 그대로
그날의 그 순결함 그대로

말하여라
너, 금강의 만물상아
너는 친애하는 그이를 받들고
언제나 변함없이
이 땅우에 굳건히 선
천만의 인민들 그 모습이 아니더냐!

-천선대에서-

룡남산의 노래

정하천

룡남산!
금빛해살과 함께
령롱한 서기 흐르던 룡남산
와보고 와봐도
또다시 오고픈 룡남산

언제였던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 받들고
조선을 빛내이리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여기서 마음 다지시던 때

밝고 맑던 그 아침
그이를 반기던 잣나무
오늘도 그 하늘 그대로 이고있건만
그이의 뜻 나래편 조선
얼마나 큰 걸음 걸어왔던가

그날의 그 뜻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의 신념, 하나의 억지로
그이 이끌어오신 조선

보석처럼 변치 않는
백두의 정기 강산에 차넘치노라
쪽잠마저 그림던 우등불가에서
사향가 부르던 대오
천만의 군단을 이루고
사령부를 찾아, 찾아
눈바람 사나운 산밭을 누비면서도
적들에게 잡힌 몸되어
단두대에 끌려가면서도
장군별 우러러
마음속에서 타오르던 불길
천만가슴에서 타오르노라

그날의 그 뜻
가슴에 새기시고
끝없는 사랑, 다심한 정으로
그이 이끌어오신 조선,

창창한 하늘에서

봄 우리 울던 그날부터
억만 생이 꽃으로 피어나는
화창한 봄철을 맞이했노라
단풍잎 지는
늦가을 나이에 사는 인생도
맑은 샘물에서처럼
마를줄 모르는 힘의 생명수
마음껏 퍼마실수 있는 품
어머니사랑의 그 품속에서
청춘을 되찾고
죽어서도 영생하는 질 걸어가노라

그날의 그 뜻
가슴에 새기시고
빛나는 예지, 불타는 정열로
그이 이끌어오신 조선

나래 돋친 천리마의 발구름속에
만대를 이어갈 위훈탑들이
구름을 뚫고 솟아올랐노라
춤추며 반기는
노루와 사슴, 물속의 물고기들을 데리고
산밭과 강줄기가 자리 옮기며
물러가는 바다의 수평선을 따라
기러기떼 새 보금자리에 이사하노라
하여
강토의 해발고가 높아지고
교파서의 지도가 달라지노라
리상의 세기가 활개치며 달려오노라

수령님 모시고
그이 이끌어오신 조선
이제
찬연한 빛 누리에 뿌리거니

백두산과 함께
력사의 봉우리로 높이 솟은 룡남산
나는 오늘
높은 이 마루우에서 보고있노라
그늘 없는 지구의 새날이
노을속에 동터오고 있음을

태양쏘아

후레디 가이판 에쓰꼬르씨아

김정일

그이는 위대한 **김일성** 주의기치
그이는 당과 인민의 영명한 지도자
그이는 공산주의혁명가의 빛나는 구감이시여라

그이는 붉은기발 날리는 백두밀영에서
영원한 태양으로 쏘아오르신
향도의 별이시여라
그이는 새형의 걸출한 영웅

디오게네스가 찾으려다 못찾은 천재
성서의 갈피갈피에서도 못찾은 위인
조선의 대동강물을
한그릇에 퍼담으실
만능의 지략을 지니신분이시여라

그이께서는 주체의 해불을 높이 드시고
세상에 선포하셨다네
주체도

김일성 주의기치도

영원불멸함을
그이는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실분
주체의 빛발로 남녘형제들의 가슴속을 환히 비쳐
주시나니

그이는 천만년 무궁토록
통일된 조선인민을 안아주시리

(필자는 니까라과 《라디오 후프라》
방송기자)

찬란한 미래

베르헤 게브레 에그지아비헤르

아름다운 꽃들 만발하고
탐스러운 열매 주렁지는 나라
인민은 웃음과 기쁨
행복과 랑만에 넘쳐

살며 일하여라
세계는 조선을
자유와 평등 행복과 미래를 위한
인민의 락원이라 노래부르노라

우리는 알고있노라
인민의 태양 향도의 별을 모셨기에
조선인민이 행복한 오늘과 찬란한 미래를 가지
였음을

조선에 쏘아오른 향도의 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는 온 세상 인민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분

향도의 빛발을 우러러
세계인민들은 새 력사의 주인되고

향도의 빛발을 우러러
세계인민들은 새 생활의 창조자가 되어
찬란한 미래를 개척해 나아가노라

향도의 빛발은
싸우는 인민들의 힘과 용기
필승의 신념되어
세계를 움직이고있어라

그이는 세계인민들의 태양
찬란한 향도의 해발이시기에
오지 인민의 자유와 해방 위하여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우리 시대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여라

아, 위대한 주체사상 받아안은 세계는
영명한 지도자를 높이 우러르며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노라
그이의 령도로 열려진
세계의 미래는 양양하여라

조선인민의 영명한 지도자이시며

공산주의의 찬란한 태양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는
김일성 주의를 세계에 빛내여 나가시여라

온 세상 사람들은

만민의 행복을 위하여
공산주의 새세계를 위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노라
(필자 에티오피아 아예르 데나종합고등중학교
김일성 동지 주체사상연구소조 위원장)

나의 청춘

한용결

잠자리 좇으며 놀던 그날엔
어서 커서 어른이 되고싶었네
은혜로운 사랑속에 꿈을 키우며
하늘의 별도 따올 마음이었네

세월은 흘러 어릴적 꿈은
내 생활의 꽃으로 피였어도
이내 심장 다시금 별을 안고 타번지네
자애로운 사랑의 눈빛이 내 삶을 비쳐주기에

내 가슴 정녕 평온을 모른다네
그래서 세찬 불길이 더욱 좋네
환희속에 투쟁을 안고 사는 보람이
미래에로 달려가는 벅찬 행복이

아, 어머니당이여
영원히 불타는 별
이것은 그대가 준
나의 기쁨, 나의 청춘이라네

광복의 메아리 힘있게 울려퍼지는 영웅서사시적화폭

윤기덕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압록강》은 오늘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장편소설 《압록강》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품모를 따라배우려고 열망하고있는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있어서 또하나의 귀중한 사상정신적양식으로 되고있으며 당의 유일사상교양과 혁명교양의 참다운 교과서로 되고있다.

장편소설 《압록강》은 모두 10 개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장으로부터 8 장까지는 조국광복회 창건 직후인 1936년 8 월말로부터 무송현 서강회의가 있기전까지의 백두산밀영을 중심으로 하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그리고있으며 9 장부터 10 장까지는 서강회의로부터 1937년 6 월 4 일 보천보 전투를 거쳐 6 월 13 일 장백현 지양개의 덕삼촌 수림에서 있는 국내진공작전승리를 경축하는 군민련환대회까지를 그리고있다.

장편소설 《압록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호두회의방침에 따라 백두산밀영을 창설하는 투쟁, 백두산밀영에 의거하여 조선인민 혁명군부대를 튼튼히 꾸리고 당조직과 반일민족통일전선망을 장백지구와 국내깊이대로 확대하는 투쟁, 무장투쟁을 국내에서 전개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재생의 서광을 안아오시는 빛나는 화폭을 펼쳐보이고있다.

력사적인 보천보전투를 정점으로 하여 빛나는 화폭을 펼치고있는 장편소설 《압록강》은 영영 기울어져 가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누구에 의하여 재생의 서광이 열리고 구원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형상을 통하여 이에 예술적 해답을 주고있다.

장편소설 《압록강》이 안고있는 이러한 사상주제적과제는 이 소설의 창조적과제일뿐아니라 실제로 당시 우리 나라의 력사가 제기하고있는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1937년을 전후한 시기의 우리 나라 안팎의 정세는 매우 엄혹하였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뒤이어 만주를 점령하였으며 바야흐로 중국관내에도 침략을 확대해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조선인민의 의병투쟁, 독립군운동도 더는 지탱해내지 못하게 되었으며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다.

애국자로 자처하던 민족주의운동자들과 혁명가로 행세하던 초기공산주의자들은 일제의 주구로 전

락되거나 시정배로 굴러떨어졌으며 기껏해서 은둔생활을 하는 형편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소설에서 김정보와 안선생, 림선생, 책방주인 등의 형상을 통하여 잘 그려져있다.

뜻이 있고 애국심 있는 각계각층 인민들은 가슴을 치며 조선은 영영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고 조선민족은 영원히 망국노가 되고 말것인가 하고 통탄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그린 장편소설 《압록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형상을 화폭의 중심에 정중히 모시고 수령님께서 계시어 조선은 살아있으며 수령님의 령도밑에 조선민족은 반드시 독립한다는 위대한 사상을 밝혀주시고있다.

바로 여기에 이 소설의 생명력이 있으며 사상적 핵이 있다.

장편소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절세의 애국자의 형상이며 민족적 및 계급적 압박을 청산하고 자주적인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만단을 헤쳐 나가는 건결한 혁명가의 형상이며 탁월한 전략과 신묘한 전술로 일체의 로장과 백만대군을 격멸하는 강철의 령장의 형상이며 인간의 자주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며 동지와 인민을 가장 사랑하시는 위대한 인간의 형상이며 인민을 위한 새 철학을 창조하신 위대한 사상가의 형상이다.

장편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이와 같은 형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독특한 생활분야를 탐구하였으며 그를 통하여 로동계급의 정치적수령으로서의 품모를 풍만하게 그리고있다.

다시말하여 자주적인 당건설방침의 구현과 주체적인 민족통일전선방침의 구현, 사랑과 충성으로 특징지어지는 혁명적동지애의 구현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보다 다양하고 풍부하게 폭넓고 깊이있게 창조하여 조선혁명전반을 유일적으로 령도하시는 정치적수령의 형상을 진실하고 특색있게 창조할수 있었다.

장편소설에서 로동계급의 정치적수령으로서의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은 무엇보다도 주체적인 당건설방침을 제시하시고 실현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생동하게 그려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적인 당건설원칙으로부터 출발하시어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것을 확대강화하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하며 당창건준비사업을 반일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 방침을 제시하시고 1937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를 힘있

게 관철해 나가지었다.

바로 이와 같은 력사적 사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통하여 장편소설에는 진실하게 그려져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호두회의 방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부대안의 각급 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는 한편 국내와 만주일대의 조선인 거주지역들에 당조직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시였으며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당공작위원회와 장백현당위원회, 동만당공작위원회를 내오시였다. 이리하여 만주의 넓은 지역과 우리 나라 북부국경일대에 당조직이 급속히 확대되고 당조직지도체계가 정연하게 서게 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당건설방침이 남호두회의 이후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구현되였는가를 밝혀주시였다.

장편소설은 바로 이것을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통하여 그리고 권영벽, 라명희, 리제순, 박달 등의 형상선을 리용하여 예술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당건설방침의 정당성을 힘있게 확증하였다.

우리는 이 소설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국적범위에서 당조직들이 확대되어나가는 과정을 볼수 있으며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로부터 지방당조직에 이르기까지 통일적인 당조직지도체계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을 생동하게 보게 된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주체적인 당건설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예술적인 확인으로 된다. 다 아는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당건설방침은 로동계급의 당건설력사에서 처음 보는 주체적인 당건설방침, 다시 말하여 자주적인 당건설방침이다.

장편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투쟁을 벌려나간 권영벽, 라명희, 리제순, 박달 등의 형상을 통하여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점차 그것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법으로 당을 건설해나가며 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이 철저히 반일투쟁과 밀접히 결부되고 투쟁속에서 핵심들을 키워나가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생동하게 그리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생활력 있는 당조직이 전국적판도에서 성장해 가고 투쟁속에서 검열되고 단련된 혁명가들로 당조직이 꾸려져 마침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에 끝없이 충직한 새형의 당, 주체형의 당창건이 어떻게 준비되어 갔는가를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이것은 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이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나라 문학예술에서 처음으로 깊이있게 그려졌다는 점에서와 그리고 로동계급의 정치적수령으로서의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이 새로운 측면에서 더욱 풍부하게 그려진것으로 하여 큰 의의를 가지며 또한 독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로 교양하는데서 훌륭한 교과서로 되게 한다.

장편소설이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의 형상 창조에서 거둔 성과는 또한 반일민족통일전선방침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통하여 인민의 수령, 탁월한 령도의 예술가로서의 품모를 감명깊게 형상한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시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시기 위하여 당조직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당의 령도밑에 여러가지 외곽단체들을 조직하시였으며 특히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내오시고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시였다. 이와 같은 력사적 사실이 장편소설에 생동하고 진실하게 반영되어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1936년 5월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각계각층 인민대중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튼튼히 결속시키며 당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하는데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서 조국광복회창건이 선포되는 내용이 형상되고 그것으로 소설이 마감지어졌다면 이 소설에서는 창건된 조국광복회를 장백현과 국내깊이에까지 어떻게 확대강화해나가는가 하는 그 과정이 그려져있다.

소설에서는 무엇보다도 조국광복회에 대한 당의 령도가 어떻게 확고히 보장되였는가 하는것을 감동적으로 그리고있다.

장백현 신흥촌에 조국광복회조직을 내오기 위하여 리제순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주체적인 지하투쟁방법으로 무장시키는데서 그것을 잘 찾아볼수 있다. 또한 조국광복회조직을 내오는 날에는 권영벽동지를 직접 파견하는 데서도 그리고 국내에 조국광복회조직을 내오기 위하여 박달동지를 교양하여 당에 입당시키고 그를 통하여 조국광복회조직에 대한 당의 령도를 실현해나가는데서도 잘 볼수 있다.

특히 소설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은 물론 민족적량심과 애국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교양하여 반일구국의 길로 나서게 하는 과정을 진실하게 그림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일민족통일전선방침의 정당성과 위

대한 생활력을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과거에는 독립군의 두령이었으며 지금은 지주나 다름없는 지방유지인 김정보와 공산주의를 적대시하던 천도교 도청 박인진이 교양 개조되는 과정에 대한 묘사는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유격대원들인 최성필과 《만강》 동무는 물론 유격대의 월동물자공작대 책임자인 김주현의 설복에도 이가 들지 않던 김정보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침을 받고서는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

《...과시 천재라 일러야 할 위인이시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탄복한 김정보는 청년장군 **김일성** 동지시야말로 열화같은 애국충정과 불굴의 의지와 비범한 지략을 지닌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회세의 영재이시며 출중한 령수라는것을 온 넋과 심장으로 체험하고 장군님을 받들어 애국의 길에 나설것을 다짐하게 된다.

천도교 도청 박인진의 형상 또한 독특한 형상이며 의의깊은 성격형상이다.

소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권영벽, 리제순, 박달도 처음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도청 박인진을 가까이 하시는것을 매우 놀라와 한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강대한 일제를 반대하여 조국의 독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적 량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임을 불문하고 각성시키고 구국전선에 단결시켜야 한다는 방침을 내놓으시었다.

박인진은 박로인의 소사건, 리창선의 입대, 김정보의 사상적변화에서 느끼는바가 많았는데 직접 장군님을 뵈고는 완전히 새사람이 된다. 그는 마침내 장군님의 덕망과 품모에서 자기가 한생을 믿고있는 《하느님》이 다름아닌 장군님이시라는것을 깨닫는다. 특히 그가 장군님께 무엇을 숭상하며 믿는것이 계신가고 물었을 때 신은 믿지 않으나 숭상하는것이 신이라면 《...나의 신, 나의 하느님은 인민입니다.》라고 장군님께서 대답하시자 완전히 탄복한다.

그리하여 박인진은 마침내 장군님을 《하느님》처럼 모시고 따르며 자기가 관할하는 8개 종리원의 동덕들은 물론 전국의 수백만 동학도들을 다 장군님을 모시도록 하겠다는 굳은 맹세를 다지게 된다.

이렇게 하여 소설에서는 당의 령도밑에 조국광복회망이 리제순을 통하여 장백현과 동북일대에, 박달을 통하여 북부조선일대에, 박인진을 통하여 평북과 서울, 평양 등지로 확대되어나가며 조선혁명전반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유일적으로 조직령도하시는 과정이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되고 있다.

장편소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품모는 또한 그이께서 지니신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에서 감명깊게 형상되고있다.

그것은 무장대오안에서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의 혁명적본질과 혁명승리의 요인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형상과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시 조선혁명에서 주류를 이루는것은 무장투쟁이었으며 당의 령도에서 기본은 무장투쟁을 승리로 이끄는것이였다.》

당시 조선혁명에서 주류를 이루는것이 무장투쟁이었던만큼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무장대오의 사상의지적단결을 강화하는것이다.

소설은 정당하게도 이 문제를 중심에 놓고 이어의 모든 문제를 여기에 복종시켜 잘 그리였다.

소설은 무장대오의 사상의지적단결을 조건지은 근본요인이 혁명전사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불보다 뜨거운 사랑이었다는것을 깊이있게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종파사대주의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못한 광두섬과 조분옥의 사랑을 가꾸어주시고 꽃피워주시기 위하여 혁명의 폭풍우 속에서도 가지가지의 은정을 다 베풀어주고계신다.

력사적인 보천보전투를 눈앞에 둔 시각 조분옥은 적에게 무참히 학살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이 비통한 소식에 접하여 슬픔을 이기지 못하시며 말씀하신다.

《그동안... 분옥동무가 적들속에서 홀로 지내며 얼마나 우리를 그리워했겠소? 가봅시다. 지금 혼자 외로이 누워있다는데 두섭동무랑 같이 가서 잠깐만이라도 동무해줍시다.》

조국진군을 눈앞에 둔 력사적인 시각에 장군님께서 보살피시여야 할 일인들 얼마나 많으시련만 혁명동지를 위한 사업을 언제나 첫자리에 놓으시고 모든것을 뒤로 미루시는 장군님!

정녕 이 사랑, 이 은정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배반할수 없고 한목숨 바친다 해도 더럽힐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며 은정인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소설에서 장철구에게 베푸시는 장군님의 뜨거운 은정과 신임에서 더욱 깊이 있게 볼수 있다.

장철구는 남편을 따라 혁명에 나선 녀성혁명가이다. 그러나 종파사대주의자들에 의하여 남편을 잃었을뿐아니라 아들도 잃었으며 자기도 《민생단》의 루명을 쓰게 되였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오시여 《민생단》문서보따리를 다 불살라 버리고 자기들의 깨끗한 량심을 믿어 주시였으며 다시 혁명의 길에 내세워주시였다. 재생의 기쁨을 안겨주신 장군님께서서는 다음날에는 사령부의 작식대원이라는 중임까지 맡겨주시였다

이때 장철구는 세계의 10억이 넘는 여성들 가운데서 자기가 가장 중하고도 영광스러운 혁명임무를 맡았다고 생각하였으며 장군님을 위해서라면 머리를 잘라 신을 삼아 드리며 한목숨 비친들 아까울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생활에는 꼭절도 없지 않았다.

적의 밀정사건으로 하여 사령부의 안전이 걱정된 군수관은 장군님께서 적구로 나가신 사이에 장철구를 후방병원으로 보내고만다.

이때 적구에 나가시였던 장군님께서서는 사령부로 돌아오시어 그간의 사업보고를 받으시고 장철구에게 새 군복을 지어주라고 천을 내놓으신다. 군수관은 가슴이 철렁당 내려앉았다.

자기는 그를 믿을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내쫓았는데 장군님께서서는 더 두터운 믿음을 표시하여 전투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웃감까지 구해오신 것이다.

모든 사연을 아시게 된 장군님께서서는 가슴이 아프시였다.

《철구아주머니는 우리밖에 믿고 의지할데 없는 외로운 사람이요... 가장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배척 당하는 마음의 고통은 가장 저주하던 인간에게서 받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법이요...》

심오한 철학이 담겨진 장군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인간송가이며 혁명동지에 대한 가장 큰 믿음을 표시한 명언이시다.

오직 혁명동지를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장군님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신념의 말씀이시다.

군수관은 오열을 터뜨리며 자책하였으나 장군님께서서는 그보다 더 무서운 고통속에 잠겨계시였다.

《추현동무, 동무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가장 큰 정력과 노력을 기울이고있는가를 잊은것 같소. 우리는 지금 다문 한사람이라도 더 혁명을 하자는 사람, 혁명을 해야 할 사람을 얻어내고 만들어 내서 우리의 혁명대렬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소... 그런데 동무는 편견에 사로잡혀 우리 대렬에서 혁명을 해오던 사람까지 떼어내고있으니 어떻게 되겠소? 나는 많은 물을 채우자구 애써 동을 막고있는데 동무는 한쪽으로 솔금솔금 동을 허물어 이미 채워뒀던 물까지 흘러버리게 하는셈이요?...》

군수관은 혁명의 주체적원리가 담겨진 장군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책으로 피같은 눈물을 쏟았고 그이의 위대성을 다시금 심장으로 통감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피로움에 모대길 장철구를 생각하시어 그길로 그에게로 떠나시였다. 그러면서 생각하시였다.

(혁명은 무엇때문에 필요했으며 무엇때문에 시작한것인가? 바로 인간들에게서 온갖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그러한 혁명가들이 같이 혁명해오는 사람에게 오히려 없던 고통을 들씩우고 안겨주고서도 과연 마음편할수 있단 말인가?)

이렇듯 장군님께서서는 한 전사의 마음의 고통을 혁명의 운명과 결부시키시며 인류를 영원히 격동시키는 위대한 사랑으로 그들의 자주성을 지켜주시고 키워주시는것이다.

혁명동지에 대한 장군님의 이 사랑, 이것은 동지애를 한갓 의무로만이 아니라 온 심장으로 체현하고계신 그러한 위대한 인간, 위대한 혁명가에게만 고유한것이다.

이렇게 소설은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항일유격대원들이 오직 장군님의 품만을 그리워하는 까닭이 무엇이며 시련이 겹칠수록 장군님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서 굳세어진 까닭이 무엇이며 항일혁명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의 비결과 정신력이 무엇인가를 장군님의 사랑을 통하여 진실하게 보여 주었다. 실로 장군님의 사람은 항일유격대원들을 불굴의 투사로 키우는 성장의 젖줄기이며 위대한 힘의 원천이며 통일단결의 원동력이고 적은 역량으로도 강적을 타승할수 있게 한 승리의 근본열쇠이다.

소설은 이렇게 사랑과 보답, 신임과 충성을 진실하게 그림으로써 항일혁명의 영웅사시적화폭을 감동적으로 그릴수 있었다.

장편소설 《압록강》은 이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보천보전투를 조직진행하시는 빛나는 화폭을 펼쳐보이고있다.

보천보전투!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남호두회의방침의 정당성과 그의 빛나는 구현이며, 조선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생동한 증거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은 일제를 타도하고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온 세계에 선포한 장엄한 선언으로 된다.

이렇게 하여 장편소설은 보천보전투로써 작품에 제기하였던 사상주제적과제를 빛나게 해결하였으면 시대의 본질을 투철하게 천명하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태양으로서의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형상을 새로운 경지에서 창조할수 있었다.

장편소설 《압록강》은 작품의 중심에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정중히 모시면서 또한 장군님의 형상을 부각하는 충성의 별들도 잘 형상하고 있다.

권영벽, 리동학, 김주현, 오중흡, 박두섭, 라명희 등 조선인민혁명군의 핵심들과 장군님의 품에서 소생하는 조분옥, 장철구. 장군님의 손길 따라 혁명의 길을 참되게 걷게 되는 리제순, 박달, 혁명밖에 놓여있다가 장군님의 품에 안겨 참다운 애국자로 소생하는 김정보, 박인진, 애국의 거창한 흐름에서 자

기의 참된 삶을 찾는 마동희, 리창선, 곽단 등이 그러한 형상들이다.

수령형상작품에서 수령 형상과 함께 혁명전사들의 충실성을 잘 그리는것은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가 혁명적동지애의 력사이며 또한 그것이 수령형상을 진실하고 격조높이 창조하고 작품의 교양적의의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로 되기때문이다.

장편소설 《압록강》에서 권영벽의 형상은 총명하고 의지적이면서 드팀없는 혁명전사로, 충성이 귀감으로 잘 그려지고있다.

장군님께서 계시는 주력부대를 찾아 헤매었으나 찾을길 없게 된 제 2련대는 지칠대로 지치였다. 이때 콕두섬이는 일제의 《토벌대》를 쳐서 충성을 냄으로써 주력부대를 쉽게 찾을수 있으리라라는 방도를 제기한다.

이때 권영벽은 《아니, 정신있소?》라고 하며 놀란다.

《우리는 사령부의 위치를 로출시켜도 안되구 장군님께서 계시는데서 그 어떤 소란도 일으킬수 없소... 사령부가 가까운 이 백두산지구에서는 우리 멋대로 할수 없소. 적을 치면 혹시 사령부를 헐히 찾게 될수도 있겠지. 그러나 사령부에서 우리를 찾자고 움직이게 한다면 사령부에서는 그만큼 고생할거요. 우리가 더 배를 뚫고 우리가 더 고생하더라도 우리는 사령부가 위험에 처하지 말도록 해야 하고 사령부가 고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질 않겠소?...》

자신이 몇 곱절 더 고생하고 지어 생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사령부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념에 찬 권영벽의 이 목소리는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깊이 머리숙이게 한다.

만번에 단 한번의 경우라도 철저히 장군님의 안전만은 목숨으로 지켜야 한다는 혁명전사의 드팀없이 깨끗한 충성심이 참으로 마디마디에 절절하게 어려있다.

하기에 험한 길을 걸어 사령부를 찾아온 그달음에 장군님께서 주시는 과업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정확히 집행하는 그였으며 김주현이 장군님의 뜻을 어기고 장철구를 후방병원으로 마음대로 보낸 처사와 콕두섬이 야간행군때 담배를 피워 부대의 안전

을 위태롭게 한데 대하여 제일 격분하고 호된 비판을 하는것도 그였다.

권영벽의 충실성은 피치못할 사정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영결하는 순간에 있는 충격적인 사실에서 가장 뚜렷이 표현되었다.

일제의 야수적만행으로 하여 불타는 아버지의 령구앞에서 권영벽은 품속에 있는 권총자루를 몇번이고 움켜잡았으나 장군님께서 주신 혁명임무를 생각하며 이발을 악물고 주먹을 부르짖채 눈물도 통곡도 없이 바위들마냥 서있었다. 가슴속에서는 원한이 서리고 심장속에서는 아버지의 피가 증오로 끓어번지고 품속에서는 만만찮한 권총이 들어있었지만 그는 이 시각 백놈의 원쑤와도 자기를 바꿔서는 안된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있는것이다.

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한 권영벽은 임무를 끝내고 밀영으로 돌아와 사업보고는 다하였지만 이 사실만은 장군님께 말씀드리지 않았다. 왜냐 하면 장군님께 걱정을 끼쳐드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기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참다운 충실성의 귀감을 보게 된다.

장군님에 대한 충성심은 오중홍, 조분옥, 장철구 등 모든 혁명전사들에게도 고유한 성격적 특성으로 되고있다.

소설은 이밖에도 박로인, 마로인, 윤로인 등의 형상을 통하여 장군님만을 받들어 모시고 광복의 그날을 확수고대하는 우리 인민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감정을 깊이있게 일반화하였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진행하신 1937년을 전후한 시기의 혁명력사를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보여주면서도 그것을 일관하게 정서적으로 펼쳐 보이기 위하여 콕두섬, 조분옥선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과의 유기적관계속에 서 처음부터 마감까지 일관하게 끌고나갔다.

이것은 력사적사실과 예술적진실성 문제를 능란하게 해결한 좋은 경험으로 된다.

이처럼 장편소설 《압록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호두회의이후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선인민들에게 조국광복의 서광을 안겨주신 력사적사실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형상함으로써 오늘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우리 인민들의 장엄한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의 종자에 대하여

박종원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공연된 불후의 고전적명작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는 그 높은 사상예술성과 커다란 교양적힘으로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혁명교양, 계급교양의 참다운 교과서로,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이 불후의 고전적명작이 사람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 그들에게 거대한 혁명적영향을 미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 사상적내용의 철학적심오성에 기인되며 그것은 철학적무게를 가진 심오하고 독창적인 종자에 의하여 담보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최근에 불후의 고전적명작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의 종자를 밝혀주시심으로써 이 명작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분석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죽어도 침략자는 남아있다는것이 이 명작의 종자라고 교시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명작의 종자에 대한 완벽한 과학적규정으로써 명작의 사상예술적특성을 정당하고 깊이있게 분석할수 있게 하는 지침으로 된다.

이등박문은 죽어도 침략자는 남아있다는것이 명작의 종자로 된다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이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창작하시게 된 목적과 명작을 통하여 제기하신 기본문제에 대한 심오한 통찰에 기초하고 있으며 거지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문학예술에서 종자란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이다.

문학작품에서 종자를 옳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작가의 의도와 창작목적,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무엇인가를 고찰하는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종자의 질적내용을 규정하는 요인들 가운데서 본질적이며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는것이 작품의 창작목적과 작품을 통하여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이기때문이다.

널리 알려져있는바와 같이 불후의 고전적명작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선행 민족주의 운동이나 초기공산주의운동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성격의 운동인 주체혁명위업을 개척하

시면서 그 담당자이며 결정적력량인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시여 조국광복을 위한 성전으로 불리일으키시기 위한 목적밑에 창작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러한 목적과 의도로부터 출발하시여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처단한 역사적사건을 소재로 하고 안중근의 애국활동과 그 제한성을 밝혀내는것을 명작의 기본문제로 제기하시였다.

열혈청년 안중근이 일제침략의 원흉 이등박문을 쏘죽인것은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이 조국을 강탈한 침략자를 복수한 애국적인 투쟁이였다.

그러나 안중근이 그렇게도 원수를 미워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싸웠건만 어찌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한채 희생되며 조선은 일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되고말았는가.

그것은 안중근이 대중의 힘에 의거하지 않고 개인테로의 방법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 보려고 했기때문에 실패를 면할수 없었던것이다.

여기로부터 명작에서는 안중근이가 이등박문을 처단한것과 같은 개인테로의 방법으로써는 국권회복을 이룩할수 없다는 력사의 교훈과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민족해방투쟁의 참다운 길, 혁명승리의 과학적방도를 밝혀내는것을 근본문제로 내세우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바로 안중근이가 못한것, 해결할수 없었던것을 형상적으로 력점을 찍어 밝혀내는데 작품의 철학의 핵이 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안중근의 제한성, 그의 모든 애국적활동이 옳은 지도사상에 의하여 지도되지 못하였고 과학적인 전략전술에 의해서 진행되지 못했기때문에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만 피의 교훈을 형상적으로 뚜렷이 밝혀내는 여기에 이 명작의 핵이 있는것이다.

이처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명작을 창작하시게 된 목적과 명작을 통하여 제기하신 기본문제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이등박문은 죽어도 침략자는 남아있다는것이 명작의 종자이라는 명철한 해명을 주시였다.

그러면 이등박문은 죽어도 침략자는 남아있다는것이 명작의 종자로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첫째로 이렇게 종자를 규정하는것이 철학이나 정치경제학에서의 종자와는 달리 형상을 창조

하는데서 기본으로 되는 주요인물들의 성격과 그들의 관계, 작품의 구성과 양상같은것을 예상하게 하는 문학예술작품의 종자의 본질적특성에 전적으로 맞기때문이다.

문학예술에서 종자는 작품의 사상성뿐아니라 예술성도 담보하는 근본요인으로 되며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할수 있게 하는 바탕으로 된다.

작가가 생활에서 종자를 잡았다고 할 때에는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뿐아니라 작품에 그려질 형상의 기본테두리까지 예상하게 되어야 한다. 형상의 원형이라고 말할수 있는 뚜렷한 예술적 표상을 주는 종자,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종자만이 진짜 종자이다.

이와는 달리 만약 작가가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기본으로 되는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그들의 관계, 작품의 구성과 양상같은것을 전혀 예상할수 없는 사상적알맹이를 잡았다고 하면 그것은 문학예술의 종자가 아니라 철학이나 정치경제학에서 풀어야 할 종자라고밖에 할수 없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를 규정하는데서는 현실을 생동한 형상적형식으로 반영하는 문학예술의 고유한 본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종자에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뿐아니라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주어져있는가를 고찰하여야 한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에서 이등박문은 죽어도 침략자는 남아있다는 종자는 형상의 원형이라고 할수 있는 뚜렷한 예술적 표상을 안겨줄뿐아니라 작품에 그려질 형상의 기본테두리까지 예상하게 한다. 즉 이 종자는 사상적알맹이가 박혀있는 생활로부터 주인공의 성격과 인간관계, 생활범위와 이야기줄거리와 같은 기본 형상 요소들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안겨준다.

우선 명작의 종자는 안중근의 성격과 생활, 이등박문을 쏘아죽인 애국적투쟁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줄거리에 대한 표상을 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작품의 종자는 주인공의 성격과 생활을 통하여 실현되는것만큼 언제나 주인공의 성격과 생활을 기본으로 하여 작품의 전반적인 형상을 깊이 분석해 보아야만 옳게 파악할수 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에서 주인공 안중근의 성격과 애국적활동은 종자를 형상으로 꽃피우는데서 중심적인 역할을 놓고있으며 따라서 그의 성격에 대한 깊은 분석은 명작의 종자를 옳게 파악하는데서 본질적인 의의를 갖는다.

명작에서 안중근의 성격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는 그것이 시대의 본질과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체현한 거대한 역사적사건들속에서 그려짐으로써 민족과 운명을 같이한 열렬한 애국자의 형상으로, 자기 운명의 심각한 교훈을 통하여 혁명투쟁의 진리를 밝혀주는 의의있는 형상으로 전형화되는데 있다.

명작에서는 치욕적인 《을사 5 조약》과 《정미 7 조약》 《국채보상운동》과 《헤그밀사사건》등 1894년 갑오농민전쟁으로부터 1905년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시기까지에 있는 역사적사건들을 통하여 일제침략자들에 의한 조선의 망국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숨겨가는 조국을 구원하기 위하여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피어린 애국운동을 재현하면서 그 모진 수난과 투쟁의 소용돌이속에서 안중근의 성격을 그려내는데 협상의 초점을 돌리고있다.

그리하여 안중근은 시대와 력사의 거세찬 흐름의 한복판에 서서 당시 우리 민족이 겪은 그 모든 수난과 아픔을 함께 겪으며 우리 인민의 그 열렬한 애국정신을 체현한 인물로 형상되고있다.

열혈청년 안중근은 기울어져 가는 조국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이며 가정도 청춘도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치였다.

죽음을 눈앞에 둔 마지막순간 너무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자신의 운명보다 그 언제 끝날지 모를 민족의 수난을 더 가슴아파하는 열혈청년 안중근의 모습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준다.

명작에서는 안중근이 지닌 고결한 애국정신을 진실하게 형상하는 동시에 그의 세계관과 애국적활동이 가지는 제한성을 밝혀내는데 주요한 창작적힘이 돌려져있다. 그리하여 명작에서 형상의 요소들 특히 이야기줄거리는 안중근의 성격발전과 그 계기들을 특징지으면서 그의 세계관과 성격, 애국활동이 가지고있는 제한성을 밝혀내는데 맞게 조직되고있다.

명작에서 력사적구체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그려져있는것처럼 안중근을 비롯한 애국자들과 인민들의 여러가지 형태의 애국운동들은 그의 고상한 지향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결과로 끝나고 만다.

안중근은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안고 《국채보상운동》과 《만국평화회의》, 의병투쟁에 기대를 걸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으나 그 결과는 언제나 너무 허무하고 비참한것이였다.

안중근이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의병투쟁도 동료들의 값없는 죽음과 사랑하는 청년 명국이의 시체를 남긴채 파국적인 참화로 끝나며 여기서 그는 의병투쟁의 제한성을 뼈속깊이 체험하게 된다.

이리하여 가슴에 애국의 피는 끓어도 나라 찾는 참다운 길을 찾지 못한 열혈애국청년 안중근은 마침내 한목숨 바칠것을 혈서로 맹세하고 철천의 원쑤 이등박문을 사살하는 개인테로의 길로 나가는 것이다.

하르빈역두에서의 이등박문의 사살, 이것은 안중근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할수 있는 최후의 애국적거사였으며 바로 여기에 그의 고결한 애국정신과

함께, 또한 그의 세계관과 애국활동의 제한성이 뚜렷이 반영되어있다.

이처럼 명작에서 안중근의 성격발전과정과 운명은 당시의 모든 애국투쟁의 실패와 교훈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며 이것은 이등박문은 죽어도 침략자는 남아있다는것이 명작의 종자로 되는 근거를 힘있게 확증해준다.

명작의 종자는 안중근을 비롯한 긍정인물들의 형상을 통해서 뿐 아니라 이등박문을 비롯한 일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의 추악한 형상을 통해서도 밝혀지고있다.

명작은 종자의 요구로부터 조선침략의 원흉이며 피수인 이등박문의 형상을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과 야수성, 교활성을 력점을 찍어 예리하게 폭로단죄하고있다.

명작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이등박문은 조선에 기여든 순간부터 음흉하고 교활하기 그지없는 수법과 강도적인 위협공갈로 봉건통치배들을 굴복시켜 정치군사적으로 조선을 예속시키고 천만원의 차관을 들썩워 우리 민족을 채무의 노예로 전락시켰을 뿐 아니라 강도의 법을 가지고 수많은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체포투옥하고 잔인하게 학살한 극악한 원쑤이다.

명작은 이등박문의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일제가 우리 나라에 기여들어 감행한 범죄적인 침략행위와 그 강도적이며 야수적인 본성을 예리하게 드러내고 일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우리 인민과는 한하늘을 같이 이고 살수 없는 철천의 원쑤이며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그 어떤 환상도 가져서는 안된다는것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명작에서는 특히 이등박문이 처단된후 일제침략자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며 조선을 자기의 식민지로 집어삼킨 사실을 통하여 민족의 자주성은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침략의 하수인들을 처단하는 개인테로의 방법으로써가 아니라 인민대중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혁명투쟁은 벌림으로써 제국주의자체를 철저히 소멸해버려야 한다는 주체의 혁명원리의 진리성을 형상적으로 확인하고있다.

이등박문은 죽어도 침략자는 남아있다는 종자는 일제침략군이 로일 전쟁을 도발하고 우리 인민을 군수물자운반에 강제동원 하여 노예처럼 부려먹으며 함부로 때리고 씹죽이는 장면으로 시작되어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가 된 류랑민, 조선민족의 대렬이 두만강을 건너 아득한 평원으로 끝없이 흘러가는 장면으로 끝나는 이야기줄거리와 비극으로써의 명작의 양상적특징도 예상하게 한다.

뿐만아니라 명작의 종자는 망국사의 교훈으로 사람들을 교양하는 력사극의 고전적본보기작품으로서의 특성까지도 규정하고있다.

명작의 종자는 마땅히 력사극의 본보기작품으로서의 특성에 맞게 작품이 소개로 된 력사적사건과

실재한 인물들과 밀접히 결부하여 고찰하여야 옳게 리해할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라는 명작의 제목은 아주 적중하고 교훈적이다.

이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당시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졌던 충격적인 사건인 안중근에 의한 이등박문 사살사건을 소재로 하고 그것을 제목에 뚜렷이 표시함으로써 관중들로 하여금 더욱 큰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작품에 대할수 있게 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에서 이등박문은 죽어도 침략자는 남아있다는 종자는 당시의 실재한 력사적사건, 사실, 인물들에 대한 심오한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사상적알맹이인 동시에 그것들을 작품에 도입하고 형상하는 데서의 거해야 할 원칙과 방법을 주는 지침으로 된다.

명작에서는 안중근의 성격과 애국적활동을 시대의 력사의 흐름속에서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옹계 결합하여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그의 긍정적측면과 함께 본질적제한성을 전면적으로 밝혀내고있는데 이러한 형상적특질은 종자에 의하여 기초지어진것이다. 다시 말하여 안중근의 개인전기나 단순한 력사기록이 아니라 시대의 본질과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심오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밝혀냄으로써 사람들에게 력사의 진리, 혁명의 진리를 깨우쳐줄수 있게 한 여기에 종자의 가치와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명작의 종자는 주인공의 성격과 인간관계, 명작의 구성과 양상 등에 대한 뚜렷한 표상을 안겨주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의 옹계 결합을 실현할수 있게 하였다.

이등박문은 죽어도 침략자는 남아있다는것을 종자로 보는 근거는 다음으로 그것이 명작의 주제, 사상과의 관계에서 보아도 전적으로 정당한 과학적인 규정으로 된다는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의 종자와 함께 주제와 사상도 밝혀주심으로써 주제, 사상과의 관계속에서 종자의 철학성을 옹계 파악하며 나아가서 명작의 사상예술적특성을 보다 정확하고 깊이있게 분석해명할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주시었다.

문학예술에서 종자는 작품의 주제를 규정하고 제약한다. 그리고 사상도 종자로부터 흘러나온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명작의 종자에 대한 심오한 통찰과 분석에 기초하시어 명작의 주제는 조선의 망국사의 근본원인과 피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라고 교시하시었다.

이것은 명작의 주제에 대한 완벽한 과학적해명으로 된다.

일반적으로 주제 즉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는 선택된 생활소재와 결부되어 구체적으로 제기되며

그 가치와 의의는 생활의 진실과 시대의 요구를 얼마나 깊이 있고 정당하게 반영하였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처단한 역사적사건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규정된 명작의 주제는 안중근의 운명, 그의 제한성과 관련된 문제인 동시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심각하고 의의있는 문제이다.

명작은 역사가 제기한 이 중대한 문제에 항일혁명투쟁이 전시기의 모든 민족주의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본질적제한성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심오한 철학적해명을 주고있다.

그것은 안중근이와 같이 애국사상이 높고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목숨바쳐 싸운다 해도 탁월한 수령의 정도를 받지 못하고 옳은 지도사상과 전략전술에 의거하지 못하면 그 투쟁이 은을 낼수 없고 실패를 면할수 없다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명작의 종자와 주제, 형상전반에 대한 전면적이며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시며 명작의 사상에 대해서도 가장 정확한 과학적해답을 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의하여 밝혀진 명작의 사상은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위한 투쟁은 혼자의 힘으로나 개인테로의 방법으로는 안되며 오직 탁월한 수령의 옳바른 정도밑에 인민대중이 한데 뭉쳐 싸울 때에만 승리할수 있다는것이다.

명작의 이 심오한 사상은 종자를 예술적으로 가공하여 창조한 형상전반에서 특히 주인공 안중근의 최후장면에서 힘있게 울려나오고있다.

침략의 피수들을 쓸어놓으면 국권을 회복할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철천의 원수 이등박문을 쏘아죽였으나 나라를 끝내 일제놈들에게 먹히우고 조선민족은 망국노의 멍에를 쓰게 된 엄혹한 현실앞에서 안중근은 늦게나마 개인테로의 방법으로서는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깨닫고 자기를 옳은 길로 이끌어줄 그런 위인, 탁월한 정도자를 갈망하게 된다.

《나를 옳게 이끌어줄 그런 위인, 그런 영웅은 없었구나. 5 천년의 역사를 가졌으나 짓밟히고 천대받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주고 세계에 당당히 내세워줄 그런 절세의 위인을 한번 만나보았됐으면...

아! 그런 영웅은 언제나 나타나려는지?...》

사형장으로 나가면서 부르짖은 안중근의 이 절절한 목소리는 애국충정으로 가슴 불태우며 헌신적인 투쟁을 벌려 온 안중근의 파란 많은 한생의 총화였으며 위대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 탓으로 나라를 잃고 노예가 된 우리 민족의 피타는 절규였다.

이와 같이 열혈청년 안중근의 피의 교훈을 통하

여 위대한 정도자의 출현을 피타게 부르짖는 2천만겨레의 념원과 시대의 지향을 작품의 마감에 여운있게 심어줌으로써 그후 위대한 수령님의 정도밑에 조직 전개된 항일혁명투쟁의 새시대의 도래를 시사했으며 바로 여기에 명작의 사상이 가지는 심오성과 그것을 규정한 종자의 철학적무게가 있다.

이등박문은 죽었어도 침략자는 남아있다는 종자의 철학성은 안중근의 애국활동과 그 제한성에 대한 심오한 분석을 통하여 사람,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근본적인 문제에 가장 옳바른 예술적해답을 줄수 있는 전제와 기초를 마련한데 있다.

문학예술에서 종자의 철학적무게는 사람,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서 얼마나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얼마나 심오하고 독창적인 해답을 주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이 명작의 종자는 당시는 물론 오늘에도 사람,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문제로 나서는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방도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형상적으로 밝혀낼수 있게 하는 바탕을 마련한것으로 하여 명작의 심오한 철학성과 거대한 사상교양적의의를 담보하게 되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인 수령의 결정적역할과 인민대중이 단결하여 투쟁할데 대한 사상을 심오한 예술적형상으로 밝혀냄으로써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 인민들앞에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길을 명시하였다. 여기에 명작의 거대한 문제성과 심오한 철학성이 있다.

이와 같이 이등박문은 죽었어도 침략자는 남아있다는 종자는 이 명작의 심오한 사상적내용을 규정하고 형상을 기초 지으며 그 불멸의 사상예술적 가치와 역사적의의를 담보하는 기본요인으로 되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명작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의 종자를 밝혀주신 가르치심은 이 명작의 사상예술적특성과 가치를 깊이있게 분석해명하기 위한 지침으로 될뿐 아니라 다른 문학예술작품들의 종자를 파악하며 작품들의 사상예술적특성을 분석하는데서 튼튼히 의거해야 할 사상리론적, 방법론적 지침으로 된다.

우리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히신 문학예술작품의 종자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과 작품들의 종자를 몸소 규정하여주신 가르치심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실천활동에 옳게 구현하기 위하여 온갖 정력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조선의 봄 외 1편

리광선

눈을 바라보면
눈물우에 어리는 봄별
발을 바라보면
발이랑우에도 어리는 봄별

어디서나
봄별은 차고넘쳐
봄바람이 안고온 기쁨이더냐
별에 마음에 한가득 넘치는 봄별이여!

비닐박막 모판에든
봄아가씨
따사론 해빛 손길로
파랗게 설레는 팽상모 쓸어주며
해종일 떠날줄 모르고

모판마다 정을 쏟아붓는
관리공 큰애기 가슴에도
눈뜨는 새싹의 환희로움
만풍을 안아올 기쁨을 채워주는 봄

온 겨울 풍년꿈 안고
잠자던 이 별에 찾아온 아씨봄은
온 들판에 만풍년 약속하며
이랑이랑 씨앗과 함께 노래 심고
가슴가슴 씨앗과 함께 기쁨 심어라

아, 어디나 봄, 봄
넘치는 봄날의 환희
올농사도 풍년농사
만풍년 가꾸어
어버이수령님께 기쁨드리려는 그 마음
불붙는 가슴속 한가득 넘치네

봄!
조선의 봄
산과 들에 깃들던가
해와 별 안고사는 가슴에
계절보다 먼저 찾아오네
봄, 조선의 봄은 ...

창문들이 열린다

해쫄은 아침에 열리던 창문들이
밤에도 열린다
낮에 열려 닫기지 못하던 창문들이
한밤에도 밝게 열린다

생각하면 꿈만 같아
입사증을 받아 쥐고도
선뜻 들어서지 못하고
봄하늘 가득히 날아오르는 새무리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로 가슴 적시던

오, 어제와 오늘이 생각나
방에 들어섰어도
알른거리는 장관
술잎무늬 도배벽을 쓸어보며
그저 감격에 눈물짓던 마음이 아니더냐

아이들이 기뻐서 묻는 말에
잘하던 말로 대답도 못준

문수거리 새집들이한 사람들
이 밤 잠못들고 문을 활짝 연다

방안엔 기쁨이 넘치고
가슴에 감사의 정이 넘쳐
초가 한간 변변한것 못가졌던
우리 인민에게
이 사랑의 요람을 안겨주시려
얼마나 큰 사랑 우리 당은 기울였던가

락원거리, 창광거리
사랑의 거리와 거리를 이으시며
문수거리 살림집을 구상하시고
오늘은 이 행복의 집집에
인민을 불러주신 그 은정

별빛과 불빛이 하늘가에 어울린
문수거리 집집의 환한 불빛
그 불빛 그 별빛 다 합친것보다

더 많은 자옥자옥 여기서 새겨온
당에 대한 고마움에 마음은 젖어라

행복에 행복을 덧놓아
사랑의 덧창문을 달아준 그 손길
땅우에서 별을 보며 살던 사람들
하늘가 별속에 살게 해주신
우리 당의 그 은덕 하도 고마와

그래서 이 밤
거리 먼 한끝까지 펼쳐진 불빛
은하의 줄기처럼 끝없이 흘러서
잠들지 못하는가
사람들은 창을 열고

대동강은 설레여 흐르며...

아 이밤
붉은 해돋이 아침처럼
불밝은 창문들이 일시에 열린다
행복을 속삭이는 말소리 안고
기쁨을 가득 실은 불빛을 안고...

고마워
깊어가는 이 한밤도
수천만 문수거리 창문들
뜨거운 마음의 창문과 함께 열린다
당중앙 향하여
사랑의 그 한뫼를 향하여...

꽃도 무심치 않아 외 1편

노오란 금노배꽃
벌 한벌 웃고있었다
혈전의 그날은 있은듯 없은듯이

봄에는 철쭉꽃
여름에는 금노배꽃
가을에는 붓꽃
봄여름 가을
피고 지고 지고 피고

대홍단벌은 그 언제나 꽃바다

꽃도 무심치 않아
이 벌의 꽃도 무심치 않아
사철 여기를 비울수 없노란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모신
무산지구전투승리의 기념탑앞에
벌꽃 온통 어울려 하나의 꽃다발되어

삼지연의 피리소리

-삼지연 조각군상중 투사의 피리에 부치여-

오월이라 훈훈한 봄바람은
호수가 십리에 향긋이 풍기고
날이 장차 새벽인데
호심에 잠긴 쪼각달 흔들며
은은히 흘러 흐르는 피리소리

벗어진듯 이어지고
낮아진듯 높아지며
그리움이 소리 되어 울리고
울리는 소리 그리움에친
피리소리 사향가의 피리소리

운무속에 우렷한
백두성산 가까운 못가에
그날에 이어 이어
어제도 아니 끊기고
오늘에도 아니 끊기는 피리소리...

광복된 조국을 그려 오늘을 그려
사뭇치게 울려 울리는 그날의 피리소리
광복된 오늘에는 락원의 이강산에 울려울려
아, 그날을 그려 그날의 투사들을 그려 사뭇치게하
는
피리소리 삼지연의 피리소리

영광이 있으라, 철의 도시여

차영도

언제나, 그 언제나
사시절 머리우에 불노을을 펼쳐안고
이 땅에 솟아오르는 태양과
열정의 인사를 나누는
철의 도시여!

당은 따라
충성의 한가슴 불같이 태우던
옛 투사의 넓이
오늘도 쇠물과 함께 끓는 도시
너 김철이여!

장하도다
이 나라 만아들의 값높은 자각을
강철의 어깨우에 무겁게 떠메고
80 년대의 장엄한 진군길우에
또다시 비약의 나래펼친 너!

돌이켜보면
너의 자육자육은
추억깊은 우리 당의 발자욱,
그렇듯 너는 언제나
당과 운명을 같이 했더라

참혹한 전쟁의 재더미우에
당이 가슴아픈 자욱을 찍어 갈 때
새로 복구해 낸 용광로의 첫 불길로
온 나라에 충성의 불씨를 뿌린 너,

어지러운 혁명의 원쑤들이
안팎으로 당을 헐뜯으려 날뻔 때도
강철로 성벽을 둘러쌓아
우리 당의 존엄을 지켜낸 너,

오, 어려워도 힘겨워도
한마음 오직

강철로 당을 받들어 온
철의 도시여,
강철처럼 의지와 신념을
굳세게 버려온 김철이여,

너의 그 신념
너의 그 의지는
내자 지닌 그 이름처럼
당을 따라 물불을 몰랐던
못잊을 옛 투사의 넓이거니

정녕 당의 부름에
오직 어김없는 실천과
불같은 충성만으로 대답해 온 너,
너는 우리 당앞에 언제나
수백수천의 김책동지였다!

그처럼 당에 충실했고
그처럼 당에 변함을 모르는 김철이여,
그 어떤 시련과 난관 앞에도
끼임과 굴함을 모르는 강철로
당과 깊은 인연 맺고사는 철의 도시여

영광이 있으라
당은 또다시
나라의 다섯개 전선중에서
커다란 전구의 하나를
너에게 맡겨주었나니

오, 너의 어깨우에 떠실린
당의 믿음,
당의 기대,
당의 사랑,
그것은 자랑찬 이 나라 철의 력사우에
다시 한번 찬란한 영광의 무지개로 비껴가리라!
너 철의 도시여!

형상창조에서 언어구사문제

-장편소설 《불을 다루는 사람들》을 읽고-

리 상 복

자주적인간의 형상을 절실하게 창조하는것은 우리 문학앞에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작가의 언어, 그것은 형상적화폭을 창조하는 언어이며 성격을 전형화하는 언어이다. 작가는 바로 명료하고 정확하며 생활감이 풍부하고 정서적인 언어를 리용하여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는 인간성격을 창조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말은 표현이 풍부하여 복잡한 사상과 섬세한 감정을 다 잘 나타낼수 있으며 사람들을 격동시킬수 있고 울릴수도 있으며 웃길수도 있습니다. 우리 말은 레의범절을 똑똑히 나타낼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산주의도덕교양에도 매우 좋습니다.》

생활감이 있고 친숙한 조선고유어를 널리 리용하여 묘사의 회화성과 치밀성, 생활적구체성을 보장하는것은 작품창작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장편소설 《불을 다루는 사람들》 제 1 부 (백현우작)에서 우리는 회화성과 치밀성, 생활적구체성을 특징으로 하는 문학적묘사의 진실성을 찾아보게 된다.

그것은 주로 세련된 예술적언구사를 잘한데 기인한다.

소설에는 정황과 사건에 대한 세심하고 분석적인 묘사가 주어지고있으며 성격발전과정에 대한 치밀한 묘사서술이 가해지고있다.

작가의 언어가 지녀야 할 중요한 특징으로서의 정교성과 세련성, 생동성과 풍부성이 이 작품에서는 하나로 융합되어있다.

소설을 유심히 읽어보면 독자들의 예술적인 감흥을 깨뜨려버리는 문맥의 부조화, 문장의 흐름을 거슬리는 하나의 부정확한 단어, 형상적화폭의 진실감을 손상시키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란 찾아볼수 없다. 그리고 뜻을 고려함이 없이 단어를 마음나는 대로 굴리며 진실하고 섬세한 표상과는 관계가 먼 형용어, 억지로 꾸민듯한 묘사, 따분하고 무미건조한 설명조의 서술이 없다.

언어의 예리한 표현력은 결코 기발하고 독창적인 어구나 형용, 비유의 탐구로만 얻어지는것이 아니다. 비록 생활에서는 흔히 쓰이는 어휘나 표현일지라도 그것이 제자리를 차지할 때 놀라운만치 생동

한 표현력을 발휘하게 되는것이다.

말을 제자리에 놓을줄 알며 하나의 뜻이라도 정확히 찾아낼줄 아는 언어구사의 성실성이 우리 작가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것이다.

장편소설 《불을 다루는 사람들》(제 1 부)에서는 어떤 묘사대상도 능히 다룰줄 아는 언어구사의 솜씨를 보게 된다.

《흐르는 물은 모두 바다로 향하기 마련이었다.

천갈래만갈래 자기 굽을 따라 각기 제멋대로 흘러가는 시내라 할지라도 지어는 한봉우리에서 시작되어 정 반대방향으로 갈라져나간 강이라 할지라도...》

《억봉이와 지훈의 격렬한 충돌은 쉼탄에 던져진 하나의 불씨였다. 불씨는 불을 일으키기마련이다. 건잡기 어려운 드센 불길은 그들의 충돌이후에 일어났다.》

《대동강쪽으로 치우친 해탄구역에서 제일 두드러지는것은 해탄로굴뚝들이다. 지붕과 지붕이 서로 잇닿아 파도치는 그우로 금시 출항을 서두르는 거대한 군함이 마스트처럼 굴뚝들은 하늘을 찌를듯 솟아있다. 굴뚝밑으로 세개의 울막줄막한 해탄로들이 일렬종대로 늘어서고 그 종대를 거느린 책임자처럼 종대옆에 또 하나의 해탄로가 서있다.》

《창밖에서는 잠시 그쳤던 비가 다시 짹짹 쏟아졌다. 장마가 시작되려나보다. 양철지붕이 비떨어지는 소리는 소란하기 그지없다. 요란한 비소리에 처음에는 귀가 멍멍하다 못해 골까지 지근거리더니 점차 소음에 순응이 되고말았다. 분기가 사그라드는 대신 자기 운명의 앞날에 대한 허무감과 절망감이 점점 커갔다.》

이 실례들은 결코 기발한 묘사나 표현에 대해 말해주는것은 아니다. 흔히 볼수 있는 이 표현들에서 우리는 분석적이고 치밀한 묘사의 풍부성은 보게되며 그것이 형상창조에 적극 리용되고있는것을 보게 된다. 이 글들에서 우리는 인물성격의 개성적인 면모와 생동한 화폭들을 그려보게 되는것이다.

확실히 이 작품에는 론리적설교가 앞서거나 조금히 서둔 개념적결론, 형상의 《외피》가 없는것이다. 모든 묘사가 다 성격창조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며 발랄한 개성과 생활적정서를 느낄수 있도록 되어있다.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내면세계에 대한 묘사나 독백들은 그들의 구체적인 개성적측면을 그

대로 드러내고있다. 이것은 창작가가 언어표현의 미묘한 색채감에 치밀한 형상적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파혼으로 누구보다 커다란 마음의 부담을 지닌 사람은 계향이였다. 역봉이가 징용에 끌려가던 그때부터 그한테 기물기 시작한 계향의 마음은 산에서 굴러내리는 돌처럼 견잡을수 없어졌으나 그것은 동정에 뿌리박은 상념적인것이였다. 동정이 사랑을 낳을수는 있으나 그자체가 사랑은 아닌것이다.》

이것은 주인공 역봉이와 파혼한 계향이의 내면세계에 대한 묘사다. 여기에는 계향의 심리적체험에 대한 진실한 분석이 집약적으로 서술되어있다.

말과 표현이 빈곤한 뒤는 군더더기가 의례히 따르는 법이다. 기발한 언어를 《탐구》한다고 하면서 쓸데없는 정력을 소모한것이 아니라 창작가는 사실을 그대로 진실하게 전달하는, 한마디가 열마디를 대신할수 있는 명확하고도, 소박한 언어를 탐구한것이다.

예리한 표현, 생동한 형상적효과를 위하여 명확하고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나 다 진실하게 느낄수 있는 세련된 개성적인 언어가 필요하다. 이런 탐구적인 언어라야 그것이 형상을 생동하게 창조하는데 효과적으로 복무하는것이다.

작품은 주인공 역봉이가 애인 계향을 보고 느끼는 장면에서 이렇게 쓰고있다.

《그 언젠가 <검이포> 제철소정문앞에서 숯쟁이 물팔을 한 자기앞으로 오빠인줄 알고 달려오던 계향이, 배송기 실은 화차앞에서 차지훈의 가슴에 충을 겨누던 그때 주저없이 지훈을 막아서던 처녀, 계향은 얼핏 보아 겁 많고 철없는 웅석데기같은가 하면 담차고 어른스러운데가 있었으며 애록애록하고 말랑말랑스러운데가 있는가 하면 웅골차고 뼈마디센 속대가 강물처럼 한자리에 머물러있을줄 몰랐으며 변덕스럽다고 할 정도로 변화무쌍했다. 생활의 굵인돌이마다에서 그의 모습이 매번 새롭게 비쳐지는것은 순간도 꺼질줄 모르는 열정의 분출때문일것이었다. 역봉은 이때처럼 계향이가 미더웁고 돈보인적은 없었다. 목에 휘휘 긴 목도리를 두르고 치마허리를 끈으로 가튼하게 줄라맨채 황황 타번지는 화불을 들고 서있는 계향의 모습은 이 세상 더없이 아름다와보였다.》

이런 치밀하고 분석적인 묘사는 주인공의 성격을 창조하는데 적극 이바지할뿐 아니라 독자들을 생화적인 진실로 믿게 하고있다.

명백하지 못한 막연한 생각은 필연코 정확치 못한 언어표현을 하게 하고 결국 그것은 부정확한 묘사를 낳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부정확한 언어표현을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는 여기서 창작가의 언어의 풍부

성 그리고 언어를 새로운 예술적수준으로 올려세우고 한 노력의 흔적을 엿볼수 있는것이다.

소설에서는 대사에서도 높은 예술적세련성을 보여주고있다. 인물의 사상과 심리와 개성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대사는 환경과 성격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것으로서 인물의 성격창조에 커다란 작용을 한다.

이 작품의 대사들은 어법상으로 보아 대사다운 특성을 가지고있으며 뚜렷한 형상적인 목적지향성이 있고 사건진척의 경과나 동기를 정확히 밝히고 있는것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모두의 내면세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대사가 짜여져 있으며 그들의 성별과 나이, 직업상특성과 지식정도가 잘 나타나고있다.

탐구된 한마디가 열마디를 대신한다는 언어표현의 비밀을 깨달음이 없이는 결코 진실한 형상창조를 할수 없다는것을 깊이 느끼게 되는것이 이 소설을 읽고난 우리의 생각이다.

지배인 선우치담이나 시당위원장 리석의 말에는 해설조의 설교나 개념적인 고무의 말이 아니라 생동한 생활감과 개성이 뚜렷이 느껴지게 되는것이며 주인공 역봉이 그리고 알뜰이와 계향이, 지훈, 석봉 등 많은 인물들 모두가 그들대로의 생활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있는것이다.

이들에게는 그 어떤 《틀》이란 없다. 그들모두는 자연스러운 자기 생활론리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쓰고있다.

개성이 드러나는 대사, 이것은 대사의 생명이다. 우리는 작품에 세련된 대사를 씌으로써 살아움직이는 개성적인 인물을 묘사하여야 한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낀것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등장인물을 생동하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진실에서 리탈하려 하거나 표현의 조잡성을 로출시키는 그런 《잔재간》이 아니라 등장인물의 성격을 보여주며 그들의 개성을 더 원숙하게 보여주기 위한 작가의 언어구사에서의 성실성인것이다.

확실히 작가는 시대변천에 따르는 사람들의 말을 그들의 개성적특성에 맞게 쓰고있는것이다.

소설은 마감에 이렇게 쓰고있다.

《불! 불! 불이 흘렀다.

산밭을 불태우고 하늘을 끄슬리는 화산의 불길도 저 불처럼은 뜨겁지 못할것이었다. 하늘에서 불 사태가 쏟아져내린다 해도 저 불의 흐름처럼 장엄하지 못할것이었다. 사람들은 강의한 의지와 피타는 로력으로 저 불의 흐름을 얻어냄으로써 쇠를 버릴수 있게 되었고 현대문명으로 비약을 이룩할수 있었다. 저 타번지는 콕스의 불길에 쇠와 돌을 녹이도록 뜨거운것은 저 불을 얻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더운 땀의 온기와 온기가 수백수천년을 두고
 합쳐진때문일지도 모른다. 쇠를 다스리는 저 불을
 얻어낸것은 인류사회발전에서 커다란 공적이었으
 나 수많은 사람들이 저 불때문에 얼마나 오랜 세
 월 고역에 시달려야 했던가. 사람들이 피땀 속에 태어
 났고 피로 가꾸어진 불, 저 불때문에 하 도 오랜 세
 월, 하도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했으니 그 선
 혈에 물들어 폭스의 불길은 저렇게 붉은지...》

여기에서 우리는 작품이 제기하는 문제를 집약적
 으로 알게 될뿐아니라 그것이 형상창조에 어떤 영
 향을 미쳤는가를 알수 있게 한다.

일반적으로 언어표현이 부정확하고 막연한것은
 형상적사유에 빈틈이 있고 그만큼 언어가 빈약하다
 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이러한 언어의 빈틈을 찾아
 볼수 없다.

우리 창작가들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
 결같이》 말하게 할것이 아니라 경력과 성격, 직업
 과 지식정도, 기호와 직종에 맞게 말을 시키며 말을
 시키더라도 시대적변천에 따라 응당 하여야 할 말
 을 시켜야 한다.

또한 독자들에게 친숙하고 묘사의 서술에서 생활
 감과 예리한 감수력을 가져다줄 어휘표현수단을 써
 야 한다.

개성적인 언어문제의 다양성과 심리정서적인 표
 현, 색채의 발현을 적극 살려 사람들을 공감시키는
 언어표현을 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언어구사를 더욱 세련시키고 생동한 언
 어표현에 의하여 더욱 부각된 성격을 그려냄으로써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전형을 빛나게 형상하여야
 한다.

가사

내 삶의 노래

리안희

강물이 쉬임없이 바다로 흘러가듯
 당을 따라 가는 길은 나의 삶의 길
 아 순간인들 살수 있으랴 이 길 떠나서

사품치는 물결을 잠재울수 없듯이
 당을 위해 끓는 피 식지 않으리

아 순간인들 살수 있으랴 이 심장 없이

폭풍이 세차면 격랑 드높듯이
 당을 받든 이 신념 더욱 억세리
 아 순간인들 살수 있으랴 이 신념 없이
 아 내 한생을 빛내일 삼의 노래여

큰 심장

리복은

아침이다. 하늘은 맑다. 허나 나에게는 온 누리가 불그스레하게 불타는가싶다.

나는 지금 건설장 한복판을 향해 걸어가고있다. 창조의 불꽃은 높은곳에서도 땅우에서도 빛나고있다. 건설장 여기저기에 긴팔을 드리우고 서있는 기둥기들, 서로 키돋움하며 쪽쪽 뺀 기둥들, 짐을 가득 실은 대형화물차의 힘찬 동음, 용접의 불꽃, 대기를 가르며 울리는 여문 호각소리... 시대의 맥박이 그대로 건설장에 흐른다. 《립체전》이다. 온 누리는 도가니속처럼 끓고 숨쉬는것이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중앙위원회두리에 굳게 뭉쳐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관철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하겠습니 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을 맹세한 전사이다. 오늘따라 심장은 이름할수 없는 걱정으로 더 놀뛰는가 싶다. 아니, 심장은 내 육체보다 더 커진것 같다.

기적이 기적을 낳고 위훈이 위훈을 떨치는 여기-김책제철소화장공사장에 달려온이래 내 심장이 이렇게 커져보기는, 그속에서 끓는 피의 박동을 가슴 뿌듯이 느껴 본적은 아직 없었다.

그만큼 이 아침은 나에게 유별한것이였다.

밤새 나는 잠을 이루게 못하였다. 심장의 걱정으로 무엇인가 크고 아름답것을 안고 모대긴것이다. 스스로도 놀랄만큼 힘이 뻗쳐올랐다. 지금껏 오래 동안 새로운 혁신안을 안고 망설인 나 같지 않았다. 얼마전에 당중앙위원회편지를 받아안은 그 순간부터 의지하며 심장이 굳세여진것이다.

어둠속에서 심장을 꺼내어 화불로 켜다는 그 어떤 신화적인 《거인》도 나처럼 큰 심장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을것이다.

이제 나는 건설장에서 그 심장의 열정을 터뜨릴것이다. 수십톤을 헤아리는 강철보를 단꺼번에 세개씩 묶어 하늘높이 올려놓고 조립해세울것이다.

그렇다. 그것은 기적이다. 혁신이다. 위훈이다!

심장의 힘은 참으로 거대하다. 어찌까지만 해도 하나씩 세우던 강철보다. 그런 강철보를 하루밤새 세개씩 한꺼번에 세울 사람으로 되었으니 어찌 실화의 그 《거인》에 비길것인가...

나는 세계의 강철보를 한 쇠바줄에 묶어 하늘 높이 올렸다.

기둥기의 팔은 휘친했다. 허나 내 심장은 커진 그

대로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해놓고보니 후회가 들었다. 왜 네개를 묶지 못했는가... 또다시 강렬한 충격을 받은 심장은 더 세차게 고동쳤다.

네개다! 무조건 네개를 묶는다.

심장은 또다시 끓는다.

신문기자, 방송기자, 지어 건설장 여기저기에서 먹물을 방금 찍다 만 속보원까지 나를 찾아왔다.

나는 말한다.

《아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하루빨리 공사를 끝내고 충성의 보고를 올리고 싶어하는것은 당중앙위원회편지를 받아안은 우리모두의 심정입니다.》

또다시 밤이 왔다.

나는 이번에도 모대긴다. 하루 일이 왜선지 성차지 않는다. 쿵쿵... 심장이 울린다. 어떤 거대한 일을 앞에 두고있는 사람의 심장갈기도 하다. 세계로 단정했던 강철보를 마지막에는 네개씩 묶어 올린것이 지금 나를 흥분의 도가니속에 집어넣은것이다.

이것은 아직도 내 심장에 어떤 공백이 있다는것을 말한다. 그 공백에 그전날의 수치가 빼곡 차서 아직도 나를 부끄럽게 하는것만싶다. 총 돌격선에 나선 병사에게 수치가 있을수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치욕이다.

한개의 강철보를 그 심장의 공백에다 더 튼튼히 묶어세우리라. 타산하지 말자,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이다!

문득 귀가에서 울리는 노래가 있다.

전진이다 전진이다

앞으로 전진 또 전진...

힘있고 박력있고 또한 살뜰하고 웅심깊은 노래.

웁았다. 그것은 내가 가장 준엄하던 전화의 나날에 어머니에게서 배운 노래였다.

어제밤에도 그제 밤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 노래를 부르며 어머니를 추억했다.

30년전의 어머니를...

어머니는 당원이였다.

집에는 어머니와 나 둘이 살았다.

어머니는 주물공이였다.

밥가마나 끓이던 어머니가 공장에 나가 엄청나게 큰 쇠물가마를 끓이게 된 일을 두고 나는 생가하였다. 전쟁이 아닌가. 전쟁에서 이기자면 너자들도 남자들이 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은 아버지가 전선으로 떠나던 날 어머니가 나에게 한 말이였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몸에서는 밥냄새만이 아니라 쇠냄새가 늘 풍겨났다. 쇠장대를 잡는 아버지를 위해 정성껏 만들어두었던 두툼한 통장갑들을 어머니

는 통속에서 꺼내 공장으로 나갔다.

어머니의 얼굴은 차츰 거칠어져갔다. 때로는 쇠물에 다쳤는지 손가락에 천오리를 감고 들어오곤 하였다. 나는 통속을 뒤져 보았다. 아직 통장갑은 몇켤레 있는데도 손이 그렇게 되었다. 나는 걱정이 들었다. 정말 어머니가 손만은 다치지 않았으면 하고 빌었다. 어머니의 손은 보배손이다.

나는 점차 어머니가 장하게 여겨졌다. 어느날은 누가 나에게 어머니는 당원이어서 미국놈들한테 본편을 보이자고 그렇게 일한다고 하였다.

그때부터 나는 미국놈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머니와 같은 당원들이라고 생각하였다.

며칠째 어머니는 저녁길을 펴 늦어지곤 하였다. 나에게서는 지루하게 집토방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날이 많아졌다. 홀로 있자니 적적했다.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다 혼자 술국이 잠들곤 하였다. 깨보면 나는 방안의 따뜻한 아래목에서 자고있었다. 따뜻한 어머니의 눈길이나 나를 지켰고 그 보배손이 내 이마를 짚고있었다.

한번은 기다리다 못해 어머니를 찾아 공장으로 나갔다. 그날은 공장이 다섯번째로 폭격을 받은 날이었다. 그래 나는 겁이 들었다. 어머니를 찾아 허둥지둥 뛰었다.

어머니는 용선로앞에 우뚝 서있었다. 무너진 로벽을 쌓고있는것이였다.

집에 들어오며 어머니는 나에게 말하였다.

《기다리느라 수레 지쳤겠구나, 폭격소리에 울지는 않았니? 어서 커야겠다…

오늘 노래를 배워줄게 노래를 부르며 기다리게라.》

어머니는 정말 노래를 불렀다.

《전진이다 전진이다…》

나도 따라불렀다.

《전진이다 전진이다…》

그때로부터 며칠이 또 지난 어느날 밤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어떤 기척에 잠이 깨어 방안을 살폈다. 방안은 우유속처럼 희미하였다. 점차 명백해졌다. 석유등불이 가물거렸다. 그 불빛을 받아가며 어머니는 무엇인가 읽고있었다. 벽에는 어머니의 그림자가 산처럼 그려져있었다.

무엇을 읽을가… 차차 호기심은 등불의 심지처럼 내 가슴을 태우기 시작하였다.

나는 어머니한테로 슬그머니 다가가서 물었다.

《어머니, 무엇을 읽나요?…》

어머니는 읽던것을 그만두고 나를 자기 품으로 꼭 당기었다. 그리고 나의 더부룩한 머리를 정겹게 쓸어주는것이였다. 나는 힘들텐데 함께 자자고 하

였다.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하였다. 《어째서 힘들겠니. 미국놈들을 이기자고 일을 하는데…》

어머니의 그윽한 눈동자에는 그 무엇인가 방긋 빛나는것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정말 어머니는 산악처럼 크고 굳세게 보였다.

나는 펴 후날에야 어머니가 등불을 돌구며 읽던것이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편지였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그때를 회상하며 언젠가 어머니는 이런 말을 나에게 해주었다.

《…미국놈들은 <신공세>를 내두르며 악착스럽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놀라지 않았다. 편지를 받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한 우리들이였다.… 폭격에 송전선이 끊어졌지만 우리는 마사진 자동차를 끌어다 고쳐서는 바퀴를 떼고 거기에 피대를 걸어 송풍기를 돌리며 쇠물을 뽑았다. 용선로를 자기 심장으로 지켜내면서 당중앙을 사수하였다…》

쇠물보다 뜨겁고 용선로보다 더 큰 심장을 가진 당원들이였다.

세월은 흘러 나도 당원이 되었다.

당원, 얼마나 가슴 울렁이는 말인가.

어머니가 당중앙위원회편지를 받아안고 심장을 불태우던 그때처럼 나도 심장을 태운다.

적들이 아무리 전쟁의 불구름을 피워 올려도 놀랄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어제날도 그랬고 오늘도 우리의 심장은 억세다 아침이다.

나는 기중기를 불러 한꺼번에 강철보를 다섯개나 묶어 매단다.

기중기공처녀가 쉿한 목소리로 말한다. 《정말 심장이 큰 사람이에요!》

나도 말한다. 처녀의 심장도 강철보인양 튼튼하고 크다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다섯개를 묶으라고 쇠바줄을 풀어내렸겠는가고…

정녕 당중앙위원회편지는 우리모두에게 큰 심장을 준 투쟁의 기치, 승리의 기치다.

창조의 불꽃은 어디서나 휘날린다.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혁신과 창조의 불길속에서 자기자신을 본다.

우리는 원썩놈들의 머리우에 철추를 박고 강철고지점령을 위해 떨쳐나선 당의 전사들이다.

승리의 합성은 지금 울리고 있다.

억센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이기며 승리하는 법이 아닌가!

여기는 전투장이다.

승리의 메아리인양 우람찬 건설의 동음이 멀리 울려가고있다.

소나기 내린뒤

고영수

물안개 날아오르자
하늘의 별무리 흘러내린듯
찬연히 미소던지는
금빛 노을에 싸여
봉이마다 구슬옷 떨쳐입었구나

탐사대원이 아니고야
그 누가 이런 멋 보았으랴!
별경게 달아오른 로벅인듯
벼랑엔 노을이 어리고,
불꽃 튀기며 쏟아지는 쇠물같이
폭포수 내리고
단풍잎은 날리고...
좋아라!
하늘땅이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어
내 마음도 함께 물들어
레사로이 보이던 검푸른 메부리들도
다듬어세운 보화의 탑처럼 황홀하다

아, 기쁨에 취하는 이런 때면
어깨에 묵직한 시료배낭
절로 가벼워
유색금속 휘황한 봉우리로 부르신
수령님 손길에 받들려
은몸이 등실 쇠물바다우에 떠있는듯하구나

적 벼랑끝에 매달린
밤알모양 작은 돌조차
새 광산의 꿈을 안고 숨쉬고있어
더운 땀 뿌리며 뚫아오르는 길에
눈에 띄는 산삼꽃은 밟고 지나도
천길 땅속의 광맥
하나도 스쳐지날수 없는 이 마음

탐사대원 우리 걷는 걸음 따라
소리치며 태어나는 온갖 보화들
강물처럼 흐르고 흘러
화력타빈의 날개엔 번개일고
령롱한 무지개마냥
자동화의 불빛 강산에 비껴
행복의 화원으로 만발하리니,

터질듯 한껏 부풀 이 가슴이어!
내 딛고 선 봉우리보다
쇠물의 산악 더 높이 안아 올리리
내 마음 꺼짐없는 노을이 되여
야금기지 하늘가를 붉게 물들이리

아 소낙비 내려
달아오른 대지는 식힐수 있어도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불려
사실절 은금보화 안고사는
탐사대원 이 가슴은 식힐수 없으라

첫 렬차가 온다! 외 1편

김상조

간이역에서 멀리 떨어진
서해바다기슭
우리네 갑문건설장에
렬차가 온다
사랑의 첫 렬차가 온다

높은 산뿔고
긴다리 지나
굽이굽이 새 철길 누비며
건설자재 싣고 오는

기적소리 높구나

동무들아,
돌격대결사대원들아,
우리 미처 꽃보라 준비하지 못했어도
어서 달려가 마중하자
소금기 허영계 배인 손 흔들어주자
무더운 삼복철에 등을 태우고
우뢰와 맞서 웃음날리며
두줄기 궤도를 늘이던 나날

저 기적소리 꿈속에 그 얼마나 들었더나

렬차가 온다
기적소리 메아리친다
수령님 보내시는 세멘트와 강재
차관가득 실었다고 알려주는가
당중앙이 보내는 대형설비들
어서 받아안으라, 올려주는가

소문난 100 만산 발파공들과
가물막이구조물 가라앉히는
저 잠수공 영웅들을 소리쳐 부르는듯
긴 기적소리 바다를 흔드누나
이제 천으로 만으로 이어질
충성의 기적소리

위훈의 기적소리따라
거창한 갑문이 날바다우에 솟고
그우로 직통철길이 놓일 때
렬차여, 그날엔 우리
온 조국이
커다란 꽃대문 세워 마중하리라

오, 래일의 천리 대동호수에
흘러넘칠 웃음과 행복의 노래
꽃피날 새 생활의 숨결을 안고
질풍같이 달려오는 렬차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을 실
은
기쁨의 렬차
첫 렬차가 온다

위훈의 새벽

비릿한 바다바람
유정히 풍기고
은은한 물결
소리없이 뒤척이는
가물막이공사장의 새벽,

새별돋는 아슬한 철골우에서
조립공들 아직도 내리지 않는구나
용접불꽃 날바다에 뿌리며 뿌리며
산악같은 정통묶음 이어놓누나

건설장의 《사령관》- 대형기중기선은
정통묶음 품안아 추켜올린채
서서히 침강구역으로 미끄러져 가고
수풀처럼 진을 친 크고 작은 배들은
련속 조립의 기발 날리누나
조명등 환히환히 밝히누나

만사람의 눈길속에
기중기팔의 쇠바줄 팽팽해지고
지휘선의 신호기발 높이 오를제
아, 연공도 잠수공도 해상수송대원도
하나같이 숨죽이는 순간
퇴성인가 벽력인가

《침강!》
《침강!!》
한바다 끝까지 울려퍼지는 구령소리-

오 새벽이여
해상 건설장의 격전이여
너는 도하나 거대한 가물막이구조물을
설레는 바다같이 내리우누나
잠깨지 않는 조국의 날바다우에
새날의 위훈을 말없이 아로새기누가

위대한 수령님 받드는 길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따르는 충성의 길에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이 나라 청춘들의 의지와
쉽없이 높뛰는 젊은 심장들에 떠받들려
또 하루 밝아온 창조의 새벽이여!

어서 맞으라
키돋움하는 거창한 갑문 기둥우에
붉게붉게 타오르는 아침노을을
《80년대속도》 창조의 불바람속에
세차게 나붓기는 3대혁명붉은기폭을
소문없이 태어나는 무수한 숨은 영웅들을!

한 부문당 비서의 수기

김길환

그날 밤이 퍼그나 깊어서였다.

분주한 하루일을 마친 나는 책상우에 널려져있는 서류들을 주섬주섬 거두며 퇴근차비를 하고있었다. 그런데 그때 때늦은 전화종소리가 나를 책상으로 끌어당겼다.

나는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예, 최영배 전화받습니다.》

《내 동현이요. 아직두 퇴근을 안했소? 동무 요즘 신형압축기소재때문에 너무 무리하는것 같구만.》

나는 뜻밖에도 시당 전원회의에 올라갔던 공장 초급당비서동무의 석싹한 목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저으기 놀랐다.

《언제 오셨습니까? 비서동무》

《조금전에 왔소. 영배동무, 이제 그만하구 퇴근하지 않겠소? 가던길에 내 방에 좀 들리오. 긴급히 토론할 문제가 있소.》

《예, 알겠습니다.》

송수화기를 천천히 놓은 나는 거두던 문서들을 서류함에 넣으며 생각에 잠겼다.

(무슨 일때문일가? 혹시 시당회의에서 긴급과제가 떨어진것이 아닐가?)

원래 우리 기계공장이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대상설비생산기지였던만큼 소재생산을 담당한 단조직장도 달이 멀다하게 새로운 긴급과제들을 받군해왔다. 때문에 회의에 올라갔던 초급당비서가 내려 오자바람으로 이렇게 늦은 밤에 찾을 때에는 여간 어렵고 중요한 과업이 떨어진것이 아닐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빠 외출복을 갈아입은 궁금한 심정을 가다듬으며 초급당으로 올라가다. 당위원회의 태반의 방들은 이미 불이 꺼지고 접수실과 비서의 방에서만 유난히 밝은 불빛이 쏟아져 나왔다.

내가 손기척을 내고 초급당비서방으로 들어서니 몸집이 다부진 신동현비서는 창가에 뒤짐을 지고 서서 밖을 내다보고있었다.

《영배동무요.? 여길 오우. 여기 와서 저걸 좀 내다보우.》

나는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그의 곁에다가 호기심 어린 눈길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두운 창밖에는 아무것도 신기한것이 없었다. 다문 눈에 뜨이는것은 늘 보아오던 우

리 단조직장과 이웃 주강직장의 채광창에 비친 붉은 화광뿐이었다. 두 직장의 전기로와 가열로들에서 내뿜는 거센 화광은 채광창을 뚫고 밤 하늘을 검붉게 태우고있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면 천정기중기운전공들이 때리는 맑은 종소리며 지심을 쿵쿵 울리는 둔중한 함마소리, 전기로의 뽕뽕거리는 아크소리가 들려왔다. 이 모든것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눈과 귀에 익고 몸에 밴것이어서 나는 지금 비서가 무엇때문에 창가로 불러세웠는지 까닭을 알수가 없었다.

신동현비서는 깊은 상념에 잠긴듯도 하고 그 어떤 다른 심각한 생각에 잠긴것 같기도 한 눈길을 여전히 창밖에 준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밤하늘이 얼마나 아름답소. 우리 당원들은 훌륭한 기계두 잘 만들어내지만 밤풍경두 굉장히 아름답게 장식하거던. 금시 불이 확 당길것 같지 않소? 저 하늘이 또 거대한 붉은 기폭이 펴려이는것 같기두 하구. 예참, 그림채간을 타구못난게 큰 불행이야. 미술가라면 저걸 보구 참아낼수가 있겠소? 허허》

나는 초급당비서가 오늘따라 지나치리만큼 감상적인 기분에 사로잡혀있는것이 피이쩍게 느껴졌다. 신동현은 원래 그렇지가 않았다. 어릴때부터 가열공으로 불앞에서 뼈마디가 굶었고 공장의 여러 직종에서 당일군이 되기 전까지 못해본 일이 없었다. 그렇기때문에 그는 웬간히 어려운 과업이라도 두려워 안했고 또 직방 상대방에게 터놓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성미였던것이다.

나는 점점 더 긴장해졌다. 이제 직장이 반아안게 될 과업이 보통과업이 아닐것이라는 예감이 초조한 마음을 짓누르는것이였다. 나는 바로 그의 언행에서 판가리싸움에 나가는 전사들에게 어려운 임무를 주기전에 미리 상대방의 각오를 준비시키군하는 그런 로련한 군사지휘관의 체취를 느꼈던것이다.

《이런 저녁엔 자기두 모르게 공상에 잠기게 되는군. 동무도 더러 공상을 해본 일이 있소?》

신동현은 너부죽한 철색얼굴을 나에게로 돌리고 미소를 지으며 묻는것이였다. 나는 그의 이 뜻밖의 물음에 잠시 어땡땡해 서있

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입을 뗐다.

《뭘 별루 공상이라구 이름짓기는 곤란하지만 큰 대상을 하나씩 제겼을 때마다 더 훌륭해질 우리 앞날을 그려보군 합니다.》

《공상을 즐기는것은 좋은 일이지 그래야 일할 욕심이 생기구, 난관에 부딪칠 때 두렵지 않거던. 그래 무얼 생각했댔소?》

나는 이제 와서 두 주물거리지 않았다. 32살 한창때인 나는 자주 단조공들과 함께 가열로앞에서 시뻔건 강피를 실컷 두드려 내고는 선풍기결에서 땀을 식히며 더 거창해 질 앞날에 대하여 웃고 떠들며 론쟁하곤 했던 것이다.

《지금보다 몇십배로 더 커질 우리 공장을 그려보았지요. 또 우리 직장두말입니다. 프레스화, 형단조화가 실현되구 넥타이를 맨 두 세명의 단조공들이 자동계기실에 앉아 일하는 모습은 상상만해도 기운이 저절로 솟구쳐 거던요.》

어쩐지 나의 대답에 신동현은 껄껄 웃기만 하였다.

《허허... 영배동무 내가 듣고싶은건 그게 아니구 동무가 책임진 당원들의 장래에 대해서요.》

《거기까진 미처...》

역시 그의 생각은 깊었다. 신동현은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부터 생각했다. 그는 사색하는 당일꾼이었다. 나는 그의 웅심깊은 마음 속에 들어앉은듯 눈앞이 환해지는것 같았다.

신동현은 창가에서 물러나 방안을 천천히 거닐었다. 그러다가 책상결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은근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는것이였다.

《내 동무가 울려보낸 추천서를 보았소.》

나는 그제서야 그의 책상우에 한장의 추천서가 놓여있는것을 띠여보았다. 나는 그 추천서에 온갖 심혈을 다 기울였었다.

《동무네 대형합마공 주철웅동무가 있잖소? 구역당학교로 내신한 동무말이요. 당에 입당한지 서너해남짓하디지?》

《예.》

《영배동무, 그 동무가 어떻게소?》

《?...》

《추천서가 시원칠 않아.》

이렇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고 은근하던 그 눈에는 시름이 잔뜩 실려있었다.

나는 이때에야 비로소 그가 왜 나를 이렇게 밤에 불렀으며 왜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겨 오래동안 이야기했으며 쇠물빛이 어린 밤풍경과 공상에 대하여 그렇듯 천진하게

물었는가를 명백히 깨닫게 되였다. 그것은 내가 가슴을 조이며 기다리고있던 중요한 대상설비과제가 아니라 한 당원에 대한 문제, 주철웅의 추천서때문이었던것이다.

나는 재빨리 주철웅의 추천서 내용을 머리속에서 훑어 보았다. 혹시 내가 그의 사업과 생활을 지나치게 분석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너무 과소평가한것은 없는가? 그러나 별로 마음에 쏠리는것은 없었다. 다만 흠이라면 그의 생활상에 군중성이 적은 결함이 간혹 나타나는데 이로 하여 세포의 분공까지 한번 수행하지 못한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함은 누구나 다 있을수 있는것이고 또 결함이 없는 사람이 어데 있겠는가?

《비서동무, 제가 잘 도와주지 못해서 그의 추천에서는 군중성이 적은 표현들이 있다고... 그렇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당세포가 추천서를 당적원칙과 객관적립장에서 쓴것은 옳은 일이요. 내 그결 탓하는게 아니요.》

나는 의아한 눈길을 들어 초급당비서를 바라보았다. 무슨 문제때문일까? 혹시 수행하지 못하고 이는 분공 한건때문에 아예 부결을 놓자는것이 아닐까? 나의 생각을 확신시키듯 그의 너부죽한 얼굴에 한껏 질은 그들이 비끼였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한 당원의 발전이 나때문에 부결된다면 한평생 그 가슴아픔을 어떻게 새기며 산단말인가.

한참 고개를 숙이고 서있던 나는 이러고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피뚝 들어 머리를 버쩍 들었다.

나는 황급히 주철웅동무는 당조직관념이 높고 성실한 당원이며 매해 경제과업도 두릅씩 넘쳐수행한 동무라는것, 간부양성기관에 보내여 교육한다면 나무랄데 없이 훌륭한 일꾼으로 자랄수 있다는것을 구구히 설명하며 두둔해나섰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간청하대 싶이 의견을 제기했다.

《그 동무의 부족점은 전체 생활에서 옥에 티나 다름없습니다. 또 일을 하자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거구요.》

《그렇단말이지? ... 옥에 티라, 영배동무, 여기와 좀 앉소.》

신동현은 먼저 길다란 안락의자 한쪽에 앉으며 나를 곁자리로 불렀다.

《그래 그 동무의 군중성이 적은 표현은 어떤데 서 나타납데?》

《수차 본인과 담화두 하구 세포비서동무와

두 의견을 나누어보았습시다만...》

나는 그의 곁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철웅이가 당적분공을 수행하는데서 나타난 부족점에 대해 처음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때로 말하면 직장에서는 매우 힘겨운 전투를 벌리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흥전원회의에서 하신 강력적교시를 관철하는 한편 계획외에 최신형의 새로운 압축기를 제작하고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뜻밖에도 주철웅이가 몹시 까다로운 신형압축기 곡축소재단조를 형단조화할수 있다는 창안을 제기해 왔었다. 곧 직장 참모회의에서는 그가 학습장을 찢어 그린 어지러운 도면을 놓고 런던 이틀밤이나 협의를 했다. 협의회의 결과는 시원치 못했다. 시제품만은 고급기능공들로 조직하여 자유단조로 해결하고 차츰 계열생산에 들어선 다음 형단조를 받아들이자는것이였다. 그러자 철웅은 그 도면을 들고 부문당으로 찾아들어왔다. 나는 오래동안 그의 도면을 연구한 다음 그것을 들고 직장장을 비롯한 몇몇 참모일군들을 찾아가 신중하게 토론을 거듭했다. 철웅이로 말하면 여러가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한 경험이 있는데다가 또 이번의 착상도 매우 경제적효과가 클뿐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계열생산에 넘어가야 하는것만큼 대담하게 시제품부터 시도 해보자는 결말을 짓게 되였다. 그래서 신심을 얻은 철웅은 직장에서 무어준 기술혁신조를 책임지고 하루일이 끝나면 밤을 패대면서 달라붙었다. 당세포는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기술혁신조성원들을 조직동원하여 그것을 성과적으로 보장할데 대한 분공을 주고 그를 책임자로 임명했던것이다. 처음부터 철웅은 열성이 대단했다. 현장 기대옆에서 날라다 주는 밥을 먹고 쪽잠을 자면서 무서운 기세로 내밀었다. 그러나 첫시험은 실패로 돌아갔다. 감마검사 결과에 의하면 그들이 제작한 형타로 찍어낸 곡축소재에는 미세한 균열들이 갔던것이다. 시험은 여러번 반복했으나 실패는 거듭되였다...

차츰 일부 사람들은 그들의 창안에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고 직장생산과 다른 제품의 형단조화에 지장을 준다는 말들까지 하게 되였다. 하지만 철웅은 기세를 조금도 꺾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기의 높은 기능과 비상한 머리만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것이다.

시일은 자꾸 흘러갔으나 실패는 계속되였다. 당조직과 행정에서는 그들의 실패의 원

인을 두고 심각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왜냐면 그것을 시험하는 과정에 생산을 광광해야 할 대형합마를 무한정 맡겨둘수 없는데도 있었지만 기술혁신조성원들의 뒤말들에서 이상한 감촉을 받았기때문이었다.

하루는 기술혁신총화모임에서 나이많은 고급기능공당원이 철웅이를 되게 비판하였다.

《철웅동무, 과연 동무만이 혼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하구 오직 동무에게만 기대를 걸어야 일이 성공된다는 법은 어데 있소? 동무 혼자서 모든것을 해낼수 있다구 하면 무엇때문에 직장에서 술한 로력을 떼서 기술혁신조를 무어주었겠소? 동무의 머리에 있는 그 소총명기를 버리지 않구선 백번을 해두 우리 일을 성공할수가 없소.》

사실 그 당원은 옳게 보았다. 나는 이날 회의에서 기술혁신조의 일이 안되는 원인을 깊이 알게 되였다. 그것은 매우 좋지 못한것이였다. 당조직은 그가 당원이기때문에 기술혁신조에 망라된 성원들을 조직 발동하여 창안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분공을 주었는데 그는 대중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고사하고 자기의 총명만을 믿고 독단을 부리고있었던것이다. 후에 알고 보니 기술지도원과 기술혁신조성원들이 공장 기술집단의 방조를 반자고 했을 때에도 그는 남의 방조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고 하면서 끝내 우겼다 한다.

철웅은 총화모임이 있은후에도 당원들의 친절찬 충고와 나의 여러번 되는 타이름에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제 고집만 내세웠다. 그러다나니 기일만 질질 끌고 시제품생산에 지장을 주었을뿐이였다. 열네번째의 실패후 행정일군들은 더는 참지 못하고 들고일어났다. 그들은 시험에 사용된 원료와 자재, 로력랑비를 추궁했고 시제품생산이 지연된 책임을 따졌다.

일이 이렇게 되자 철웅은 당조직을 찾아와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최종시험의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였다. 당조직은 아량을 가지고 직장일군들과 다시 토론을 거듭한 끝에 그에게 최종시험의 시간적여유를 주었다. 그랬으나 그가 것처럼 애타게 바란 시험은 가슴아프게도 또 실패하고말았다. 그날 철웅이는 자기 합마기등을 무쇠같은 주먹으로 두드리며 몸부림쳤었다...

나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고난 초급당비서는 신중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묻는것이였다.

《그래 이젠 완전히 포기하구 말았겠소?》

《아닙니다. 아무때건 자기 혼자서 두 성공하는걸 두고보라구 욱 욱 버튼답니다.》

《음… 몇차례의 성공에 우쭐해졌구만》

《…》

《영배 동무 너무 늦어서 안됐소. 어서 들어가서 눈을 좀 붙이오.》

신동현은 나를 너무 오래동안 지체 시킨것이 미안한듯 이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몹시 피로에 지친듯이 보였다. 그것이 한 평범한 당원의 고치지 못한 결함을 두고 속을 썩이는데서 오는것임을 직감한 나는 송구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그날밤 또다시 그사이 밀린 문건들을 붙들고 책상에 마주앉은 초급당비서를 남겨두고 그가 태워준 승용차에 앉아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이 많았다. 한 직장의 당원들을 책임진 내가 일을 쓰게 못한 결과 웃일군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걱정을 끼치고있는가.

나는 한 당원의 분공수행정형을 놓고 것처럼 안타까와하고 가슴저려하는 오랜 당일군의 품모양에서 자신의 자신의 사업을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나는 앞으로는 절대로 사업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더 섬세하고 간지게 함으로써 철웅이와 같은 당원이 없도록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몇번이고 다짐하였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어느날보다 좀 일찌기 출근한 나는 작업복을 갈아입고 현장으로 나갔다. 선형압축기업 소생산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아보고싶었던 것이다. 요즘 출근하자 바람으로 현장료해부터 시장하는것이 나의 일파로 되어있었다. 그것은 온 공장의 초점이 소재를 앞세워줘야 할 우리 직장에 쏠려있었기때문이었다.

대형합마쪽으로 걸음을 옮기던 나는 깜짝 놀라 멈춰섰다. 뜻밖에도 합마앞에서 초급당비서가 단조공들과 함께 땀을 철철 흘리며 일하고있는것이 아닌가. 간밤에 분명 그 많은 문건들을 보느라고 꼬박 새웠음에 틀림없었을 그가 어느새 나보다 먼저 현장에 내려와 일하고있으니 놀라지 않을수 가 없었던 것이다.

단조공들과 함께 정신없이 시뻘건 강피를 모루우에 들이미는 그의 땀에 뜬 얼굴은 전기로의 불빛을 받아 청동처럼 번들거렸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먼구스러운 표정으로 인사를 하자 그제야 허리를 편 초급당비서는 병어리장갑을 벗으며 선풍기 앞으로 다가왔다.

《어제 벌써 나왔소?… 동무네 단조공들의 사기가 아주 좋구만. 여기에만 오면 정신이 번쩍 들거던. 찬물찜질한것처럼 말이요. 허허…》

신동현은 밤새 샌 사람 같지 않게 젊은이다운 활기에 넘쳐있었다. 그러나 온통 쇠검뎡이가 게발린 그의 작업복이며 등에서 문문 피여오르는 김을 보고 그가 이미 우리 직장내 내려와 한두시간이 아니게 일했음을 알아챈 나는 가슴이 몽클했다. 온 공장의 크고작은 일들을 안고 씨름하면서도 이렇게 밤을 새며 청년들과 함께 합마를 다루려니 왜 힘인들 들지 않겠는가.

나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듯 신동현은 인차 화제를 돌리는것이였다.

《제 10 톤합마에서 쓰구있는 련결대형타두 철웅동무가 만들어낸것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걸루 일을 좀 해보니 참 신통하게 만들었거던.》

《철웅동무가 저것말구도 가치있는 창안들을 여러건 해놓았습니다.》

나는 바로 이때라는듯 그가 창안도입한 여러가지 기술혁신안들을 죽 련거했다. 속으로는 철웅이가 거둔 성과에 비기면 지난번의 곡축형타실패는 옥에 티나 다름없는 보잘것없는것이며 또 사람이란 많이 하느라하면 실패도 있을수 있고 결함도 범할수 있지 않느냐는것을 슬그머니 암시하고 싶었던것이다.

초급당비서는 나의 이 속심을 눈치챈던지 땀흐르는 얼굴에 못마땅한 기색을 지었다. 나는 점점 더 마음이 무거워졌다. 당비서의 한치의 양보도 없는 엄격성을 다시 가마이 있을것 같지 않았다.

그때였다. 밤교대를 마친 억대우같은 주철웅이 고개를 숙인채 심각한 생각에 감겨 현장 출입문밖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있는것이 눈에 띄었다. 밥팩을 옆구리에 끼고 어깨가 처져서 가고있는 그에게서 나는 인차 눈길을 땔수가 없었다.

《내 지난밤에 짹짹하게 얘기 좀 해냈소. 군중성이 없는 당원은 당원자격이 없다구말이요. 아마 지금쯤 심각한 내부투쟁을 하구 있을테지.》

순간 나는 얼굴이 화끈하였다. 초급당비서가 지난밤 우리 직장내 내려와 있던것이 단순히 직장앞에 걸린 시 제품소재때문이 아니라 철웅이때문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던것이다.

내가 선 자리에서부터 가열로는 먼곳에 있

있건만 마치도 이천도의 화염이 이글거리는
로결에 선듯이 얼굴이 그냥 달아올랐다.

초급당비서가 올라간 다음 나는 무거운 마
음을 안고 함마소리가 세차게 울리는 직장밖
을 천천히 돌면서 자신의 사업이 거치르는데
대해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그날 아침은
하늘에 검은 구름이 잔뜩 끼고 금시 비가 손
아질듯이 찌물켰다. 그래서인지 속 저린 자
책으로 빈열이 인 내 가슴은 식힐데가 없었
다.

점심시간이 가까와올무렵 나는 종내 건딜
수가 없어 당위원회로 올라갔다. 그앞에서
내자신을 기탄없이 털어놓고 비판해야 시원
할것 같았다. 나는 초급당비서의 방문을 조
용히 열고 들어섰다.

신동현은 한창 전화를 걸고 있는중이었다.
그는 무엇때문인지 몹시 성나있었다.

《이보시오. 소장동무, 내가 얼마나 동무에
게 신신당부했소? 뭐? 그들자신들이 도망쳐
서 다시 나왔다고? 잘했소. 잘해. 그 돌격대
원청년들이 사흘째나 쪽잠조차 못잔걸 동무
도 알구있잖소?》

나는 그 전화가 야간정양소 소장에게 하는
것이라는것을 대뜸 알아차렸다. 공장에서는
새로운 대형주강로 기초공사를 벌려놓았는데
청년돌격대원들이 수많은 암반들이 나타나
애를 먹고있었던것이다. 그들이 굳은 암반과
싸우느라 며칠밤을 새고있는것을 나도 알고
있는터였다. 그날아침 나는 초급당비서의 승
용차에 돌격대대장과 몇몇 대원들이 앉아 정
양소쪽으로 가는것을 보았었다. 아마 그들이
다시 건설장으로 도망쳐나온 모양이었다.

《동문 그들을 충분히 휴식시킬데 대해서
초급당위원회의 분공을 받지 않았소? 왜 대
답이 없소? 소장동무, 당중앙에서는 로동자
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일군은 그들로부터 사
랑을 받을수 없구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일군
은 자격이 없다구 가르쳤소. 동무자신이 직
접 건설장으로 나가 분공을 집행하시오.》

초급당비서는 송수화기를 탕 놓고 진정하
지 못했다. 나는 그가 이처럼 흥분한것을 처
음 보았다.

한참 마음을 누갓힌 신동현은 나를 바라보
며 부드럽게 물었다.

《무슨일로 왔소?》

《…》

나는 대답을 못하고말았다. 이런 분위기
에서 자신에 대한 반성이 다 무엇인가.

《어려워 말구 이야기하우… 일군들이 게을

러졌단말이야.》

나는 여전히 대꾸를 못했다. 다행히 또다
시 울린 전화종소리가 곤경에 빠진 나를 건
져주었다.

신동현은 송수화기를 들고 나직이 말했다.

《예, 신동현입니다. 아, 후방부지배인동무
요? 허허… 난 동무의 그 우는소리가 딱 질
색입니다. 오늘 아침에두 내 건설장에 잠간
들렸했는데 돌격대원들이 말이 아니더구만.
원 조물썩하긴… 큰 공장이 기계천진데 통이
크게 기계군단을 들이밀어보시우. 나두 곧
나가보겠습니다. 예.》

송수화기를 놓은 그는 나를 건너다보았다.

《영배동무, 이제 계획한 일이 뭐요?》

《저 … 직장참모일군들의 협의회에 나가
시제품생산에서 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일데
대한 문제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음, 그럼 한 30 분 여유가 있겠구만. 나와
함께 기사장동무에게 좀 가지요.》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 기사장에게
내가 가서 할 일 무엇일까? 아마도 우리 직
장의 시제품소재생산문제일것이라고 짐작한
나는 초급당비서의 뒤를 따라 밖으로 나섰다.

우리가 기술과 건물 3 층에 자리잡은 기사
장실로 들어서니 기사장은 한창 자재과에 전
화를 걸고 있었다.

《여보 파장동무, 요만한 볼트말이요. 그제
없어서 땡각압연기 조립공들이 애를 먹구있
소. 아참, 답답하구만, 우리가 늘 쓰는 요만
한 볼트말이요.》

기사장은 안타까운듯 손가락을 벌리고 볼
트길이를 가리키며 그냥 소리를 질렀다.

의자에 가 앉은 초급당비서가 보다못해 귀
뿔해주었다.

《허허… 기사장동무, 거 전화에 텔레비장
칠 해야겠습니다. 볼트길이를 말로 대주어야
지 손가락으로 시늉해서야 상대방이 알겠습
니까?》

그때에야 손을 피곳 내려다본 기사장은 자
기로서도 어이없는지 그만 멧적게 웃었다.
나도 따라 웃지 않을수가 없었다.

《파장동무, 이거 안됐소. 6 미리짜리 말이
요. 오후 세시까지지는 어떻게 하든 조립공들
의 가슴에 안겨줘야겠소. 예, 꼭 그렇게 하시
오.》

기사장이 전화를 마치자 신동현은 그의 책
상에 마주앉았다.

《아마 <80 년대속도>창조로 달리는 올해
처럼 공장이 들끓어 본 때는 별루 없었지

요?》

《예 공장 전반사업이 아주 그럴듯하게 나갑니다.》

《헌데 이걸 어떻게 건다? 제일 바쁜 기사장동무를 찾아와서...》

신동현은 딱한 표정을 지을뿐 용건을 선풍 내비치지 않았다.

《어서 얘기하십시오. 뭐 짬이야 내는대루 생기는 법이니까요.》

신동현은 그제야 작업복웃주머니에서 자그마한 종이 한장을 꺼내 책상우에 퍼놓았다. 순간 나는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다. 그것은 그렇게도 말썽이 많던 주철웅의 형타도면이었던것이다.

《기사장동무, 날 도와주는셈치구 이걸 한번 봐주시우.》

기사장은 학습장을 떼여내어 서투르게 그린 도면을 재빨리 훑어보더니 먼구스러운 낯색을 지었다. 나는 그가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다는것을 알았다. 바로 그 도면은 그에게 처음이 아닌것이였다. 내가 그전에 한번 직장 기술지도원에게 부탁한 일이 있었던것이다. 그때 그는 좋은 착상이긴 하지만 도무지 짬을 낼 사이가 없으니 기술지도원이 도와하라고 한후 한번도 직장에 내려 와본적이 없었던것이다.

《단조직장의 한 당원이 도와달라구 내게 가져왔는데 나야 기술을 알아야지요. 여기 함께 온 저 부문당비서동무두 여간 안타까와하는게 아니구.》

《예 알겠습니다. 전번에두 한번 제기돼왔었는데 내가 그만...》

《기사장동무가 시간이 없다는거야 온 공장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렇지만 그것만 성공하면 기사장 동무두 단단히 덕을 볼겁니다. 허허...》

초급당비서는 아주 만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그 바쁜 짬에도 철웅의 문제를 안고 기어이 끝장을 보기 위해 애쓰는 초급당비서의 노력에 저으기 감동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나의 량심 가책은 더 커갔다.

우리는 기사장실을 나왔다. 헤어지기전에 그는 나에게 간곡히 타이르는것이였다.

《참모일군협의회에 참가하면 철웅동무를 방조할데 대한 문제를 놓치지 말구 꼭 강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주강직장 건설장으로 향한 초급당비서와 갈라져 직장으로 돌아오는 나의 걸음은 가볍

지 못했다.

찌뿌둥하던 하늘에서는 끝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루일을 마치고 (사실 그날은 아무 일도 손에 걸리지 않았다.) 책상에 턱을 고이고 앉아 나는 생각에 잠겼다. 밖에서 대줄기같이 퍼붓는 비소리가 어수선한 내 마음을 더 굻혀주었다.

과연 나는 자신이 책임진 당원들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돌려왔던가? 그들의 기쁨과 불행, 동요와 내부투쟁에 대해서 자신의 일처럼 그렇게 안타까와하고 몸부림쳤던가? 내자신이 그들의 성장과정을 얼마나 직심스레 도와주었는가? 넘어지는 사람은 부축해주고 갈팡질팡하는 사람에게는 갈길을 가르쳐주었는가. 그리고 주저앉은 사람을 일켜 세워주기 위해 내 한몸을 어떻게 바쳤던가?

나의 고민은 끝이 없었다.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에 파묻혀있던 나는 누가 불의에 문을 벌컥 열어 젖히며 들어서는바람에 용수철에 튕기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사람은 뜻밖에도 비에 흠뻑 젖은 초급당비서였다. 그는 어디로부터 달려오는지 숨이 차서 어깨를 한발씩 오르내리고있었다. 얼굴로 흐르는 비물을 한손으로 훔쳐내며 이렇게 다급히 묻는 것이였다.

《여보, 철웅이가 시험하던 형타를 어떻게 했소? 파쇄장에다 내버린게 사실이요?》

그것은 사실이였다. 작업장이 비좁을 정도로 대대적인 형단조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때여서 지난주 설비점검검열의 날에 부직장장이 파쇄장에 실어내갔던것이다.

《작업장에 거치장스럽다구...》

《그럼 파쇄장에서 마시버리지 않았겠소?》

그자리에서 다급히 돌파선 신동현은 비가 짹짹 퍼붓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당황한 나는 바빠 비옷을 벗겨들고 뒤따라 나갔다. 그러나 어느새 그는 직장건물 모퉁이를 돌아가고있었다. 나도 줄지에 옷이 젖어버리고말았다. 결국 손에 쥔 비옷은 아무 쓸모도 없게 되였다.

초급당비서는 파쇄장으로 반달음을 놓으며 소리지르는것이였다.

《중지하십시오! 중지!-》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시뻘뻘 비발속에 파쇄장기중기가 커다란 철구를 들어올리고 팔에 완장을 두른 령감이 호각을 불어대며 팔을 휘젓는것이 보였던것이다.

《피하시오! 피하란말이요!-》

하지만 비서는 무작정 그냥 달려갔다. 나는 한껏 긴장해졌다. 이제 기증기에서 철구를 놓아 버리기만 하면 무서운 힘으로 떨어져 내리면서 파철들을 짓부셔버린다. 그 찰나 술한 파편들이 산지사방으로 가늠할수 없이 날아간다. 물론 안전대책으로 철판벽을 둘러치긴 했으나 작업중에는 그곳에 접근할수 없었다. 그런데도 비서는 여전히 달려들어가며 기증기에 대고 웨쳤다.

《중지하란말이요. 멈춰세우오.》

나 역시 죽기내기로 비서의 뒤를 따라가며 중지하라고 웨쳤다. 했으나 그 웨침은 비서처럼 주철웅의 형타가 마사질것을 넘려하는 위구보다 비서의 안전을 더 생각한 웨침이었던 것이다.

마침내 기증기운전공처녀의 빨간 머리수건이 운전실밖으로 살짝 나왔다.

《아이 비서동지, 안녕하세요? 왜 그러세요?》

《그렇게두 안들리나? 어서 ... 그걸 내리라우. 이걸 마사선 안돼》

완장을 두른 령감도 무슨 영문인지 몰라 호각을 입에 문채 달려왔다. 그는 초급당비서를 알아보자 몹시 놀라와 했다. 주철웅의 시험형타는 도마우에 놓인 고기처럼 모루우에 놓여있었다.

《이걸 도루 가져가야겠소. 한발만 늦었더래두 큰일을 칠뻔했군.》

신동현은 기쁨에 넘쳐 자진 파쇄작업반의 밀차를 밀어 오더니 갈구리로 걸어 무거운 형타를 실었다. 나도 비를 뒤집어쓰는것도 있고 그를 도왔다.

우리 두사람은 힘에 부친 밀차를 밀기 시작했다. 비는 여전히 억수로 퍼붓고 바지가 랭이는 철떡철떡 정경이에 달라붙었다.

신동현은 어깨를 들이밀고 궁궁 힘을 쓰며 밀차를 밀어나갔다. 발은 자꾸만 미끄러졌다.

《난 도대체 일부 일군들의 사고방식을 리해할수 없는 때가 많소. 그들은 사람들을 생각지 않구 사람들에 대해 신중치 못하거던. 실패한 형타라구 해서 이걸 내던지다니?》

《...》

나는 대답을 못했다. 부직장이 형타를 내던진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알게 된 나 자신도 제때에 해당하는 대책을 취하지 않았던것이다. 그러니 부직장장이나 내나 무엇이 다른가.

나는 말할수 없는 자책이 가슴을 파고들었

다. 초급당비서는 한 당원의 결함을 고쳐주기 위해 밤잠을 잊고 현장에 내려와 함께 땀 흘리며 그를 깨우쳐주었고 위험을 무릅쓰고 파쇄장으로 달려 들어가 형체도 알수 없게 마사질번한 형타를 구해냈다. 그런데 철웅이와 늘 현장에서 함께 생활하고있는 나는 뭘했는가? 자책에 잠긴 나의 생각을 눈치챈 비서는 말머리를 돌렸다.

《거 형타가 꽤 무겁다. 자 힘을 쓰지요. 이여차!》

벗어섰던 밀차는 레루이음짬을 넘어서자 다시 순조롭게 굴러갔다.

나는 머리를 수긋하고 밀차만 힘주어밀었다. 이때까지 당원들의 뒤를 밀어주지 못한 그것까지 합쳐서...

우리가 직장모퉁이를 돌아서는 때였다. 밀차를 세우라고 웨치며 비속을 정신없이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다. 금시 숨이 턱에 닿아 얼어질듯이 뛰어온 그는 철웅이었다. 파쇄장에 갔다가 방금전에 있는 사실을 알았던 모양이었다. 그는 다짜고짜로 초급당비서를 밀어젖히고 가운데 들어서서 밀차를 뺏다 밀었다. 무거운 형타가 실려있는 밀차는 놀란듯 후닥닥 뺨질을 하며 밀려나갔다.

신동현은 허리를 펴고 서서 허를 차며 웃는 것이었다.

《원 사람두, 기운이 장사 한가지군.》

그는 흐뭇한 그리고 인정깊은 미소를 짓고 나와 철웅이가 나란히 밀차를 밀고가는것을 비 맞는 줄도 모르고 서서 오래도록 바라보고있었다...

그후에 철웅이가 그 말썽 많던 곡축형타를 어떻게 완성했는가에 대해서는 더 쓰지 않으려다. 물론 기사장을 비롯한 유능한 기술일군들이 우리 직장으로 내려와 그를 적극 도와주었고 철웅이 또한 기술자들을 찾아다니며 방조를 받았고 기술혁신조성원들과도 진지한 토론을 했다.

사흘후 철웅이는 세번만에 드디어 형타시험에 성공하였다. 기쁨이 가슴속에 그들먹이찬 나는 사무실로 달려 들어가 초급당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분후 쓰던 만년필을 전채 초급당비서가 현장으로 달려왔다.

《어디? 어느계요? 성공했단 말이지?》

나는 그를 대형함마앞으로 안내하였다. 기사장이며 직장장, 참모일군들 그리고 단조공들이 모여서 웃고 떠들었다. 그들은 숨이 턱에 닿아 달려온 초급당비서를 보자 자리를

내주었다. 한참 새 형타로 찍어낸 곡축소재를 들여다보던 신동현은 《아주 신통해! 그거 기막히게 훌륭하구만, 엉, 하하!...》하고 작업장이 들썩하게 웃었다. 얼굴이 환해진 그는 철웅이를 눈으로 찾았다. 그런데 그자리에는 철웅이가 보이지 않았다.

《이사람이 어디갔소?》

내가 주위를 살펴보니 그는 가열로결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신동현의 눈길이 그에게 가서 멎었다.

《봐두오.》

초급당비서는 목갈린 소리로 말하고는 만년필을 진채 활기에 넘쳐 돌아갔다.

그날저녁 나는 초급당비서가 불러 당위원회로 올라갔다. 내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서니 신동현은 창가에 뒤집을 지고서있었다. 나는 저도 모르게 그에게 다가갔다. 오늘따라 채광창에서 발산하는 화광은 더 세차게 밤하늘을 태우고있었다. 지심을 쿵쿵 울리는 함마소리도 더 요란한것 같았다. 나는 밤풍경을 장식하고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건물안에서 땀을 흘리며 새것을 창조하고있는 당원들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철웅동무가 굉장히 답새겨대는 모양이군.》

신동현은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창가에서 돌아선 그는 책상으로 다가가 빼람을 열고 종이 한장을 꺼냈다.

《주철웅동무의 추천서요. 다시 씁시다. 래일 상급당에 올려보내야겠소.》

《알았습니다.》

나는 목이 껍 메였다. 비서는 바로 철웅의 추천서를 다시 쓰기 위해 지금까지 이렇게 애쓴것이였다. 정말로 가슴뜨거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추천서란 해당 당조직의 자랑인 동시에 보증서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추천서를 그냥 상급당에 올려보낼수 없지 않소?》

《...》

《어머니들이 티없이 깨끗하구 끝끝한 자식을 키워 나라에 내놓듯이 우리 당 일군들은 그러한 당원들을 키워 보내야 하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준 티없이 깨끗한 추천서 써야 하오. 피타는 노력과 땀이 땀 추천서를 말ियो... 그러자면 오늘처럼 남들이 맞지 않는 비두 맞게 되구, 필요한 경우엔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적생명까지 바쳐야 하지.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서는 우리 당 일군들이 그렇게 살며 일하기를 기대하고계시오.》

나는 그의 말 한마디한마디를 귀담아들으며 자신을 다시 돌이켜보게 되였다. 많은 일군들이 그렇게 생각했듯이 나도 추천서에는 그의 우점과 더불어 약간의 결함도 반드시 첨부되기 마련이라고 생각했던것이다. 구실은 완성된 사람이란 없기때문이란것이였다. 그래서 주철웅의 추천서에도 그의 결함을 쓰고 서슴없이 《... 능히 시정할수 있는 부족점이라고 보면서 우와 같이 추천합니다.》라고 쓴 세포조직의 추천을 무심히 스쳐지나버렸던것이다. 사실상 완성된 인간이란 있을수 없다는 생각은 자신의 게으름과 무책임성을 위장하는것밖에는 달리 될수 없는것이였다. 나는 어제오늘 신동현초급당비서한테서 실로 중요한것을 배웠다.

나는 가슴속에 용솟는 힘을 느끼며 당위원회를 나섰다. 다시 쓰게 된 추천서를 안고 늦은 밤길을 되돌아가는 나의 마음은 한없이 부풀어올랐다.

다시 쓰게 된 한 당원에 대한 추천서, 그것은 곧 나의 한생의 걸음걸음을 빛내여나가는 길이기도 하였다. 나는 이런 밤은 열밤을 샌다고 해도 더욱더 새힘이 솟구칠것만 같았다.

나는 이날밤 티없이 깨끗한 추천서를 다시 쓰면서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신동현 초급당비서와 같은 훌륭한 당일군들이 우리 당원들을 힘차게 이끌고있다는것, 남몰래 바치는 자신의 땀과 노력과 엄청난 대가로 더욱 멀리 앞으로, 주체사상화가 완전히 실현될 공산주의미래에로 이끌어가고 있다는것을 생각하니 말할수 없는 감격과 흥분이 온몸을 휩싸는것이였다.

배꽃

구경서

1

황혼비끼 병실 창문턱 꽃병에는 눈덩이같은 새하얀 배꽃 몇송이가 소담하게 꽃혀있었다. 버들개지처럼 몽실몽실하던 봉긋한 꽃망울들이 하얗고 엷은 꽃잎을 터치며 방긋이 피었다.

의자에 앉아 병실안을 한번 쪽 훑어보던 외과과장 진선교수는 고성기에서 은은한 노래가 흘러나오자 긴 팔을 쳐들어 스위치를 천천히 돌려졌다.

사십여년동안 대학병원의사로, 교수로 있으면서 은연중 음악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그였다.

… 두주일전 그가 야간근무를 서던 날밤 뜻밖에도 웬 젊은이들이 병원에 급하게 들이닥쳤었다. 그중 키가 크고 강마르게 생긴 젊은이의 등에는 스무살쯤 나보이는 아릿다운 처녀가 업혀있었다. 그들은 먼 밤길을 온듯싶었다. 신발과 바지자락에는 흙탕물이 게발리고 얼굴에서는 땀물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알고 보니 처녀가 어린 배나무를 얻으러 산에 올랐다가 그루터기에 발을 상했는데 그것이 그만 도져 전신중독증이 온것이였다. 생명이 위급하여 응급처치로 화농부위를 수술했으나 여태 이렇다 하게 호전되지 않고있었다.

환자의 얼굴은 해쓱하고 창백하였다. 처음보다 좀 차도가 있지만 조갈든 입술은 여전히 까칠하였다.

간호원 순옥이가 갖가지 병들이 놓인 받치개를 들고 병실에 들어왔다.

진선은 범표리처럼 쭈뼛한 장미를 쭈긋하고 찌프렸다.

《순옥동무, 점적대를 가져오우…》

환자결으로 천천히 다가가 그의 윈다리 발희목혈관에 주사바늘을 꿰고나자 긴 허리를 쭈 폈다.

희멀쭉한 넓은 이마에는 땀방울이 아침이슬처럼 송골송골 내뿜었다.

점적병에서는 약물이 고무호스로 흘러내렸다.

침대에 누운 환자는 신음소리를 냈다. 그리고 눈을 가슴츠레 치떴다.

《아 배꽃… 배꽃이에요!!》

처녀의 입가에는 엷은 미소가 어리었다.

《금실이, 배꽃이 곱지?》

《예, 곱와요. 아름답고 순백하고…》

《금실인 또 어떤 꽃을 좋아하지?》

《사과꽃, 오얏꽃, 들국화, 달맞이꽃, 붓꽃…》

《그중 어느 꽃이 제일 좋아?》

《배꽃이 제일 좋아요. … 배꽃은 행복의 상징이에요..》

《행복의 상징?》 진선은 의아해하였다.

어제 환자인 금실이네 마을에서 농장원 여러명이 병문안을 왔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마을 선물이라면서 꽃 망울진 배꽃가지를 한아름 안고 온것이였다. 병실을 떠나면서 꽃병에 배나무가지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꽂아놓았다.

《이제 금실이가 깨면 배꽃부터 찾아볼거우다.》

진선은 그때 리해가 되지 않아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우리 고향은 살기가 좋아요. 지금쯤은 봄꽃이 한창일거야요.》

《고향?》

《네-》

《고향이 어디라더라?》

《영산리예요. … 여기서 기차로…》

《내 한번 동무네 고향도 다녀오겠소.》

금실은 온몸이 저려나는듯 이마살을 찌프렸다.

《우리 고향 뒤산에는 작은 폭포물이 있어요… 덕수골이라구 … 우리 마을에 왔다가는 손님들은 다 거기서 덕수를 하고 간다고 해서 그 골을 덕수골이라고 부른대요.》

《허허》

아픔을 참고 견디느라고 엷은 아래입술을 지그시 깨무는 모습이며 코등에 맺힌 좁쌀알 같은 땀방울… 도리어 의사를 위안하려는듯 활기찬 음성으로 속삭이는 다정한 목소리… 진선은 어쩐지 눈뿌리가 짜릿해 오는것을 느꼈다. 금실에 대한 애뜻한 정이 사정없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

《선생님, 술딱새를 아시나요?》

《술딱새?》

《등은 재빛에 연두색이 돌고 배는 하얀데 가운데 검은줄이 쭈 간거예요. 이런 새는 어디가도 못봐요. 한번은 어느 동물학자가 와서 그 새를 잡아서 박제 표본을 해갔대요, 뭐라더라? 린네라더라? 뭐 그러루한 명명 집엔 없는 새로운 새종류래요.》

《그런데 그 새가 어째서…》

《그걸 세계동물학회에 제기한다나봐요. … 그러면 우리 고향의 인덕고개 이름을 따서 인덕술딱새로 불리우게 된대요.》

진선은 그윽한 눈빛으로 금실을 쳐다보았다. 인생을 꽃의 분향처럼만 생각하는 처녀의 소박하고 순결한 마음이 어쩐지 측은하게 여겨졌던것이다.

《됐소. 이제 가만 누워있소. 환자는 흥분하면 안되요.》

그날저녁 진선은 순옥이와 회진을 돌고있었다. 금실네 병실의 환자들에게 체온계를 하나씩 끼워주었다.

창문턱 배꽃은 한결 더 싱싱해진것 같다.

《배꽃이 곱지요.?》 금실이의 속삭임이었다.

《꽃이 곱소. 동무의 병도 인차 나을게요.》 진선은 너그러운 미소를 지었다.

순옥간호원에게서 체온기를 받아친 그는 다시금 확인해보았다.

《삼십팔도 룽부요. 어제보다 일도 사부가 떨어졌소. 이젠 병세가 좋아지는가보오.》

《그래요?》 순옥간호원은 기쁨에 부르짖었다.

《간호원동무, 래일 나는 대학생들을 데리고 실습을 떠나가야 할가보오. 그동안 제시간에 투약도 하고 환자들의 상태도 잘 관찰해야겠소. 그리고 꽃병의 물도 갈아주고… 꽃이 시들지 않게 제때에 새 꽃들을 갖다꽃소…》

《선생님, 그런데 꽃이 문제이구만요.》

《꽃이라니? 이 봄철에 허구 많은 꽃을 걱정한단 말이요. 병실앞 꽃밭에만 해도 고운 꽃들이 얼마나 많소.》

순옥은 진선의 귀가에 대고 소곤거렸다.

《선생님, 그런 꽃이 아니예요.》

진선은 놀라운 눈길로 순옥을 찬찬히 훑어 보았다.

《아니라니… 고운 꽃이면 되지.》

《아니예요. 금실환자는 배꽃을 제일 좋아해요. 그 꽃을 보면 답답하던 가슴이 다 깨끗이 정화되는 것 같대요.》

《배꽃이라? 거 모를 소리군. 어쨌든 배꽃이며 배꽃…》

그는 반입속말로 웅얼거리며 천천히 병실을 나왔다.

2

열흘후 진선은 실습지에서 오다가 차시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 금실이네 고향에 들리기로 하였다. 어제 바로 순옥이한테서 편지를 받았는데 갑자기 금실이의 병이 위급해져서 온 병원이 떨쳐나 비상치료대책을 세웠다는것이였다.

그래서 그는 겸사 겸실이의 부모들도 만나보고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볼가 하여 이렇게 허둥지둥 오는 길이었다.

마을앞으로는 맑은 시내물이 흐르고있었다. 빠른 물살이었다. 강바닥에는 해변에 마른 하얀 바위돌들과 조약돌들이 널려져있었다. 군데군데 강바닥흙채기에서는 새파란 물이 정갈하게 고여있었다. 마을 멀리 에돌아 간 길로는 트랙토르, 화물차들이 분주히 오갔다. 그것들이 일으킨 먼지는 가로수있사귀들을 뽕얇게 분칠해놓았다. 나무줄기들도 역시

먼지투성이였다.

진선은 세멘트다리를 건너 낮은 산등성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오불고불한 오솔길 양옆에는 아가위덤불과 갖가지 들꽃이 무성하여 기막히게 향기로왔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며 벗어진 이마의 땀을 꼭꼭 눌러댔다.

갑자기 짙광이 덤불속에서 예닐곱살쯤 나보이는 꼬마애들 한패가 우르르 쏘어나왔다. 물장난을 했는지 바지며 치마자락이 화락 젖어있었다.

《애들아, 금실언니네 집이 어디냐?》

《금실언니요? 저기예요.》

아이들의 뒤를 따라 산등성이를 오르던 진선은 무뚝 걸음을 멈추었다. 맞은편 고개마루에는 마치 흘러가던 구름이 멈춘듯, 젖빛안개가 휘감긴듯 하얀 배꽃들이 무너져내릴듯 만발해있었다. 정말 금실의 고향은 아름다운 고장이였다.

마을 건너편으로 검푸른 산밭들이 줄레줄레 뻗었다. 거기서는 때에도 어울리지 않게 청송맞은 뼈꾸기가 《뼈꾸-뼈꾸-》하고 울어댔다.

진선은 정겨운 눈으로 이고장 산천을 둘러봤다.

아이들이 와-하고 환성을 지르며 저마끔 앞설락 뒤설락 밀치닥거리면서 배꽃이 하얗게 핀 고개마루로 달음쳐갔다.

풀판에는 밀짚모자를 쓴 로인이 염소고삐를 한손에 든채 고불통을 뿔뿔 빨며 서있었다.

《늬집 어른이신지요?》

로인은 허연 볼수염을 쓰다듬으며 위풍있게 물었다.

《예, 저는 금실동무를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선생 얼굴을 보아하니 그 애 병이 시원치 않은거웨다.》

로인은 시허연 수염발속에서 모록모록 연기를 토틈 어울렸다.

《예, 금실이의 병이 좀 위독해와서…》

《허허… 내가 그 애 외할아버지웨다. 선생 마음을 굳게 먹으시우. 금실인 병에 지지 않는다우. 내 좀더 젊었으면 이 배나무모를 그애 병실앞에 가져다 심는건데 배나무처럼 순결하고 결국하게 살아가라우…》

로인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 금실이 아버지 리명석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린것은 인민군대 재건격때였다. 적후정찰로 마을에 내려왔던 명석이네 정찰조는 뜻밖에도 적진을 돌과하다가 미국놈들과 조우하게 되였다.

산기슭으로 기여오르던 그는 세찬 타격을 받고 땅우에 쓰러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누구인가의 잔등에 업히워가고있었다. 하얀 저고리가 보

였다. 부상당한 옆구리는 무슨 천에 감겨져 있었다.

가냘픈 어깨와 치렁치렁한 량태머리. 부드러운 목언저리...

그들은 숲속을 가고있었다. 숨막힐듯한 밤공기를 헤가르며 눈부신 조명탄들이 날아오고 땅이 꺼져나가는듯 요란한 대포소리가 머리위로 비껴갔다. 얼마나 곁었는지... 명석이는 자꾸 시꺼먼 땅굴속으로 끌려들어가는 듯싶었다. 그때마다 온몸이 전기에 감전되는 듯 정신이 들곤하였지만 그것도 한참나에 불과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숨막힐듯 답답하던 대기속에서 비발이 엇비스듬히 쏟아지기 시작했다.

《못내려놓겠소?!》

《여기는 적강점지예요. 조용하세요.》

《그러니 너 한방 나 한방 결판을 내고말겠다 말이요. 이러다 간 돌이 다 잡혀죽소.》

하지만 처녀는 묵묵히 걸음만 다그쳤다. 그의 손에는 배나무모가 든 망태기가 들려있었다.

《동무, 그 배나무는 웬거요?》

《마을에 심자구요. ... 미국놈들이 과일나무를 몽땅 찍어 불태워버렸어요. 이전엔 돌배밖에 없던 우리고장에도 황금배가 주렁지게 할려구요.》

름름한 사내대장부를 엮고 가기가 조련치 않았던지 자주 망태기를 바꿔들곤하였다.

《처녀동무, 날 내려봐주오!》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명석은 혼몽한 의식속에서도 처녀의 흐느낌소리를 가려들었다.

《처녀동무, 울지 마오. 난 일없소.》 그는 애써 웃어보이려고 했지만 이마살이 찌프러졌다.

《전 울지 않아요... 그저 동무의 고통을 내가 대신할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으... 흐... 흑... 그럼 전 ...전... 마음이라도 편할게 아니나요.》

이름도 낮도 모를 처녀는 이렇게 말하며 여전히 걷고있었다. 그래도 부상자에게 차마 눈물만은 보이고싶지 않았던지 나무가지를 헤집는척하며 두볼을 타고 내리는 짹짹한것을 이따금 웃소매로 닦곤하였다.

그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어느 산막에 와있음을 깨달았다. 옆에서는 곤히 잠든 처녀의 고르로운 숨결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명석은 자기의 마음이 런던의 정으로 따듯이 젖어들을 절감했다. 어쩌면 처녀는 그가 애

써 키우고 피우려는 배꽃처럼 아름답고 순백한지...

전쟁이 끝나고 군대에서 제대되자 명석은 그 처녀를 찾아 영산리로 돌아왔다. 그는 협동조합을 무을 때 첫 관리위원장이 되었다. 마을을 위하여 무슨 일인들 안했으랴. 개별을 개간하여 논을 풀고 언덕마다 파수원을 조성하였다.

하지만 어느해부터인지 명석은 전쟁때 상처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였다. 번번이 농장일에 나가지 못하기가 일쑤였다.

한번은 군에 있는 어린 나무모 양식장에 갔다올 일이 있다면서 배낭 하나를 메고 집을 나섰다.

그후 이틀이 지나 비를 흠뻑 맞으며 돌아왔는데 배낭에는 배나무모가 한가득 들어있었다. 명석은 그 나무모들을 바로 인덕고개에 심었고 아침저녁 물을 주었다. 배나무에 개똥이 좋다는 말을 듣고는 새벽마다 삼태기와 삼지창을 들고 마을길을 돌아다녔다.

한번은 중학교를 다니던 금실이가 지팽이를 짚은 아버지와 함께 나무에 물을 주고있었다.

《아버진 왜 배나무를 그렇게 정성껏 가꾸시나요.》

《허허허...》명석은 상냥하게 웃었다.

《애 금실아, 이 아버지가 바로 이 고개에서 부상을 당하고 쓰러졌을 때 네 어머니가 그 연약한 몸으로 나를 엮고 밤길 이십리를 걸었느니라. 마을사람들은 오늘도 그걸 두고두고 옛말처럼 외우지 않니. 남을 위해 사는 것도 행복이란다. 그런 삶은 언제나 빛나는 법이거든. 이제 배나무가 크면 너희들은 여기서 배를 실컷 따먹게 될게다. 그때는 이 아버지도 생각해야 한다. 아!... 그날이 꼭 눈앞에 보이는것 같구나.》

지팽이를 짚고 서있는 명석은 어린 배나무를 대견스레 쳐다보았다. 그 무슨 옛말속의 거인처럼...

금실은 애뜻한 정을 안고 아버지를 우려했다.

그후 병이 심하여 아주 병석에 누워 버렸는데 어느날 안해에게 자기를 인덕고개까지만 부축해달라고 하였다. 마을을 한눈에 보고싶다고. 금실이도 어머니뉘를 따라 고개마루에 올라갔다.

정말 고향은 아름다웠다. 산등성이 아래로는 규격포전들이 펼쳐지고 푸른 남새밭에서는 분수식관수기가 물보라를 뿜어 올려 하늘

중천에 오색빛 무지개를 그리고있었다.

잠시 마을을 굽어보던 명석은 금실에게 돌아섰다.

《금실아, 배꽃은 행복의 상징이니라. 우리 마을이 하얀 배꽃속에 묻히면 나는 죽어서도 마음이 가벼울게다. 너희들을 위해 더 좋은 일을 하지 못하고 가는게 한스럽구나. 배나무들을 잘 가꾸어야 한다. 마을에 행복이 무르익도록말이다. 울지 말아, 울긴 …》 명석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었다.

로인은 가슴이 답답해 오는지 고불통만 땅에 대고 툭툭 털어냈다.

《그래서 우리 금실인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를 가라는것도 마다했다우. 아버지의 뜻을 꽃피우기전에는 고향을 뜨지 않으리라구. 금실인 절대로 병에 지지 않을거우다. 내가 편지에도 썼수다. 꽃 병을 이기구 고향에 돌아와야 한다구…》

로인은 서글픈 눈빛으로 한동안 먼 하늘가를 쳐다봤다.

《할아버님, 금실이 건강은 우리가 꼭 책임지겠습니다.》

《선생, 고마우이. 꼭 부탁하웨다. 그 애가 청년분조장이 되면서 마을이 몰라보게 달라진다우. 양어장이 생겼지, 묵은 땅을 일켰지. …》

진선은 언덕을 내려섰다. 여울물소리 세찬 시내가 앞에 보였다. 그우에는 나무다리가 놓여있었다. 갓 놓은듯 송진내가 아직도 싱그러웠다.

다리복판에는 흰 양떼들이 구름처럼 흘러가고 그가운데 나비수건을 쓴 처녀가 희초리를 가볍게 둘러메며 양떼를 재촉하고있었다. 그 뒤에는 콩지를 말아올린 목장개 한마리가 목걸이 종을 달랑거리며 분주히 뛰어나갔다.

진선은 아이들을 따라 나무다리로 다가갔다.

《언니, 의사선생이 와요.》

《금실언니를 치료해준대요.》

아이들은 저마다 종알거렸다.

처녀는 머리수건을 기발처럼 날리면서 다리우에 서있었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금실언니가 어떠나요?》

《금실이말이요?》

《예, 인차 돌아오게 되나요?》

《으응… 이제… 돌아오지.》

《아이참, 금실언니가 빨리 나아야 하겠는데… 저 덕산과 수원을 보면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를거야요. 금실인 참 좋은 언니야요. 사람들이 금실언니가 시집을 가도 여기를 뜨지 않을거래요. 관리위원장이랑은 돌박산이라고 도리머리질하며 안된다는걸 금실언니는 저녁마다 우리 청년분조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밭을 일쿠고 석축을 쌓았어요. 그래서야 관리위원장은 우리들의 마음에 크게 감동하여 과일나무모 한차분을 실어다주었어요. 헌데 나무모가 모자라지 않겠어요. 밭 한뼉기를 채 못채웠어요. 그래서 금실언니는 밤길로 여기서 삼십리밖에 가서 나무모 몇그루를 얻어가지고 오다가 나무그루터기에 밭이 상했어요. … 저걸 보세요. 얼마나 멋진 과수원이 일떠섰다.》

처녀는 환한 얼굴로 연무낀 앞산을 가리켜 보였다.

과연 덕산마루에는 계단식과수원이 층층이 일어섰다.

갓 심은 어린 나무모들은 마치 산병선을 선병사들처럼 봄바람에 야들야들한 잎사귀들을 총창처럼 해빛에 반짝거리고있었다.

진선은 저도 몰래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바로 그래서 금실이가 《배꽃!》 《배꽃!》 하고 헛소리를 쳤됐구나. 고향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지극한 정성!! 아 그렇지, 인간은 어데서 무슨 일을 하나 저런 뜨거운 마음을 안고 살아야지!)

마침 어데선가 가까이에서 풀피리소리가 들려왔다. 뿔리리-뿔리리-그 소리에 화답하듯 처녀는 노래를 불렀다.

고개 넘어 또 고개
구름 넘어 또 구름
아득한 천리길
내 고향벌에
양떼가 흐르네
수령님 은덕에 -

맑은 물에는 해그림자가 비껴 금빛쪽무이들이 춤을 추었다. 물속에서는 하얀 모래알이며 자갈들이 가만히 돌돌 흘러갔다. 거기서는 팔뚝시같은 고기들이 자유로이 꼬리쳐 놀고있었다.

노래를 부르는 처녀는 하얀 이를 드러내고 방긋이 웃고있었다. 어찌보면 들판에 편한떨기 들꽃같았다. 그가 어찌나 진정담아 노래불렀던지 마냥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의 불타는 호소 같았다.

처녀의 아련한 얼굴은 어느덧 침대에 누운

금실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더운 피가 툭툭 튀는 동맥으로 꼬아 만든
심장의 현줄이 튕겨나며 울려나오는것 같은
절절한 그 목소리...

노래는 산과 하늘이 맞붙은곳으로 울려갔
다.

물과 바위, 나무들도 따뜻한 봄날처럼 밝
아졌다.

진선은 불덩어리같은것이 목구멍으로 콧
치밀어 오르는것을 느꼈다.

(미래를 위해 자기의 고귀한 피와 땀을 바
쳐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곳에 올 때만 해도 그저 수수하게만 보
이던 집이며 과수원 논밭들... 그 모든것이
이제는 류달리 정답고 살뜰하였다.

진선은 꿈결처럼 사라져간 자신의 어린시
절이 떠올랐다. 지주집 소물이군으로 저물
도록 들관을 헤매던 일이며 씹바귀를 캐고
좋아하던 손아래 너동생... 배고프고 서글프
기만 하던 소학교시절의 저녁노을, 반도인
이라고 수모받던 대학시절, 병원개업... 그
런데 여기서는 지금 모든것이 신비로운 빛
을 내뿜고 모든것이 노래로 가득차있지 않
는가!

그는 승엄한 생각에 잠겨 들길을 걸어갔
다.

3

배나무모가 든 보자기를 손에 들고 진선
이 걸어오고있었다. 대학병원구내에 황황히
들어서자 사람들은 정중히 인사하였다. 반
색하는 그들의 얼굴은 그동안 무척 보고싶
었습니다. 하고 말하고있는듯하였다. 하지
만 그는 종종 경황없이 발걸음만 다우쳤다.
계단을 성급히 뛰어오르는것을 보면서는 사
람들이 의아해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였
다.

진선은 실습지에서 담당의사에게 여러차
레 편지를 썼다. 속썩은 풀뿌리(황금) 황경
피나무껍질, 황련, 인동덩굴꽃같은 약재들
도 보내주고 치료대책도 구체적으로 세워주
었다.

그는 지금 애오라지 생각속에 잠겨있었다.
(금실의 병세가 좀 어떤지.)

자기가 순옥간호원에게 특별히 따로 보낸
편지의 구절들도 상기했다.

...순옥동무, 창문턱의 배꽃을 잘 관리하
오. 절대로 이울어지지 않게 해야겠소. 꽃이
시들면 어떤일이 있더라도 새꽃으로 바뀌야
겠소. 이것은 동무의 혁명임무이자 곧 간호

원의 직분을 다하는거요.

그리고 편지끝에 참고부호를 달고 《배꽃
은 금실의 좌우명》이라고 조아박았다...

진선은 병실이 가까와질수록 가슴이 울렁
거리며 관자노리의 피가 툭툭 튀어오르는것
을 느꼈다. 숨쉬기가 가빠지고 온몸이 우들
우들 떨리었다.

그는 발걸음을 죽이고 조용히 병실앞에
다가갔다. 울렁거리는 마음을 녹잡히며
《후-》 하고 가쁜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나서 문을 살며시 열었다. 순간 방안에서는
도란거리는 말소리가 흘러나왔다. 분명 금
실의 목소리였다.

《아마 내가 여덟살적이었던가봐요. 한창
무더운 여름 삼복철이었지요. 그때는 우리
마을 인덕고개에 감자를 많이 심었더랬어요.
하루저녁은 감자꽃을 구경하려고 올라갔됐
어요. 어머니가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지요.
... 감자꽃이 얼마나 고운지 알아요?! 새파
란 자주빛꽃이 무연하게 깔린게 꼭 푸른 기
록 같았어요. 그런데 고개마루에 올라서니
글쎄 노을이 어찌나 곱겠어요. 무연한 사방
을 둘러봐야 온통 하늘빛 빨갳겠지요... 막
황황 불타오르는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세
히 지평선을 보니 글쎄 무슨 물결 같은것이
땅우에 얼른얼른하겠지요. 저게 뭘가? 하고
나는 종주먹을 부르짖고 달려갔어요... 뛰
여가면 뛰어간만큼 또 멀리서 어서 오라고
아물거리겠지요. ... 그래서 숨이 차서 멈칫
서버렸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봤더니 우리
마을이 온통 시뻘건것이 막 불타오르는것
같겠지요. 어린 마음에도 어쩐지 기쁘면서
도 무섭증이 나더군요. 혹시 마을이 불타는
게 아닌지. ... 그런데 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애야, 저건 노을이라는데다. 그
리고 저기 아물거리는데는 아지랑이라는게
고.>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니 우리 마을이며 저녁노을이며 먼 지평
선의 아지랑이가 왜 그렇게 곱겠어요. 중학
교를 다닐 때도 이따금 고개마루에 올라서
서 마을을 바라보며 노을이 왜 저렇게 고울
가고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딱
히 모르겠더군요. 어째서 고운지... 허지만
이젠 알겠어요. 나두 지금은 고향을 위해
땀인가 하고있단말이에요요. 아버지가 부상당
하신 그 자리에 지금은 배나무가 꼭 들어чат
어요. 이제 우리 마을은 더 아름다와질거예
요. 철따라 봄이 오면 배꽃이 피고 가을이
면 황금같은 배알들이 주렁질거예요.》

진선은 가슴이 뻐개져나가는듯한 기쁨을 체험하였다.

금실이의 반쯤 내리간 눈길에는 생기가 돌았고 얼굴의 검버섯은 가뭇없이 사라졌다. 아직은 창백했지만 혈빛은 땅우에 새풀이 돋아나듯 량불에는 발가우리한것이 알릴듯 말듯 엷게 비껴있었다.

(끝내 병을 이겨냈구나. 이겨냈어!!)

그는 성큼 방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나무모를 싼 보자기를 상두대우에 올려놓았다.

《금실이, 이건 고향사람들이 너한테 보내는거다. 모두 금실을 꼼찍이도 아끼더구나.》

《호호호 ...》

《금실이, 우리 이 나무를 병실밖에 심는게 어떨가?》

《예, 좋아요, 모두 금실을 꼼찍이도 아끼더구나.》 병원앞 정원에 심자요. 먼 후날이 나무가 커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환자들이 좋아할거예요.》

금실의 눈은 새별처럼 반짝거렸다.

(웁다! 저걸 정원에 심자. 저 나무엔 우리 인민의 깨끗한 량심이 비껴여있다. 환자들이 병원을 나설 때는 그 마음의 향기를 안고 가게 해야 한다. 그런 마음들이 모이고 합쳐 보석처럼 빛나고 꽃향기로 풍길 때 우리 조국은 얼마나 살기가 좋을가?!)

그는 사려 깊은 눈빛으로 환자를 쳐다보았다.

《금실이는 정말 행복하오. 인생의 첫걸음마를 떼는 그 나이에 벌써 삶의 진가를 똑바로 알고있으니말이요. 하지만 나는 남을 위해서 사는것도 행복이라는 그 단순한 진리를 체득하는데 거의 일생을 바치다싶이

했소. 혹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한생을 살고나면 고독밖에 남는것이 없을것이요.》

진선은 가볍게 침대끝에 걸터앉았다. 십년이나 되 젊어진것 같아보였다.

금실이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이었다.

병원앞의 키높은 뽕뿌라나무에서는 까치 한마리가 금실을 축하하듯 긴 꼬리를 즉삭거리며 《각-》 《각-》하고 울어댔다.

진선을 비롯한 의사, 간호원들이 금실을 바래우고있었다.

나란히 걸고있던 순옥은 금실의 손목을 살며시 그러쥐었다.

《퇴원하면 꼭 편지를 써야 해... 그리고 고향의 배나무를 가꾸던 이야기도 좀 들려주구...》

그결에서 그들이 소곤거리는 말소리를 재미있게 듣고있던 진선이 이중에 끼여들었다.

《금실이, 고향의 배나무가 이 병원에서도 자라고있다는걸 잊지 말아야 해.》

《선생님, 알았어요. 그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 조국땅 어딜 가도 신선한 꽃이 꼭 들어차게 해야 한다는걸.》 금실은 흥분에 겨워 더 말을 잊지 못하였다.

(어제는 금실이 아버지가 금실이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오늘은 금실이가 미래를 위해 배나무를 가꾸고있다. 인생의 마무리를 잘해야 할 나이에 나는 이제 무엇을 할가?!)

진선은 멀어져가는 금실에게 손을 높이높이 흔들어주었다.

(아, 배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처녀가 받은 편지

허인수

나는 작가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머리가 반백이 되도록 아직 한번도 소설이라는 것을 써본 일이 없으며 앞으로도 아마 작품을 써볼 기회는 또 있을것 같이 않다.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젊은 시절부터 의학을 전공 해왔고 지금은 준박사로서 일정한 권위와 공지를 가지고 의학부문에서 사업하고있는 내가 갑자기 문수에 없는 소설을 써서 독자들앞에 내놓게 되었는가?...

이 이야기는 지난주 일요일 저녁, 가족들이 모두 극장구경을 가고 나혼자 서재에서 글을 쓰고있는데 누군가 우리 집을 찾아와서 출입문을 조심히 두드린 그 시작부터 시작된다.

1

《예, 들어오시오.-》

들어온 사람은 몸매가 날씬하고 호리호리한 처녀였다. 가름한 얼굴, 흰눈같이 깨끗하고 부드러운 살결, 방금 씻어놓은 팔알인양 윤기도는 두눈, ... 첫눈에 꼭 안겨들어 찍어여뻤다.

《안녕 하십니까?...》

처녀는 다소곳이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나서 속삭이는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전 립업과학연구소에서 왔어요. 연구사 천수림입니다.》

《아 그렇소?... 어서 오시오.》

나는 그제야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섰다.

뜻밖이었다. 그를 본 첫순간에 나는 그가 어느 극장의 가수가 아니면 무용배우일것이라고 단정했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립업과학연구소의 연구사라고 소개하는것이였다.

《여기 좀 앉으시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오셨소?》

《...》

처녀는 말없이 코트를 벗어 옷걸개에 걸어 놓더니 사양하지 않고 내가 편하는 자리에 단정히 앉았다. 그리고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방안을 여기저기 살펴보는것이였다. 하는 거동이 잠깐 앉았다 돌아가려는 자세가 아니였다. 보매 그는 오랜 시간에 걸쳐 상론해야 할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가 자기의 방문목적을 이야기할 때

까지 기다려주기로 작정하고 담배를 한대 붙여물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내가 담배불을 붙이고나서 성냥개비를 재털이에 집어넣으려는데 별안간 처녀가 그 재털이를 자기앞으로 슬그머니 끌어당겼기때문이었다.

《으응?!...》

나는 놀랐다. 처녀의 행동이 너무도 당돌하고 엉뚱했던것이였다.

《허어- 이거 왜 이러시오?!...》

하고 내가 의아하여 쳐다보자 처녀의 얼굴은 삽시에 고추빛으로 물들어 버렸다. 그는 당황하여 한동안 어쩔바를 몰라 하더니 이윽고 나직이 한숨을 지으며 재털이를 다시 내앞으로 조심히 밀어놓았다. 그리고는 례의 그 속삭이는듯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하는것이였다.

《용서하세요. 실례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아직... 담배를 피우시는군요.》

나는 더욱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마치 그는 오래전부터 나를 잘 알고있는것처럼 말하고있지 않는가!...

나는 의아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도대체 내가 이 처녀를 어디서 보았던가 하고 처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처녀도 나를 마주보았다. 그런데 살며시 치며보는 처녀의 호수같은 두눈에 웬일인지 락심해 하는 빛이 진하게 서려있는것이였다.

나는 까닭없이 마음이 불안해지는것을 느끼며 처녀의 꼭 다문 도톰한 입술이 열려지기를 안타까이 기다렸다.

얼마후 처녀는 양복안주머니에서 뭔가 끄집어내어 내앞에 조심히 내밀었다. 나는 열결에 그것을 받아들였다. 모서리가 닳아떨어진 낡은 편지봉투였다.

《이건 무슨 편지요.?...》

나는 이 수수께끼 같은 일을 도대체 어떻게 리해해야 할지 알수 없어 연방 두눈을 습벅거렸다.

《그건 달포전에 제가 받은 편지랍니다.》

《그런데 날더러 이걸 어찌라는거요?》

《선생님도 한번 읽어 보셨으면 해서...》

《내가?... 아니 동무가 받은 편지를 내가

보다니?...》

《괜찮아요. 둘수만 있다면 전 이 편지를 신문에라도 공개하고 싶습니다.》

《허- 그렇다?... 그거 참 흥미있는 일이에요.》

아닌게 아니라 나는 호기심이 부쩍 동하여 견딜수 없었다. 그래서 서둘러 봉투를 벌리고 편지를 끄집어냈다.

누가 일부러 줄안에 와락와락 꾸겨쥐었던 것처럼 온통 조골조골 주름투성이가 되어버린 편지였다.

나는 돋보기를 끼고 편지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 천수립동무, 도대체 동무는 어떤 사람입니까?...》

잡지에 발표한 학술논문에서는 룡갈이도입안이 얼마든지 가능하기때문에 모든 류벌작업소들에서 그것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어째서 우리가 그 말대로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선뜻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려 하지 않는지요?...》

언젠가 나는 한 친구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은 그 친구가 의학자인 자기 외삼촌의 집을 몇해만에 찾아가더니 삼촌이 서재에서 뭔가 쓰는데 열중하여 별로 반가와하지도 않더랍니다. 그래 대관절 무얼 쓰느라고 그렇게 여념이 없는가 하고 어깨너머로 기웃이 들여다보니 <담배의 해독성>이라고 제목을 단 위생선전자료더라나요.

그런데 글썽 그것을 쓰는 삼촌의 입에는 고급상아물부리가 삐딱하니 물려져있고 재떨이에는 담배꽂초가 수북하더라는겁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에 나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어 웃음을 거두었습니다. 그저 웃어넘기기에는 너무도 크고 심각한 문제가 깔려있다고 생각했기때문이었습니다.

천수립동무, 우리 혁명대오안에 아직도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게 살아가는 진실치 못한 사람들이 남아있다는것은 얼마나 섭섭하고 가슴아픈 일입니까!...

아직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에 편지가 좀 지나친듯한 감이 없지 않으나 그대로 부칩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우리 로동계급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것은 바로 동무처럼, 그리고 담배대를 꼬나물고 담배의 해독성에 대한 논문을 썼다는 바로 그 의학자처럼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라는것을 명

심해주기바랍니다.

1982년 2월 X일 백룡강 청년류벌작업소 오영린 보냄》

편지를 다 읽고난 나는 줄지에 눈앞이 아득해 지는것을 느끼며 절반도 타지 않은 담배를 황급히 비벼끄고 자리에서 뛰쳐일어섰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정말이지 나는 일생에 그 순간처럼 모면하기 바쁜 대목을 일찌기 당 해본일이 없었다.

왜냐 하면 내가 바로 그 편지에 썩여져있는 옷지 못할 일화의 주인공이었기때문이였다.

벌써 3년전의 일이다. 그때 나는 어느 한 출판사의 청탁을 받고 담배가 사람의 몸에 어떻게 해로운가를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질지 않은 위생선전자료를 쓴 일이 있는데 그것을 쓰면서 내자신은 담배를 두갑이나 태운것도 사실이고 또 그때 내 조카벌되는 녀석이 우리 집을 찾아왔던것도 사실이다.

원래 우리 집에서는 필요없이 나의 서재에 드나드는것이 절대 금지되어있기때문에 안해는 물론 아이들까지도 어쩌다 한번씩 들어오게 되면 몹시 엄엄하여 몸가짐을 조심하는데 그녀석은 그때 서슴없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고 내가 써놓은 원고지들을 뒤적거려 보며 소리 내어 웃기까지 했다.

《참 한심하군요.》

하고 그때 조카녀석은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다른 사람들에게겐 담배를 끊으라고 잡지에 글까지 써내시면서 삼촌은 왜 담배를 계속 피워요?》

《이녀석아, 밖에 나가선 제발 그런 소릴 하지 말아라. 황아장사 망신 고불통이 시킨다고 그러단 네가 이 삼촌 얼굴 못쳐들고 다니게 할라.》

하고 혹시 이런 일이 생기게 될가봐 단단히 오금을 박았했는데 결국은 우려했던 대로 되고만것이다.

나는 처녀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변명해야 할지 알수가 없어 희끗희끗한 머리를 긁적거리며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가 그렇게 일어섰다 앉았다하며 안절부절을 못하자 처녀는 보기 민망한듯 살며시 머리를 숙이더니 역시 그 속삭이는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선생님도 편지를 읽고 모욕을 느끼시는군요.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 그 편지를 받아보

있을 땐 정말 분해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편지가 왜 그렇게 꾸겨졌는지 아시겠어요?... 찢어버리지 않은게 정말... 다행이었지요.》

처녀는 만일 그때 자기가 그 편지를 찢어버렸다면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오지 못했을 것이라는것을 암시하듯 얼핏 눈을 들어 나를 일별하고나서 역시 소곤소곤 속삭이는 소리로 말을 이어나갔다.

2

...천수림은 한동안 자신을 잊고 멍청히 앉아있었다. 억이 막혔다. 이게 대관절 어떤 사람인데 감히 내앞으로 이따위 편지를 써보냈는가?...

스물여섯해를 살아오면서 아직 그 누구에게서도 싫은 소리 한번 들어본 일이 없는 천수림은 도대체 자기가 이런 편지를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편지를 어쩌다 우연히 자기가 뜯어본듯싶어 그는 얼른 편지봉투의 주소이름란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허나 거기에는 분명 《림업과학연구소 천수림동무 앞》이라고 써여있었다. 연구소적으로 천가성을 쓰는 사람은 수림이 혼자였다.

온 도시를 다 뒤져도 자기 아닌 천수림이라는 이름을 또 찾아내기는 아마 수월치 않을것이였다.

편지는 분명 자기앞으로 온것이였다. 하다면 과연 내가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이란말인가?...

그는 청백한 사람이 그 어떤 당치않은 루명을 쓰게 되었을때 항용 그러하듯 전신의 피가 꺼꾸로 흐르는듯한 감을 느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자기는 결코 그런 비난의 대상이 아니였고 설사 비난을 받는다 해도 아무든지 막 비난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였다. 그런데 그가 감히 나를 이렇듯 신랄하게 야유하고 조소하고 비난할수 있단말인가?...

천수림은 오영린의 편지를 한줄에 꾸겨쥐고 피가 나도록 입술을 꼭 깨물었다.

.....

한달전, 천수림은 《림업》잡지에 《첫 때물이를 앞당기기 위한 몇가지 방도》라는 학술론문을 발표했었다. 그것은 과학연구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는 묘령의 처녀연구사가 썼다는것으로 하여, 그리고 논문이 제기하고있는 문제들이 모두 기발하고 대담한것으로 하여 해당부문의 독자들속에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사방에서 알 사

람, 모를 사람들이 그의 연구성과를 축하하는 편지들을 매일과 같이 보내주었다. 그런데 그중에는 류다른 사연이 담겨진 편지가 한통 들어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오영린이라는 청년에게서 처음으로 받은 편지였다.

《...선생님도 아시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백룡강청년류벌작업소는 지난해에 갓 조직된, 아직 한번도 때를 내리워 보지 못한 한살짜리 작업소입니다. 지난 봄에 우리는 여기 백룡강에서 첫 때물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 놓고 얼음이 풀릴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사나운 룡갈이가 백룡강을 휩쓸었습니다. 아닌 밤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어마어마한 얼음사태는 실로 눈 깜박할 사이에 70리 물길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룡갈이란 정말 무서운 자연현상이더군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등골에 소름이 내돋습니다. 그런데 <림업>잡지에 실린 선생님의 논문에는 바로 그 룡갈이 현상을 리용하여 첫 때물이를 앞당길수 있다고 써여있습니다. 즉 물길에 인공적으로 룡갈이를 일쿠어 얼음이 녹기전에 물길을 열고 때목을 내릴울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논문을 보고 지금 우리 동무들이 얼마나 기뻐하고있는지 아십니까! 올봄에는 그놈의 룡갈이가 달려들기전에 우리가 먼저 룡갈이를 일으켜 작년에 밀진 봉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잡지에 발표된 선생님의 논문은 좀 개념적이여서 도리질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작업소 부문당비서가 확신을 못가지고있어서 야단이지요. 그러니 바쁘시겠지만 편지로 구체적인것을 좀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 편지를 받아 보고나서 수림은 저으기 당황하였다. 물론 그도 백룡강청년류벌작업소가 지난해에 룡갈이 피해를 입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웅근 한해동안 때를 못내리울 정도로 그렇게 큰 재난이였다는것은 모르고있었다.

수림은 깊은 수심에 잠겨들었다. 벌써 2월이니까 이제 한달후이면 그들은 자기가 내놓은 방안대로 한사코 룡갈이를 일으키자고 할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실패하여 지난해와 같은 전철을 다시 밟게 된다면 어찌하랴. ...논문에서는 룡갈이도입안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말했으나 그것이 정작 도입되게 된다고 생각하니 은근히 속이 떨리는것이였다. 더우기 그는 룡갈이 도입에

관한 연구사업을 경사가 완만하고 류속이 빠르지 않은 작은 강들에서만 진행했기때문에 북부지대의 폐물강들에 대해서는 깊은 파악이 없었다.

하여 그는 며칠동안 망설이고 또 망설이던 끝에 겨우 이런 내용의 회답편지를 써보냈다.

《동무들이 지난해 봄에 직접 겪어 본바와 같이 룡갈이란 실로 거대한 파괴력을 가진 자연현상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서둘러 덤비지 말고 여러모로 심중히 생각해볼것을 권고합니다.》

그런데 이 전보문처럼 짝막한 회답편지를 띄워 보낸지 한주일일이 지나서 천수림은 그 오영린이라는 청년으로부터 두번째 편지를 받은것이였다.

《천수림 동무앞》

겉봉에 씌여진 자기의 이름뒤에 전번처럼 선생이라는 경어가 붙어있지 않는것을 보고 그는 벌써 일이 심상치 않음을 예감했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정녕 이렇게까지 혹독한 비난의 말이 씌여있을줄은 몰랐다.

천수림은 울고싶었다. 몸부림치며 울고싶었다. 오영린! 오영린!... 도대체 그는 어떻게 생긴 사람이기에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녀성들을 대할 때 지켜주어야 할 가장 초보적인 도덕마저 무시하고 한 처녀의 인격을 이렇게도 무참히 짓밟아주는것인가?...

여기까지 말하고나서 처녀는 마치 동정을 바라기나 하듯 살며시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는것이였다.

나는 그때까지 편지에서 받은 모욕감을 삭이지 못하고 있던차라 대뜸 머리를 끄덕거리며 큰 소리로 맞장구를 쳤다.

《웁소! 그게 글썄 무슨 큰 잘못이라고 이따위 편지를 날려보내며 사람을 모욕하는가 말이요. 가만 보니 그 사람 거 아직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덤비는 사람이군. 편지에도 씌여있었다지요.? 누구보다 부문당비서가 확신을 못가지고있기때문에 야단이라고... 아니 그래 당비서가 저보다 못해서 머리를 기웃거리겠는가!...》

나는 흥분한 김에 번적거리는 금속제담배곽에서 담배 한대를 제껴 꺼내물었다. 걸차 처녀는 졸지에 울상이 되어 아까처럼 또 재털이를 자기앞으로 끌어당기는것이였다.

《선생님, 미안하지만 제가 말씀을 다 드릴때까진... 제발 담배를 피우지 말아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처녀의 말이 어찌나 간절하고 또 절절하던

지 나는 그만 얼굴을 활짝 붉히며 입에 물었던 담배를 도로 뽑아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은근히 화가 났지만 어째서인지 이 연약하고 아릿다운 처녀앞에선 감히 담배를 피워 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나의 어머니는 몹시 엄한분이였다.

그래서 나는 서른살이 지나도록 어머니앞에서 한번도 담배질을 해보지 못했었다.

한동안 입술을 감빔며 수심어린 눈매로 재털이를 주시하고있던 처녀는 갑자기 활기를 띠며 곁에 놓여있는 자기의 손가방에서 급게 포장을 한 알사탕 한통과 바삭파자 한통을 꺼내놓는것이였다.

《저... 선생님, 이걸 좀 들어요.》

《아아, 이거 이러지 마오. 내가 주인인데 권한진 못하고 얻어먹어서야 되나! 어서 건어넣소! 어서...》

나는 당황하여 손을 내저었다.

《그런게 아니라 선생님, 저의 아버지 심심할 때마다 이런걸 조금씩 깨물면서 담배를 끊으셨답니다. 듣자니 담배란 심심초라면서요?》

《으응?!...》

그 순간 나는 느닷없이 코마루가 시큰해져서 더 다른 말을 못하고 눈길을 허둥거렸다. 녀성들이란 누구라 할것없이 다 이렇게 섬세하고 사려깊은 사람들인가!...

나의 어머니도 한때는 그랬었다. 어머니는 기관지가 약한 아들이 담배를 지나치게 많이 피우는것이 걱정되어 아침마다 내가 직장에 나갈 때면 양복주머니에 담은 쿡을 가득 넣어주며 이렇게 일러주곤했다.

《심심할 땐 이걸 깨물어라. 아무렴, 고소한게 낫지 그 매캐한 담배연기가 낫겠니?》

허나 그 고소한 쿡을 거의 반년동안이나 매일아침 맛있게 먹어준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시 나와 한 부서에서 일하던 녀동무였다.

벌써 20 여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세월과 더불어 머리속에서 희미하게 사라져 버렸던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처녀가 다시금 진하게 되새겨주는것이 고마와서 나는 정겹게 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였소? 그 오영린이라는 동무를 그후에 한번 만나봤소?》

《네, 만났습니다.》

《음... 아마 그 청년이 먼저 찾아올라왔겠지?》

《아닙니다. 제가 먼저 찾아내려갔어요.》

《뭘 동무가?...》

나는 저이기 놀라며 큰소리로 반문했다. 그러나 처녀는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라는 듯 여전히 그 특징적인 속삭임같은 소리로 나직이 말하는 것이었다.

《네, 제가 먼저 그 동무를 찾아내려갔답니다.》

3

《... 그게 아마 지난 3월 초순 어느날 일거예요. 얼음이 푸석푸석 녹아 내리기 시작한 백룡강 물길을 따라 등에 배낭을 진 어떤 처녀가 스케트를 타고 강상류로 올라가고있었습니다. 그가 누군지 짐작하시겠지요?... 저였답니다. 저는 중학교때부터 스케트를 곧잘 탔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대학시절엔 전국대학생겨울철빙상경기에 나가서 신기록을 세운 일도 있답니다. 그래서인지 사회생활을 시작한 다음에도 현지연구차로 겨울에 어데출장을 나가게 되면 항상 배낭안에 스케트를 넣어가지고 떠나야 마음이 가뜰해지더군요. 사실 어느 지방에 가든지 물길조사를 기본목적으로 하는 저에게 있어서 스케트보다 더 훌륭한 개인용 《승용차》가 어데있겠어요.

그날도 저는 순포역에 내리자마자 지체없이 백룡강물길에 들어서서 스케트를 갈아신고 70리밖이— 강상류에 자리잡고 있다는 백룡강청년류별작업소를 찾아 떠났답니다.

이야기 순서가 좀 바뀐것 같군요. 선생님은 제가 어떻게 되어 백룡강청년류별작업소를 찾아 70리 물길을 내달리게 되었는지 이상하게 생각하실테지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전혀 없지 않았어요.

피가 나도록 입을 깨물며 가까스로 모멸감을 참아야 했던 그날밤과 그 다음날 밤을,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밤을 저는 꼬박 뜯눈으로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나서 처음으로 남의 말밥에 오르게 되니 분하기도 하고 피롭기도 하여 좀체도 잠을 이룰수가 없었어요.

낮에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아무 일도 손에 걸리지 않더군요. 조용히 앉아 사색에 잠겨보려면 생각은 가지를 치며 엉뚱한곳으로 뿔뿔이 흐트러지고 책을 펼치들면 글줄이 또 자꾸 헛갈리는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럭저럭 한달을 지나보냈습니다. 남모르는 피로움에 시달리고 나 혼자 아는 번민에 모대기던 끝에 저는 드디어 용단을 내렸습니다.

(내려가보자, 내려가서 백룡강의 자연지리적조건과 기상수문조건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자, 조사해보고 백룡강이 룡갈이도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있을 경우엔 대담하게 도입해 보는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엔 나로서도 할 말이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돌아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학말기에 견학여행차로 우리나라의 중요 강하천들과 그 지류들을 거의다 돌아보았답니다.

압록강, 두만강으로부터 시작하여 부전강의 은하천, 능구천, 여울천과 삼수강의 중평천, 청수천까지 돌아보고나서 저는 정말 우리나라처럼 강하천이 발달한 나라는 없을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관찰한바에 의하면 동해안지대나 서부지대의 강들과는 달리 북부지대의 강들은 대부분이 백두산으로부터 시작되는 높은 산맥들을 분수령으로 하여 중첩된 산악들 사이의 협곡을 지나 압록강과 두만강의 본류에 흘러들고있었요. 그러므로 북부지대의 강들은 일반적으로 강폭이 좁고류속이 빠르며구배가 심하고 여울과 직소가 많은 특성을 가지고있었습니다. 이것은 물길에 룡갈이를 일으킴에 있어서 실로 웅이에 마디격인데 저는 백룡강도 역시 그런 악조건을 가지고있을것이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야 지난해에 발생했던 그 룡갈이가 아무리 큰 것이었다 한들 하루밤사이에 70리 물길을 폐허로 만들어버릴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날 스케트를 타고 올라가면서 조사해보니 과연 물길은 제가 예상했던바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안되겠다. 백룡강의 경우엔 룡갈이도입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은 강상류를 향해 올라갈수록 더욱 확고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 20리쯤 올라가니 강을 가로건너 막은 물동이 나타나더군요. 후에 알고보니 그 물동이 바로 백룡강의 마지막 물동인 4호물동이었습니다.

저는 스케트를 신은채 간신히 물동벽을 돌아올랐습니다. 그런데 물동우에 올라선 순간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글썽난데없이 푸른 물결 출렁이는 넓은 호수가 눈앞에 짹 펼쳐지는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꿈을 꾸는것만 같아 자꾸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그건 꿈이 아니었어요.

(끝내 일을 벌려놓았구나!...)

저는 가슴속에서 뭔가 철렁... 내려앉는것

을 느꼈습니다. 백룡강청년류별작업소동무들이 벌써 제가 내놓은 방안대로 물동의 얼음을 꺼내고 물동안에 물을 한가득 잡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수문을 열고 그 수백립방의 물을 한꺼번에 내려보내면 두터운 얼음장들이 쩡쩡 터져나가며 룡갈이가 일어날 것입니다.

선생님은 룡갈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룡갈이란 봄철에 강의 전구간에서 일시에 얼음장이 꺼져 내리는 현상을 말한답니다. 항간에선 그런 신기한 현상이 그 무슨 <룡>이라는 괴물이 조화를 부리기때문에 생겨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아니랍니다. 룡갈이란 봄철에 강의 전구간에서 일시에 얼음장이 꺼져 내리는 현상을 말한답니다. 해토무렵에 강상류에 쌓여있던 해묵은 눈무지들이 모두 녹아서 강으로 쓸어들면 얼음장 밑으로는 눈석이 가득차서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강바닥과 강기슭은 아직 얼어있어서 눈석이 한방울도 땅속에 스며들지 못하기때문에 얼음장밑을 흐르는 물량은 한초가 새롭게 급격히 불어납니다. 그리하여 삽시간에 벌람할 정도로 불어난 물은 거대한 힘으로 얼음장을 울려 밀어 깨뜨려버리고 깨여진 얼음장들을 아래로, 아래로 밀고내려가면서 굉장히 무서운 얼음사태를 일으킨답니다.

가령 이른봄에 사람들이 떼몰이강의 모든 물동들에 얼음을 꺼내고 물을 가득가득 잡았다가 일시에 놓아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필경 룡갈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겠지요?

제가 내놓은 룡갈이도입안이란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물길을 열고 첫 떼몰이 날자를 앞당기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룡강과 같이 조건이 나쁜 강에서 서둘러 룡갈이를 일으켰다가 물동이며 애기둥들이 작년처럼 또 얼음장에 얻어맞아 죄다 부서져나간다면 글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겁이 더럭 나서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틀림없이 누군가 물동을 감시하러 나와 있겠는데 그를 찾아서 사연을 묻고싶었기때문이였지요. 아닌게아니라 저쪽 기슭의 평퍼짐한 너럭바위우에 웬 청년이 그린듯이 앉아서 책을 읽고있었습니다.

<동무!- 나 좀 보세요!-> 하고 저는 두손을 오프려 입에 불이고 그를 소리쳐 불렀습니다.》

청녀는 여기서 문득 말을 끊더니 과자통을 내앞으로 가까이 밀어 놓고 그대신 채털이를

밀찍이 끌어가는데였다. 아마도 그는 내가 책상우의 담배곽을 자꾸 결눈질하며 코구멍을 연방 벌름거리자 또 담배를 피울가봐 겁이 났던 모양이었다.

나는 어이가 없어 빙그레 웃으며 군입을 쩡쩡 다셨다.

《어서 계속하오. 그다음엔 어떻게 되었소?》

4

수림은 물동우에 걸터앉아서 스케트를 벗으며 청년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청년은 서두르는 색이 없이 물동가의 여기저기를 두릿두릿 살피며 천천히 다가왔다. 키가 후리후리하고 어깨가 적벌어진 삼십전의 젊은 청년이었다. 그는 해벌에 반사되어 번쩍거리는 스케트를 마뜩지않게 흘겨보더니 자못 통명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왜 그러우? ... 대관절 동문 누군데 오라가라 호령질이요?》

(어마나!...)

수림은 저도 모르게 목을 움츠려뜨렸다.

《미안해요. 그런데 이 물동의 얼음을 동무들이 까냈는가요?》

《그렇소 우리가 까치웠소. 보아하니 동문 스케트를 타려고 여기까지 올라온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돌아가시오. 여긴 이제 겨울이 아니라 봄이요. 봄! ...》

(봄이라구?...)

수림은 어쩐지 가슴이 몽클해졌다. 청년이 무엇때문에 그렇게 불쾌해 하는지 심분 이해되었다. 만일 자기가 이 물동가에 올라서서 봄노래를 하고조멋있게 불러 넘겼더라면 청년은 아마도 춤을 추며 달려와 반겨맞아 주었을 것이었다.

그런데 자기는 따스한 봄물이 출렁이는 이 물동가에 겨울의 가장 가까운 측근자라고 할수 있는 스케트를 타고 왔으니 왜 불쾌하지 않으랴...

수림은 일이 참 공교롭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열적게 미소를 지었다.

《오해하시는군요. 전 스케트를 타러 온게 아니에요. 전 지금 백룡강청년류별작업소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예?!...》

방금전까지 쓴외보듯하던 청년의 꽃꽃한 눈길이 금시 부드러워졌다.

《우리 작업소엘 찾아온단말이지요? 그런걸 난 당장 쫓아버리려고 했구만요. 하하... 그런데 동문 어데서 오우?》

《저...》

수림은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모름지기 이곳 때

물이공청년들은 누구나 다 천수림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있을것이였다. 그러므로 괜히 자기의 신분을 선뜻 밝혔다 간 어떤 곤경에 빠지게 될지 모르는것이다.

수림은 그저 적당히 대답하는게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저… 저는 평양에서 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 그런데 어떻게 우리 작업소에 누구 친척되는 사람이 있는가요?》

《…네…》

수림은 얼굴에 머리를 끄덕거렸다.

청년은 지긋게 따져물었다.

수림은 난처해졌다. 이제는 부득불 본의아닌 거짓말을 꾸며대야 했다.

《저… 사촌오빠예요.》

《글쎄 그 사촌오빠가 누구냐말입니다.》

《아이, 이름을 대야 동무가 누군지 알겠어요.? 설한 사람들중에…》

《허허… 아무리 사람이 많은데 내가 우리 작업소 사람들을 모르겠습니까! 난 그 작업소 부문당비서입니다.》

《네?!…》

수림은 삽시에 얼굴이 해쓱해졌다. 일은 점점 더 동아줄처럼 꼬여돌아가기만했다. 작업소부문 당비서앞에서까지 자기 신분을 감추는 없지 않는가! …

그 순간 수림의 머리속에는 오영린이가 첫번째로 보내왔던 편지의 마지막 구절이 피땀 생각났다. 만일 그가 쓴바대로 이 부문당비서가 지금도 역시 룡갈이도입안에 대하여 확신을 못가지고있다면 수림은 아주 유력한 자기의 지지자를 한명 얻은 셈으로 될것이였다.

수림은 저이기 마음이 든든해지는것을 느끼며 입을 열었다.

《저… 그 작업소에 오영린이라는 동무가 있지요?》

《예?!…》

부문당비서의 싱글거리던 얼굴이 대뜸 굳어졌다.

수림은 그가 왜 그렇게 놀라는지 리해하였다. 평양에서 오영린이를 만나러 온다고 하니 룡갈이도입안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대번에 속이 뜨끔할것이였다. 수림은 그앞에 다소곳이 머리를 숙였다.

《욕하지 마세요. 제가 바로 룡갈이도입안을 내놓은 천수림입니다.》

하고 그는 오영린의 편지를 받고 고민하던 끝에 도와줄것을 결심하고 찾아내려온 사연을 자초지종 이야기하고나서 심중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비서동지, 그런데 이자 들어오면서 보니까 물질

상태가 아주 좋지 못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백룡강의 경우엔 룡갈이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 …》

《불가능하다고요?》

부문당비서는 문득 그의 말허리를 끊으며 나직한 소리로 반문했다.

《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선 벌써 룡갈이를 일으킬 준비를 다 해놓았구만요.》

《그렇지요. 여기뿐이 아닙니다. 1 호, 2 호, 3 호 물동에도 물이 가득가득 찼지요. 우리 동무들은 래일아침 여기 4 호물동에서 먼저 시험 룡갈이를 일으켜보자는겁니다.》

《그건 안됩니다!》

수림은 황급히 그의 말을 밀막으며 머리를 가로저었다.

《비서동지, 중지시켜야 합니다. 이자도 말씀드렸지만 백룡강의 경우엔 룡갈이도입이 모험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지시켜주세요. 네? 비서동지.》

《허허허…》

문득 부문당비서는 속이 빈 옷을 터뜨렸다.

《연구사동무, 유감스럽게도 나에겐 그들을 돌려세울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 동무들은 이달안으로 기어이 첫떼를 내리우겠다는겁니다.》

《그렇다면 저한테 말겨주세요. 제가 과학적으로 그들을 납득시키겠어요. 지금 오염린동무가 어디있습니까?》

《오영린동무요? …허허… 이제 곧 만나게 될겁니다. 하여튼 갑시다. 미리 기별을 띄우고 오셨더라면 차를 가지고 마중을 나가는건데… 아직 점심전이겠지요?》

부문당비서는 이렇게 말하며 수림의 배낭을 닝큼 집어들었다.

잠시후 그들은 산중턱을 깎아내린 신작로우에 올라섰다. 거기에는 떼몰이용 《경쟁》이 서있었다.

부문당비서가 운전대를 잡았다. 승용차는 풀어놓은 띠처럼 오불고불한 산정길을 나는듯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얼마쯤 올라가자 3 호물동이 나타났다. 좁전에 부문당비서가 말한대로 거기에도 역시 검푸른 물이 가득차서 출렁거리고있었다. 수림은 가슴이 옥죄여들어 견딜수 없었다.

《비서동지, 작년봄에 룡갈이가 백룡강을 휩쓸때 비서동지도 현장에 있었겠지요.?》

《예, 있었습시다.》

《그때 목격한바를 그대로 좀 얘기해줄수 없어요?》

《…》

부문당비서는 말없이 그를 흘금 돌아보더니 이어 선선히 입을 열었다.

《필요하다면 들려주지요. 한밤중에 갑자기 드르릉!-하고 창문이 요란스레 울었습니다. 그러더니 돌연 와르르-와르르-하고 마치 돌산이 무너져내리는 듯한 소리가 앞뒤산을 쨍쨍 울리며 메아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난 처음에 지진이 일어났는가 했지요. 그런데 골짜기를 온통 들었다놓는것 같은 굉음은 강변에서 일어나고있었습니다. 우린 주먹을 부르짖고 강가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글썽 이런 변이 어데 있겠습니까! 저녁때까지만 해도 아직 든든히 얼어붙어있던 강반에 물안개가 자오희 피어올랐는데 그밑으로 집채같은 얼음장들이 서로 부딪치고 뒹굴며 무섭게 밀려내려가고있더군요. 한마디로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얼음사태였습니다. 우린 모두 속이 한줄만하여 날이 밝을 때까지 강변에서 떠나지 못했지요.》

부문당비서는 잠시 말을 끊고 능숙한 동작으로 속도조절기를 좌우로 움직여 뒤로 잡아제겼다. 승용차는 고개마루를 향해 올라가고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피해가 막심했겠지요?》

수림은 가슴이 바질바질 타들어오는것을 느끼며 그의 말을 재촉했다.

《물론이지요. 피해는 참혹했습니다. 어느것 하나 성한대로 남아있는것이 없었지요. 오죽했으면 우리 기사장동무가 주먹으로 땅을 치며 울었겠습니까!...》

《...!!...》

수림은 공포에 질려 몸을 바르르- 떨었다. 그때의 그 참사가 다시 벌어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하라.-

《비서동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되겠어요. 룡갈이는 동해안지대나 서부지대의 작은 강들처럼 경사가 완만하고 류속이 빠르지 않는 강들에서나 도입할수 있는거예요. 무조건 중지시켜줘야겠어요.》

《안됩니다.》

부문당비서는 단호히 머리를 흔들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 동무들의 결심을 돌려세우지 못할겁니다.》

《야참, 그럼 어떻게 하자는겁니까? 작년에도 우근 한해동안 떼를 못 내리웠다면서 금년까지 그렇게 되면 비서동지의 립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

수림이 안타까움에 겨운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자 부문당비서는 문득 차를 세우고 그를 향해 비스듬히 돌아앉았다.

《연구사동무, 어째서 동문 자구 안된다고만 생각하십니까?... 현실은 리론보다도 실천을 더 요구하고있습니다. 실천속에서 확증된 리론만을 진리

로 받아들이단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힘을 합쳐서 대담하게 해봅시다. 겁내지 마십시오. 설사 일이 잘못되어 부득이 책임한계를 따지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동무들은 결코 동무에게 책임을 넘겨쳐주지 않을테니까요. 이것만은 믿으시오.》

《...?!...》

수림은 말문이 막혔다. 어쩌면 초면에 자기의 내심을 그렇게도 정확히 꿰뚫어보고 두말 못하게 꼭 눌러놓는지 놀랍기 그지없었다. 수림은 그를 납득시켜 룡갈이도입을 중지시키려 했던 자신의 생각이 어리석었다는것을 깨달았다. 어찌 보면 이 부문당비서는 오영린이라는 청년보다 룡갈이도입안을 더 강경히 주장하는 청년 같기도 했다.

수림은 나직이 한숨을 지으며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리해할수 없군요. 오영린동무가 저에게 보낸 편지에는 누구보다도 비서동지가 확신을 못가지고 도리질을 해서 야단이라고 써여있었는데...》

《허허... 그건 사실입니다. 아닌게아니라 처음엔 나도 확신을 못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동무의 론문을 열번, 스무번 읽고 또 읽으며 내 판에 연구를 깊이 했지요.》

《?!...》

《론문을 거듭 읽어 볼수록 동무의 주장이 백번 지당하다는것이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난 동무의 말대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글썽 그거야 그렇지요. 아무렴 제가 론문에 거짓말을 썼겠나요?》

《웁습니다!》

별안간 부문당비서는 한쪽 손바닥에 주먹도장을 확 내려찍으며 흥분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거짓말 또는 나쁜 소리를 막 췌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누구나 말하는걸 보면 다 웁고 훌륭한 말만 한단말입니다. 그런데 개중엔 말만 잘하고 행동으로는 잘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문제가 아닙니까! 전번에 내가 동무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그 담배대를 꼬나물고 담배의 해독성에 대한 글을 썼다는 엉터리없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네에?! ... 아니 그럼??》

수림은 갑자기 불에 데기라도 한듯 와뜰 놀라며 가뜩이나 큰 눈을 한껏 치떴다. 한순간 부문당비서도 흠칫 놀라며 한손을 얼른 입으로 가져갔다. 그러더니 이어 손을 내리우며 정색하여 말을 이었다.

《용서하십시오. 아까는 동무가 난처해할가봐 일부터 내가 누구라는것을 밝히지 않았습시다. 자, 그럼 우리 뒤늦게나마 서로 통성합시다. 내가 바

로 동무가 말하던 사촌오빠인 오영린입니다. 하하…》

부문당비서 오영린은 유쾌하게 웃으며 크고 억센 손으로 수림의 연약한 손을 힘껏 잡아흔들었다.

5

《…그가 바로 오영린동무였습니다. 편지를 보고 제가 처음에 머리속으로 가상해 본 오영린동무는 키가 작달막하고 눈썹이 꼬부장한, 아량이 좁고 성격이 메마른 그런 사나이였어요. 그런데 정작 만나보니 키도 크고, 속도 크고, 성격도 매우 활달한 동무더군요.

작업소의 유일한 <외동딸>인 통계원처녀가 저에게 들려준바에 의하면 오영린동문 그동안 룡같이 일을 일으킬 준비를 하느라고 거의 한달동안이나 밤낮없이 물길에 나가살았다는군요. 초기엔 기사장동무를 비롯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대요. 그러다 만약 실패하는 경우엔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고말이에요. 어느날 통계원처녀가 현장에 나갔다가 돌아와 사무실문을 열려고 하는데 방 안에서 오영린동무의 목소리가 울려나오더랍니다.

<… 기사장동무, 어제 낮에 중덕탄광동무들이 우리를 찾아왔었습니다. 지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탄부들이 한결같이 떨쳐나서 더 많은 탄발을 마련해 놓았는데 갱목이 팔려 석탄을 더 캐내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와합니다.

난 그 동무들앞에서 머리를 들수가 없었습니다. 기사장동무나 나나 석탄의 덕을 얼마나 봄니까. 그러면서도 지하막장에서 일하는 탄부들을 잘 도와주지 못한다면 무슨 면목이 있습니까.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첫 폐목을 이달안으로 꼭 띄워보냅시다.>

선생님, 오영린동무의 이 절절한 가슴치는 타이름에 기사장동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이따금씩 무겁게 한숨을 짓곤하더랍니다.

바로 그 기사장동무가 그날저녁 제가 들어있는 숙소를 찾아왔어요.

<연구사동무, 고맙습니다. 난 동무가 여기까지 찾아내려와서 도와주리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자 우선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우린 시설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물량을 조절해서 얼음장들을 살금살금 띄워내려보내자는겁니다. 그런데 아직 몇시간 간격으로 얼마만큼 물을 놓아주어야 하겠는지 그걸 계산하지 못했던말입니다.>

하고 그는 물길락도와 시설물배치도를 제앞에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물량을 조절한다구?…)

순간 저는 귀가 번쩍 열리는것을 느끼며 재빨리

머리속으로 그 물량조절법의 가능성 여부를 타산해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현실적인 방안이더군요. 저는 아이들처럼 막 환성을 울리고싶은걸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참 그럴듯한 생각이군요. 그런데 이젠 기사장동무의 착상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비서동무가 생각해낸거지요. 비서동문 이걸 착안하느라고 책이란 책은 다 뒤지면서 한달동안이나 골머리를 앓았답니다.>

<비서동지가요?…>

저는 졸지에 귀밀이 화끈 달아오르는것을 느꼈습니다.

당비서와 연구사!- 얼마나 판이하고 대조적인 직분입니까. 그런데 글썽… 룡같이도입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를 훌륭히 해결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오영린동무였던말입니다.》

처녀는 그때의 그 창피스럽던 일이 되살아나서인지 잠시 말을 끊고 책상우에 눈길을 떨구었다. 그때까지 처녀의 이야기에 심취되어 담배생각을 감감 잊고있던 나는 불시에 또 한대 피우고싶은 생각이 갈마들어 저도 모르게 책상우의 담배꽂으로 손을 뻗었다.

그러다가 문득 잠전에 처녀가 하던 말,- 자기말이 다 끝날 때까지 제발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하던 간절한 부탁이 뇌리를 쳐서 그가 불세라 열른 팔을 가드라프리고 아닌보살을 했다.

처녀는 내가 놀아대는 꼴을 차마 웃지 않고는 못보겠는듯 가볍게 소리내어 웃으며 말을 이었다.

《선생님, 정말 사람이 입으로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으로 옮기기는 힘들지요? 호호 … 그렇지만 맘먹고 달라붙으면 뭐 그닥 어려운것도 아니더군요.

하던 말을 계속하겠어요. 이야기가 길어져서 지루하지요? … 이제부터 간단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겠어요.

그 다음날 아침 작업소에서는 계획대로 4 호물동에서 먼저 시험룰같이 일을시켰는데 조금도 미흡한데가 없이 완전히 성공했답니다.

북소리, 노래소리가 백룡강반을 온통 들었대놓았지요.

떼몰이공청년들이 저를 왁- 둘러싸고 저저마다 손을 잡아흔들어주었습니다.

<이건 류벌력사에 오래 기억될 일이다!>

<백룡강에 봄아싸같은 처녀가 찾아들더니 겨울이라는 사나이를 대번에 녹여냈다!>

하고 떠들어대며 찬사를 아끼지 않을 때 전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더군요. 기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오영린동무는 총각들속에 둘러싸여 몸둘바를

몰라하고있는 저를 멀찌감치에서 바라보며 그저 멍글멍글 웃기만했습니다.

작업소로 돌아오는 길에 오영린동무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수림동무, 난 동무가 처녀일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나와 같은 아니 나보다 훨씬 년장자인 어떤 남자일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제가 처녀라는걸 알았다면 아마 편지에 그렇게 혹독한 말은 쓰지 않았겠지요? 흔히 남자들이란 여성들에 대하여 매우 관대한분들이니까...>

하고 제가 대꾸하자 오영린동무는 웬일인지 쓸쓸한 미소를 입가에 피워 올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한테 바로 그런 관대성이 없는게 탈이지요. 때문에 처녀들은 대체로 나를 꺼려하고 멀리한답니다. 지어 어떤 처녀는 나에게 불같은 편지까지 써보낸 일이 있는데 어쩌다 한번 따끔하게 충고를 준 다음부터는 앵돌아져서 본체만체하더군요. 참아 단입니다. 그까짓 총각으로 늙는건 겁날것 없지만 당일군이 사람들에게서 랭대를 받는다는건...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며칠후 작업소에서는 예정보다 한달이나 앞당겨 첫 때몰이를 시작하는 성대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모임에서 오영린동무는 바로 저에게 첫 때목을 물고 내려갈 영예로운 임무를 맡겨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영린동무와 함께 웃긱웃긱 꽃단장을 한 첫 때목을 타고 백룡강물길을 미끄러져내리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마 때목을 타보신 일이 없으실테지요? ... 저도 그때까진 때목을 타본 일이 없기때문에 처음엔 은근히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더군요. 때목을 타니까 왜 그렇게 마음이 든든해지고 즐겁던지... 제가 이제 고 급승용차를 타고 수도의 아스팔트길을 달린다 해도 그때처럼 그렇게 마음의 안정감을 느껴보진 못할거예요.

해질무렵에 양륙장에 도착한 우리들은 때목을 인계해주고나서 곧장 순포역으로 향했습니다.

평양행열차를 기다리면서 저는 오영린동무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저... 그 의학자의 주소를 알고계시나요?>

<어느 의학자말입니까?>

<전번 편지에서 이야기한...>

<오, 그사람말이요? 유감스럽게도 주소는 못알아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알지요. 손명민선생이라고 합디다. 그런데 그건 왜 그러니까?>

<글쎄요. 어쩐지 한번 만나보고싶어서...>

선생님, 이젠 리해되시지요? 어떻게 되어 제가 오늘 선생님택을 찾아오게 되였는지... 그리고 무슨 필요로 자랑거리도 아닌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았는지...

선생님이 이걸 리해하신다면 전 그만 돌아가보겠어요. 안녕히 계십시오.》

...

처녀의 속삭이는듯한 부드러운 목소리가 사라진 다음에도 나는 깊은 자책감에 휩싸여 오래도록 눈을 지그시 감고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눈을 떠보니 처녀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아아, 이 처녀가 벌써 갔구나! 편지도 안가지고...)

나는 편지봉투를 움켜쥐고 급급히 복도로 달려나가다가 무춤 서버렸다.

생각해보니 구태여 편지를 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이 않았다. 왜냐 하면 그 편지는 처녀가 받은 편지이긴 하지만 사실 내가 받아야 할 편지였기때문이었다.

X

하여 나는 처녀가 받은 편지에 대한, 아니 처녀의 손을 거쳐 내가 받은 편지에 대한 회답을 대신하여 며칠동안 이 소설을 썼다.

이 글을 끝맺으면서 나는 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더 이야기하려고 한다.

첫째로, 나는 담배를 끊었다. 난생 처음 써보는 이 짧지 않은 소설을 다 쓸 때까지 내가 담배를 한대도 피우지 않았다는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아마 모두 내 말을 믿어줄것이다.

둘째로, 편지를 가지고 나를 찾아왔던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처녀는 지금 이 도시에 없다. 잊고 제 내가 림업과학연구소에 전화를 걸어보니 그 처녀는 장기간의 현실연구를 목적으로 퇴거수속까지 다 해가지고 그날아침차에 오영린동무가 비서로 사업하고있는 백룡강청년류별작업소로 떠나갔다고 한다. 우리 생활이란 바로 이런것이다!...

막장의 노래

백행문

북대봉허리에 명주필처럼 휘감겼던 새벽안개가 쿵-쿵쿵 하는 둔중한 발파소리에 겁을 먹었는지 이리 꿈틀 저리 꿈틀 쫓기다 어디론가 자취를 감춰버린다.

방송차에서 불어대는 노래소리, 나팔소리가 탄광 마을을 들었다놓는다.

《80년대속도》창조의 열풍속에 또 하루 새날이 밝은것이다.

내판에는 일찍 집을 나선다 했건만 벌써 한패거리의 젊은이들이 방송차에서 울리는 박력있는 노래에 저들의 목청을 합치며 갱입구에 들어선다.

나도 그 노래를 따라부르며 걸음을 재우쳤다.

갱사무실문을 여는데 전화종이 자지러지게 울린다.

송수화기를 드니 웅글은 지배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소대장후임이라구요? 네, 이름 최태성, 나이 29 살, 공병출신 제대군인...》

나는 지배인이 불러주는것을 탁상달력뒤등에다 급히 적어놓았다.

보름째나 비어있던 소대장이라 나는 매일같이 불같은 독촉을 했던것이다.

우는 아이에게 먼저 젖준다는 말이 이래서 생긴듯싶다.

아침부터 반가운 소식이다.

탁상달력에 적은 이름을 이윽히 내여다 보는데 푹푹푹 하는 묵직한 손기척이 울리었다.

《네, 들어오시오.》

낮선 청년이 쑥 들어선다.

왕북으로 꼭 눌러놓은듯한 눈섭아래 이글이글 불타는 두눈, 철색얼굴에 우뚝 날이 선 코마루, 돌문처럼 딱 다물린 두툼한 입술은 어깨가 짙 벌어진 체구에 흠할데 없이 들어맞는다.

《누구를 찾으소?》

《갱장동질 만나자고 합니다.》

방안을 드렁드렁 울리는 그 목소리에서 나는 새로 오는 소대장임을 짐작하고 직방 물었다.

《배치돼오는 소대장동무 아니요? 내 갱장이요.》

《그렇습니다. 최태성이라고 합니다.》

딱- 소리가 나게 발꿈치를 붙이는 그의 몸가짐에서는 오랜 군인생활에서 굳어진 절도가 그대로 나타났다.

《어서 앉소.》

나는 그에게 의자를 권하며 《철성문》 두대를 뿔뿔히 한대를 내밀었다.

《전, 꿇었습니다.》

《그저 잘했소. 현대 난...》

나는 담배에 불을 달고 길게 한모금 들여마시었다.

갱입구에 세워놓은 방송차에서 울리는 힘있는 취주악선율이 방안에까지 쟁쟁히 들려온다.

《지배인동지가 갱장동지한테서 소대장 경험을 꼭 들으라고 했습니다.》

《경험이라...》

나는 그의 말을 받아외우며 고개방아를 찼었다.

갱장으로 일하는 7년간 나는 새로 오는 소대장들로부터 제외없이 이 청을 받았다.

그렇만도 했다. 현대 어디에서부터 말할가.

지금 나와 마주앉은 소대장, 그는 아마 처음 소대장을 하던 때의 나처럼 노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닐것이다.

하나 아는 길도 물어 가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하기에 나는 소대장으로 일하던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다.

《소대장동문 노래에 대해 생각해본적 있소?》

《네-에?》

소대장의 두눈이 대번에 화등잔만해진다.

처음 마주앉은 사람이 갱장이 아니라면 그건 무슨 똥판지냐고 코방귀가 튀어나왔을지도 모른다. 소대장은 히죽이 웃기만했다.

《소대장동무. 별걸 다 묻는다고 하겠지만 난 한때 노래를 몰랐댔소. 그런탓에 매일 함께 일하는 소대원들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소. 그러니 검은 금덩이가 순조롭게 나올수 있었겠소?》

소대장은 등실 한 눈을 련속 껌뻑거리며 머리를 기웃거렸다.

아마 나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원래 말주변이 없다고 소문난 나였으니말이다.

하여튼 나는 다 타들어 간 콩초를 재털이에 비벼 끄고는 몇해전 그때 이야기를 시작했다.

.....

우리 소대는 스무명이었다. 박아바이를 빼놓으면 모두가 날 풀에도 불이 당길 20대의 제대군인들이었다.

나이며 성격 취미 그것 역시 스무가지였다. 그런데 또 게사니 무리의 오리라고 우리 소대엔 운전공 처녀까지 한명 배속되었다.

한발과 끝내고 화약내를 뽑는 시간이면 그 처녀의 입에서 먼저 《로동은 노래라네 기쁨이라네》라는 노래가락이 흘러나와 미구에 합창으로 번져지고

이 때라는듯 키썩다리 유동무의 하모니카가 쿵창거린다.

거기에 송동무의 곱새춤이 시작되면 소대원들은 배를 그러안고 돌아간다.

소대의 막내는 눈물까지 질끔나온다.

《저 친구 확실히 어머니 배속에서 태줄을 잘못잡았어. 영낙없이 치마가 차례지는건데…》

와-

휴계실이 무너지게 웃음이 솟아진다.

(여허 잘들논다. 굴진에선 굼벵이보다 못하면서 도 무는 노래가 나와.)

나에게는 웃음도 노래도 마뜩지 않았다. 그럴만 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원래 탄광에 온지 얼마 안되는 제대군인인데다가 예상치 많던 압질조건으로 하여 한달째 굴진속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다.

생산은 절반으로 툭 떨어졌다.

나의 가슴은 마가울의 가랑잎처럼 말라들었다.

나에게는 노래소리보다 말과소리가 몇배나 그리웠다.

경쟁도표에서 물러날줄 모르는 거부기로 하여 총화때마다 나는 얼굴을 들수 없었다.

옆친데 덮친격으로 착암정알까지 딸리고보니 굴진을 추세온다는것은 감탕에 박힌 좁쌀을 쫓는격이었다.

주총화를 마치고 올 때마다 이번엔 한번 본때를 보이자고 버르었지만 매번 물먹은 흙담처럼 무너져 내리니 나의 입에서는 《돌격》이요 《비상전투》요 하는 말이 배틀에 복나가듯했다.

허나 굴진실적은 80%를 넘어서지 못하니 노래와 웃음을 생각이나 할수 있으랴.

나에게는 오히려 그 쿵창판이 생산을 말아먹는 흙으로 인정되었다.

(체, 그 체네 제멋에 잘 논다. 응》

운전공 은순이가 노래를 시작하면 나는 코방귀를 평평 꺾며 씌외보듯하였다.

유동무의 하모니카가 쿵창거릴 때면 나의 눈길은 곧추 그에게로 날아들었다.

유동무는 슬그머니 하모니카를 주머니에 넣어 버리고 은순이의 은방울 울리듯 한 목소리는 《…우리는 피끓는 청…》하고 멈춰버렸다.

열흘 또 열흘, 노래와 웃음은 점차 찾아들었다. 한달이 지나자 끓는 가마에 집어넣은 눈송이처럼 형체도 없어졌다.

(질서가 서는구나.)

나는 내심 기뻐했다. 허나 웬걸 전에는 볼수 없던 작업지시에 불만을 가지는 못된 뿔이 나려고 했고 생산실적은 더 말이 아니었다.

규률과 질서가 없는데서는 어미를 쫓아다니는 당

아지새끼처럼 불평이 뒤따르기 마련이라고 자처한 나는 소대원들이 제기하는 의견을 듣지도 않고 묵살해버리었다.

어느날 착암공이 새로 지은 아빠트로 이사를 하게 되어 부득불 작업조직을 변동시켜야 했다.

《한석철동무, 오늘은 착암기를 맡으시오.》

《원동혁동무는 운반.》

내 말이 채 끝나기 도전에 《소대장동무, 전 운반보다 착암에…》 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집행한 다음에 제기하십시오.》

나는 단마디로 잘라버리었다.

질서를 세워야 했다.

허나 내가 고집하는 규률과 질서는 설익은 강낭떡처럼 부스러져나갔다.

아침모임시간마저 지키지 않는 소대원들이 나타났다.

그날아침에도 유동무가 보이지 않았다.

밤새도록 함숙호실에서 새로 배우는 기타에 정신이 팔렸다가 늦잠을 잔것이 분명했다.

속에서 울끈거리는것을 겨우 참아내며 사업일지를 펼치는데 비지땀을 흘리며 그가 들어섰다.

바지뒤주머니에는 빼죽이 하모니카가 드러나있었다.

《지금이 몇시요?》

《…》

뒤틀린 심사에 대답조차 없으니 나 역시 문법대로 말할리 만무였다.

《저 사실은…》

《탕.》

나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치는통에 사업일지에 놓여있던 원주필이 공중 춤을 추었다.

《한번만 더 반복되면 문젠 세우겠소.》

문제라는 말에 나는 그루를 박았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는 압축공기배관을 손질하다 늦었던것이다.

자초지종을 알려고도 하지 않은 나에게는 그의 대답이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당에서 조직한 강연회에 갔다가 조급히 돌아오던 나는 우리 소대가 오전중에 한발파를 더 제끼였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 걸음을 재우쳤다.

《허튼소리겠지. 통제하는 사람도 없이 뒤죽박죽이겠는데…》 마치 어린 아이를 한지에 내놓은것같은 기분에 싸인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갱에서 만난 운전공들에게서 또 인사를 받은 나는 어리둥절하여 휴계실로 달려왔다.

하모니카의 류창한 선율이 흘러나왔다.

《여, 하모니카가 동강나기전에 건사해두라구.

이제 소대장이 오면...》

나는 휴계실의 손잡이를 잡으려다 흠칠 놀라 한 걸음 물러섰다.

《우리 소대장은 노래를 모르는 사람안야?》

《모르긴 왜 몰라, 전번 일요일에 3 소대장들러 리를 썼다가 채청까지 받았는데.》

《오늘아침 없으니 개인날씨 갈구만.》

《그래서 한발과 더 하지 않았나.》

이게 무슨 소린가, 착암기의 정날이 뒤통수에 와닿는듯했다.

《야참, 동무들이 계속 오늘처럼 일하면 소대장의 인상도 변할거예요. 자, 또 노래하자요.》

목소리 임자는 분명 운전공 은순이었다.

뒤미처 은순이의 방울굴리는듯한 노래소리에 합류되어 웅글진 합창소리가 휴계실을 떠나갈듯이 울려온다.

나는 그자리에 더 있을수가 없었다.

.....

나는 여기서 하던 말을 멈추었다.

《소대장동무 지루하지 않소?》

나의 물음에 그는 대답없이 곧추 쳐다보기만 했다. 그 눈길은 신중했고 어서 계속하라고 보채는 것 같았다.

《참 소대장동문 결혼했소?》

그는 가로 고개를 저었다.

《그럼 약속한 처녀는 있소?》

《없습니다.》

《잘했소. 꼭 우리 탄광마을 처녀들중에서 고르라구. 마음은 비단결이구 속은 쇠물처럼 굳세다우.》

그는 벌쭉 웃고나서 물었다.

《갱장동진 여기 처녀와 결혼했습니까?》

《그렇소. 그 우리 소대 전차운전공처녀말이요.》

《련애했습니까?》

《반련애, 반중매인셈이지 하하.》

《하 하.》

그도 따라 웃었다. 통쾌한 웃음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은순을 처음 알게 되던 경위를 이야기했다.

은순은 탄광마을에서 마음씨 착하고 일 잘하고 인물 잘난 처녀로 소문이 짜- 했다. 노래 잘하고 웃기를 잘하는 그에게 제노라 하는 축들이 호의를 사려고 몸살이 나게 애를 썼으나 그따위 말은 한마디도 건네보지 못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나 은순에게는 《석탄덩이》란 딱지가 붙었다.

석탄덩이처럼 이발이 안들어가 차갑다는 의미에서였는지...

하지만 이 딱지는 은순의 인품을 더 돋구어 놓았다.

그러나 나만은 그를 늘 투명스럽게 대하였다. 괜히 노래를 시작하여 그렇지 않아도 들뜬 우리 소대 총각들을 노래에나 뿐지를 울리게 하니 말이다.

그러던 내가 은순이와 사귀게 된것은 살뜰한 쪽편지로나 아니라 투박한 한마디로 그를 울려놓은 그날부터였다.

교대시간은 30 분이 남으나마나한데 버력은 그 두대분이 넘었다.

운반차가 올 시간이 훨씬 지났으나 전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젠장)

나는 기다릴수가 없어 갱도를 따라 걸었다. 열마를 걸어나오니 반디불이 보였다. 나는 그자리에서 기다렸다.

아니? 불빛은 움직일줄 모른다.

탈선이였다. 은순은 제힘으로 석탄차를 울려 놓느라 물주머니가 되어있었다.

《탈선이면 알려야지 혼자 우물거릴게 있소? 두차나 잡아먹게.》

내가 운반차를 울려놓고 되돌아서려는데 뿔어지게 쳐다보던 은순의 오목한 눈에서 맑은것이 도로록 굴러 내리는것이 전조등불빛에 비치였다.

(히, 우는구만.)

처녀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좀 별나졌다. 순간 어제아침 휴계실에서 나를 위해 두둔해주던 은순이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소대원들을 고생시키지 않으려는 그의 심정을 몰라주었구나)하는 자책이 가슴 한구석에 매여달리였다.

그후 나는 은순의 전차에 오를 때마다 그때의 무안을 사과하러 했으나 좀처럼 마음을 터놓을수가 없어 그냥 속에 궁쳐넣고있었다.

그후 나의 인상은 좀 변하긴 하였으나 아직도 생산실적에 따라 이마전의 독수리가 나타나군하였다. 갱안으로 나들면서도 나는 레루 나사못을 살피는 은순이와 자주 마주치군했으나 그는 전번의 일은 아예 잊은듯 방긋 웃기만 했다.

한달후 광부절을 맞으며 탄광에서는 체육경기를 조직했다갱안으로 나들면서도 나는 레루 나사못을 살피는 은순이와 자주 마주치군했으나 그는 전번의 일은 아예 잊은듯 방긋 웃기만 했다.

축구에 취미를 가진 나는 자진하여 경기에 나갔다. 우리와 맞선 3 소대선수들도 만만치 않았다. 나는 노루꼬리만한 기술을 뽐내며 단독을 시도했다.

《소대장동무 앞으로 련락하세요. 앞으로》하는 처녀의 이악한 목소리가 북소리, 응원소리를 누르고 쉑쉑히 울려왔다. 피땀 고개를 드니 잠자리날개 같은 파란 수건을 흔들며 은순이가 두발을 구르고

있었다. 나는 상대방 끝문앞에서 소리치는 우리 선수에게 힘껏 찰리주었다. 보기 좋게 성공되었다.

경기에서 우리는 2대 1로 이겼다.

그날저녁 우리 소대는 탄광마을이 떠나갈듯 노래를 부르며 도예술선전대 축하공연이 있는 문화회관으로 향했다.

유동무의 하모니카가 더욱 성수를 냈다. 그는 소대가 함께 노래를 불러보기는 몇달만에 처음이라고 했다.

도예술선전대 배우들의 공연은 탄부들에게 새힘을 주었다.

허나 나는 공연을 보며 쥐구멍을 찾았다. 신통히도 나와 같은 소대장을 비판하는 사이극이 있었다.

나의 얼굴은 화로를 뒤집어쓴듯이 핫핫 달오울랐다. 공연이 언제 끝났는지도 몰랐다. 집으로 오는 길에서 나는 우연히 은순이와 함께 오게 되었다.

은순은 방금 보고나온 공연으로 말머리를 떼었다. 나는 사이극에 대한 말을 꺼낼가보아 속이 한줄만 해졌다.

은순은 소대이야기로 화제를 바꾸었다.

누구는 운반보다 착암에 능수라는것, 누구는 국수라면 오금을 못쓰나 떡은 반개도 들지 않는다는것 등...

은순은 지금껏 내가 모르고있었으며 또 알고있지도 않았던것들을 일깨워주었다.

한참만에 은순은 물었다.

《소대장동무, 한가지 부탁을 해도 되겠어요?》

《뭔데 말하우.》

은순은 펄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소대장동무가 막장에서 함께 노래도 부르고 밝은 얼굴로 작업조직을 한 날은 소대원들의 사기가 하늘에 닿는다는것을 왜 모르세요. 전 소대장동무가 막장에 들어서기전에 소대원들의 마음속에 먼저 들어서는 지휘관이 돼주었으면 해요.》

은순은 여기서 하던 말을 끊고 빨간색뚜껑을 한 손바닥만한 수첩을 내밀었다.

첫장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탄광을 찾으시고 일꾼들은 노래도 부를줄 알고 웃을줄도 알아야 한다고 하신 현직교시가 또박또박 새겨져있었다.

다음장부터에는 우리 소대동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들이 깨끗하게 적혀있었다.

그 글발은 마치 너는 왜 노래를 모르느냐고 소대원들의 가슴에 무엇이 간직되어있고 그 가슴이 어떻게 끓고있는가를 여적 모르느냐고 사정없이 나의

뺨을 후려갈기는것만 같았다.

나의 가슴은 바위를 안은듯했다.

그날밤 나는 잠을 이룰수 없었다.

나의 랑심은 이렇게 물었다.

(소대원들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고 그들이 노래를 부를 때 나도 함께 불렀던가. 은순의 말대로 갯에 들어서기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먼저 들어서는 소대장으로 일해왔던가.)

나는 대답을 할수 없었다.

《돌격》이요. 《비상전투》요 하고 목이 쉬게 웨치기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나는 이때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

《소대장동무, 그날부터 내 작업복웃주머니에는 담배갑이 미처 돌아가지 못한적은 있어도 은순이가 준 노래집이 떠난적은 없었소. 그리구 거울앞에서 웃는 연습을 했다고 하면 끝이들지 않을수도 있는데 그건 사실이요. 그날부터 유동무의 뒤주머니에 쥐여 박혀있던 하모니카가 그칠줄을 모르고 썩강져렸소. 막장이 떠나갈듯이...

소대원들이 부르는 노래소리에는 나의 목청도 합쳐졌고 호탕한 웃음소리에는 나의 웃음소리도 섞여있었소. 그 노래와 웃음속에서 나는 지금껏 보지 못하던 또 보려고도 하지 않던 새로운것을 보게 되었소. 유동무는 압축기 바람을 1.5배로 끌어올릴 기술혁신안을 내놓았고 송동무는 정알을 자체로 재생시킬 방도를 찾아냈소. 이마를 맞대고 며칠밤을 모대긴 우리는 땀뻘던 매듭을 풀어내고야 말았소.

제자리걸음을 하던 굴진이 두배, 두배반으로 뛰어들었다. 지금도 역시 그렇구.

하기에 나는 일꾼들에게 갯에 들어서기전에 사람들의 가슴속에 먼저 들어갈것을 강경하게 요구하오. 내가 하고싶은 말은 이것이 전부요.》

《갱장동지 명심하겠습니다.》

신임소대장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쿵- 쿵

둔중한 남포소리가 방안을 드르륵 울린다. 우리는 함께 사무실을 나섰다.

눈부신 해살이 쏟아져내린다.

지금쯤 휴게실에 모인 소대원들은 갯이 떠나갈듯 춤노래판을 벌렸을것이다.

나는 새로 온 소대장과 함께 막장으로 향했다. 걸음은 날듯이 가벼웠다.

탄부의 영예

최욱

따뜻한 봄날이다.

길가의 가로수는 하루가 다르게 푸르려져 간다. 화창한 일요일이다.

나는 세 동생을 앞세우고 거리에 나섰다. 거리는 탄부들로 흥성거린다.

탄부도시의 숨결은 어디서도 이채를 띤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석탄증산을 위하여!》

키돋음을 하는 고층건물들에 나불은 구호가 그대로 우리 탄부들의 웨침인듯싶다.

《뽕》경쾌한 기적소리를 울리며 떠나가는 기관차의 차량마다에 해빛을 받아 번쩍이는 석탄이 가득가득 실려있다.

거리에 오가는 사람들의 인사말도 석탄이야기다.

《여 김동무 어델 그리 바빠 가나,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우리 소대 명팔동무 오늘 장가간다네.》

《명팔이라니? 탄광축구팀 왼쪽날개말인가?》

《그건 영팔이네. 아니 그 지난해에 13 호 채탄장에서 석탄생산으로 이름 날린 제대군인 팡크병 있잖아.》

《오호 그 친구 엉큼한데, 짝은 누구게?》

《등잔밑이 어둡다구야, 자네네 갱에 운전공일세.》

《기대관리를 알뜰히 해서 석탄생산에 크게 기여했다구 방송에 나온 그 순실동무하고? 그러니 탄부가정, 혁신자부부가 태어난셈이군.》

어디서나 사람들의 가슴을 부풀게하는 석탄이야기다. 흥겨운 로동이 즐거운 휴식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또 보람찬 창조로 꽃피어나는 평범한 나날이다.

그래도 그 모든것이 나에게 정겨웁게 안겨오고 정겨운 그 모든것이 나의 마음을 하냥 즐거움으로 높뛰게 한다. 그것은 나 혼자 마음이 아니다. 부풀어오르는 마음처럼 가벼운 걸음으로 앞서 걷는 세 동생도 유쾌한 웃음속에 즐거운 이야기꽃을 피운다.

아직 구김살 한번 가본적 없는 탄부제복을 입고 나선 둘째동생, 그는 얼마전에 탄부대렬에 들어섰다. 학생모자를 쓰고 오가던 정든 거리건만 어엿한 탄부로 자라난 오늘 그

에게는 모든것이 다 새로웁게 여겨지는듯 자주 두리번거린다. 아마 이름할수 없는 기쁨과 자부를 안겨주는듯 그의 어깨가 한껏 높아진듯싶다. 걸음새마저 림름해졌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석탄증산을 위한 보람찬 초소의 영예로운 전사가 되었음에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올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화력을 집중하여야 할 부문은 석탄공업입니다. 석탄은 우리 나라 주체공업의 식량이며 석탄생산을 빨리 늘이는것은 모든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돌파구입니다.》

우리 시대 인간들은 삶의 기치도 행복의 참뜻도 바로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영광스러운 충성의 한길에서 꽃피워나가는것이다.

나는 걸음을 다그쳐 동생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주교받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었다.

갱적으로 분기석탄생산계획을 보름 앞당겨 끝낸것이 자기 소대의 자랑인듯싶어 서로 열을 올리고 있었다.

즐거운 승강이를 하면서 어느새 거리 중심에까지 가달았다.

우리 탄부들을 고무하기 위하여 중앙예술인들이 축하공연을 한다는 선전판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기쁨을 금치 못해하고있었다.

우리의 걸음은 자연히 회관쪽으로 옮겨졌다.

즐거움에 넘쳐 까치걸음으로 앞으로 달려나갔던 막내동생이 무엇을 보았는지 되돌아 달려왔다.

《형님, 탄부좌석이라는것이 무엇인가요?》

《탄부좌석이라니?》

나는 그만 어리둥절해졌다. 그러자 막내동생은 나의 손을 이끌고 앞에 건물로 데리고 갔다. 아래층이 온통 유리로 된 리발판이었다.

《저기 저 있지 않아요.》

그가 가리키는것은 리발의 자에 빨간 글씨로 《탄부좌석》이라고 쓴것이다. 뒤따라 온

두 동생이 호기심이 나서 들여다보다가 그만 크게 웃고말았다.

나는 웃을수가 없었다. 평범하고 레사로운 것 같은것이지만 생각할수록 그속에 담긴 뜻을 두고두고 깊이 음미해 보게 되는것이다.

상점이나 식당, 회관이나 찻차칸 그 어디에 가도 탄부에게 우선권이요 그들에게 제일 좋은것이 차례진다는것이다. 어찌 그뿐이랴.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지성어린 지원과 성원의 손길아 이 탄부도 시에로, 수천척지하막장에도 이어지고있다.

국제무대에서 명성을 떨친 명배우도 이름있는 의사도 탄부도시를 찾아온다.

탄부들을 위해 자기들의 지혜와 능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저 멀리 재령나무리벌의 옥백미도, 천리 어장에서 잡은 물고기도 제일 먼저 우리 탄부들에게 차례지는것이니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우리 탄부들이 그 무엇이나 제일 선참으로 우대를 받는것이 아닌가.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된다. 얼마전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중한 채탄기를 받던 날 우리 갱 박아바이가 하던 말을...

탄폐중에 걸려 신음하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탄광에 나가기 시작한것은 열다섯살 어린 나이였다. 자식들에게만은 탄부의 불우한 운명을 걸머지우지 않으려고 아버지는 매를 들고 막아나섰다. 어머니마저 뼈마디가 여물지 않은 어린 아들의 손목을 잡고 눈물로 하소하였다.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로서니 어린 네가 피땀으로 벌어 온 돈으로야 살겠느냐고.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쓰던 간데라를 고역의 숙명처럼 받아들고 나서지 않을수 없었다. 앓는 아버지와 배고파 우는 어린 동생에게 따뜻한 죽 한술이라도 건네이지 않으려면...

허나 가혹한 현실은 그의 가룩한 정성도 무참히 짓밟군하였다.

간데라를 입에 물고 개가죽을 댄 무릎으로 기어 나와야 한다. 힘겨운 길, 길 아닌 오소리굴로 그는 도저히 석탄 한 《학교》씩 지고 나을 힘이 없었다. 《학교》가 차지 않았다고 심장놈을 두번씩에 패쪽 하나도 주지않군하였다. 너무도 억울하였다. 한 《학교》이 패쪽 하나인데 아무리 《학교》가 차지 않기로서니 두개를 합치면 한 《학교》반

도 넘을터인데.

손을 내밀고 패쪽을 내라고 졸라대군했다. 그럴 때면 《개발같은 손을 어데 내대고 그래, 덜된놈의 새끼》하며 딱따구리망치끝으로 어린 동가슴을 밀어젖히군하였다.

그것이 너무도 뼈에 사무쳐 지금도 가슴아픈 상처를 안고 이야기하는 박아바이였다.

《탄을 캔다고 사람이 아니라 개나 돼지 취급을 받던 우리 탄부들이...》

그날 아바이는 고마움에 목이 메여 말을 잇지 못하였다.

하지만 우리모두는 뜨거운 마음으로 그 고마움을 되새기었다. 석탄을 주체공업의 식량으로 여기시며 그 전선을 말아나선 우리 탄부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뜨거운 사랑을 다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한량없는 은덕을 받으며 살며 일하는 우리들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이 세상 또 어데 있으랴.

참으로 지난날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고 지리 억눌리우고 못살던 우리 탄부들을 영광의 맨 앞자리에 내세워주시는 그 사랑 그 믿음을 무슨 말로 다 헤아릴수 있으랴.

《탄부좌석》-무심히 스치는 그 한마디 말속에도 우리의 복된 삶이, 보람찬 노동의 영예가 노래처럼 울리고있는것이다. 이 행복, 이 영예를 안고 사는 우리 탄부들이기에 그 어떤 어려운 일도 아름답찬 과업도 기꺼이 맡아나서 끝까지 해낼 새로운 신심에 넘쳐있는것이다. 그래서 갓 탄부대렬에 들어선 동생도 저렇듯 가슴펴고 자랑스레 활보하는것이 아니라. 아니, 그만이 아닌 이 거리를 오가는 모든 탄부들의 가슴마다에는 그 누구보다도 크나큰 자랑과 긍지가 사품치고있는것이다.

부의 자랑! 그것은 누구도 쉽게 누릴수 없는 크나큰것이다. 이 크나큰 자랑과 영예를 빛내여 나가는 충성의 한길우에 우리의 행복이 꽃피나는것이다.

탄부들로 불비는 회관앞에서 막내동생은 선망의 눈길로 나를 지켜보았다.

《형님! 나도 빨리 탄부가 되었으면...》

《그래 우리모두가 탄부가정이 되는것보다 더 큰 자랑은 없다.》

나의 말도 저으기 떨리었다.

우리 네 남매는 가슴부풀어오르는 자랑을 걸음을 다그쳤다.

탄전을 지켜가는 사람

주성준

휴계실은 입갱준비를 끝낸 탄부들로 흥성거렸다. 채탄소대장 전상복은 언제나 그리하듯 소대원들과 보람찬 하루전투를 벌린다는것으로 마음이 든든해져 그들을 더없이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젊은 축들은 불깃불깃한 얼굴들을 두리번거리며 어서 자리를 뜨고싶어 들썩거리는가 하면 운전공 처녀들은 또 저희들대로 모여앉아 무엇인가 재미있게 소곤거렸다.

하루전투와 관련하여 간단히 몇마디 말하려고 일어서던 전상복은 1호 강력벨트운전공인 화숙이가 보이지 않아 다시 주위를 돌아보았다.

《1호 강력운전공이 어디 갔소?》

《…………》

소대장의 물음에 누구도 답변하지 않았다. 탄부들은 저희들은 알수 없다는듯 몇마디 말을 주고 받더니만 조용해졌다.

전상복은 연신 창박을 내다보며 손목시계를 가늠해 보는것이였으나 화숙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이 어느때이게 이렇게 늦잡는것일가…)

화숙을 더 기다려 내지 못한 소대장 전상복은 오늘 채탄작업에서 지켜야 할 문제들을 짚어서 말한 후 입갱을 선포하였다. 그러자 소대원들은 전투명령을 받은 전사마냥 갱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갔다.

갱은 입갱을 서두르는 탄부들로 붐비었다. 갱앞에 세워놓은 방송차에서는 새로운 전투어로 부르는 취조악의 장엄한 노래소리, 방송원의 격조높은 웨침소리가 찰랑찰랑 울리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석탄증산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석탄공업에 힘을 집중하여 석탄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탄부들의 얼굴마다에는 당의 전투적부름에 충성다할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였으며 신심에 넘쳐있었다.

갱앞에는 하늘색바탕에 흰줄로 띠를 두른 경쾌해보이는 인차가 섰는데 빨간 안전모를 쓴 탄부들이 먼저 오르려고 서둘렀다. 마당에서는 탄부들의 입갱을 축하하는 탄광일군들, 가두 녀인들과 지원자들이 북과 팽과리를 두드리며 춤을 추었고 인차장으로 들어서는 탄부들에게 꽃다발과 꽃보라를 뿌려주었다.

동쪽하늘은 떠오르는 해빛을 받아 한껏 붉어졌다.

안전모를 푹 눌러쓴 전상복은 키도 후리후리한데다 너부죽한 얼굴에 큼직한 코며 무거워 보이는 입으로 하여 그 어떤것이 들이닥쳐도 끄떡하지 않을 듬직한 인상을 주었다. 그는 인차가 몇번이나 들어가도록 소대원들만 먼저 들여보내고 자기는 그냥 서서 휴계실쪽만 바라보군했다.

마침 휴계실쪽에서 키가 상큼한 처녀가 빨간 안전모를 급히 쓰며 무엇을 잔뜩 싼 꽃보라지를 들고 뛰어왔다.

그제야 전상복은 마음이 놓이는듯 빙글썩 웃는 낯으로 바라보았다. 소대장의 눈길과 마주치는 순간 화숙은 머리를 숙인채 여간만 미안해하지 않았다.

전상복은 몇걸음 성큼성큼 다가가 보자기를 당겨 쥐며 부드러운 어조로 《자, 덤비지 말구. 숨을 태우구… 이게 뭘데 힘들게 들구오나?》하고 물었다.

그 말에 화숙이가 어색하게 대답했다.

《저 기대정비소대도구입니다. 소대원들한테 나누어…》

《기대정비도구! … 이걸 들구오느라구 늦었구만. 참…》

그 말이 얼마나 반가운지 전상복은 자기가 지금까지 그를 안타깝게 기다렸다는 생각은 깡그리 잊어먹고 말할수 없이 기쁘기만했다.

화숙이와 함께 인차에 오른 전상복은 궁금하여 보자기를 무릎우에 놓고 그것을 헤쳐보았다. 그안에는 하야 걸레며 자루가 짙막한 먼지털개, 부드러운 쪽새뿌리를 다듬어서 만든 술이며 밀대 등이 차곡차곡 쌓여져있었다.

며칠전 기술학습때였다.

유압뿔프원리도를 흑판우에 걸어놓고 한창 설명해 나가던 그는 설비를 자기 눈동자와 같이 아껴야 한다고 강조하였던것이다. 군대가 무기를 다루듯이 …

벌써 소대원들이 발동되기 시작한것이였다.

이 아침 전상복은 비록 큰것은 아니지만 쪽새풀 뿌리이며 먼지털개를 통하여 기대를 사랑하는 청년들의 불같은 뜨거운 마음이 안겨왔다. 이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꽃피워주기 위해 힘껏 일하리라 마음먹었다.

사실 청년들은 자기네 소대장 전상복을 무척 따랐으며 더우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가 살아온 지난날에 대하여 묻곤하였다. 그러면 전상복은 아홉살때부터 지주집의 소작밭에서 허리가 개화장처럼

굽어들도록 일했다고 울적한 심정을 안고 말했다.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용약 의용군에 입대한 그는 대구, 마산에서 미제와 이승만대국역도들을 통쾌하게 때려부셨다고 긍지높이 말하기도 했다.

정전후 군대에서 제대된 그는 이곳 탄광으로 자원해서 달려왔고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소대장이란 직무와 함께 지내왔다.

20년나마 이 청남지구탄광 그 어디나 안가본데가 없었다. 1961년 립석탄광에서 채탄소대장으로 일하던 그는 참모부의 지시에 의하여 새로 개발하는 태향탄광으로 갔었다.

막장조건은 어려웠다. 처음 개발한 갱이다보니 기술적장비도 부족했고 물이 쏟아져나와 생산을 정상화하기에는 여간만 어렵지 않았다.

소대원들이 주저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설수 없었다. 련속천공, 련속발파로 매달계획을 1.5~2배로 넘쳐했다.

그에게 높은 국가수훈이 차례지고 또한 국가행사에도 참가하는 영예가 차례지군했다. 재작년에 이곳 삼천포탄광으로 온후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채탄기가 놓인 채탄장에서 일하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20여년간 소대장의 직무를 맡아 수행하는 과정에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며 어렵고 힘든 모퉁이를 먼저 막아서군하였다.

때문에 소대원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먼저 말아나서 하려고 했다.

전상복을 리해하는 사람들은 탄부들이다. 갱은 사람들에게 명확한 결심과 민첩한 해동만을 요구한다.

동발을 세우고 광차며 벨트콘베아가 썩썩 달리는 현장에서 언제 긴말할새 없고 또 그렇게 할 장소가 허락치 않는다. 오직 엄격한 요구성과 그것을 말없이 실천할 강한 인내력만이 필요할뿐이다.

《기대를 돌려라.》 《썰기를 먹여라.》 《발파, 대파...》 이 과정이 부단히 반복되고 이것이 곧 석탄생산과정이기때문이다.

사람이란 반드시 어느때든 자기자신을 알게 되는 때가 있다.

나라에서는 능률높은 새로운 채탄기를 보내주었다.

그것은 우리 탄부들이 흥겹게 석탄을 캐라고 보내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깃든 귀중한 설비였다.

그처럼 귀중한 기대를 다루는 사람들,

그들의 심장에 충성의 불을 지필 때 소대장으로서는 자기 본분을 다하고 당의 뜻을 받들수 있다는것을 그는 뜨겁게 느꼈다.

지금은 어제날처럼 나무동발이 아니라 무쇠동발

로 천정을 떠받들고 채탄기로 석탄을 캐며 그것을 벨트콘베아로 운반한다. 이렇게 되니 탄부들은 스위치나 누르고 기대감시나 하면 된다.

때문에 소대장은 기대의 주인들이 뜨거운 마음을 안고 보살피야 기대가 만가동되고 석탄은 끊임없이 폭포처럼 쏟아진다고 소대원들을 일깨워주군하였다.

그들의 하루일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막장에서는 채탄기가 쉬임없이 돌았다.

이런 때 소대장 전상복은 한자리에 조금도 서있을 틈이 없었다. 기계화 장벽 백수십미터구간을 쉬임없이 오르내려야 했다.

눈썹리 모자라게 아득히 세워진 유압동발들, 장벽 천정을 일매지게 떠받든 유압들보들이며 기둥마다에서 뿜어져나오는 파르스름한 불빛... 그앞에서 무한케도뜨락뜨락처럼 생긴 채탄기가 장벽에 원통식 보습을 부르며 채탄기를 몰아가는 운전공의 모습이며 강물처럼 흐르는 석탄을 바라볼때마다 전상복은 당의 은덕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질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언제나 왕성한 정력으로 본때있게 일을 해제끼는 그로서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이 많다고 한번도 뒤로 물러선적이 없다고 은근히 자부심을 가지고있었던것이다.

참으로 일할수록 더 일하고싶고 석탄이 폭포처럼 쏟아지는것을 볼때면 이루 다 헤아릴수 없는 보람을 가슴뿌듯이 느끼게 되는 그였다.

정말 예로부터 석탄 캐는 일이 고역이라는것이 사람들의 머리속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의 흠집으로 남아있던것이 지금은 흥겹고 즐거운 일로 전변된것이었다.

그는 생각하면 할수록 자꾸 가슴이 뜨거워 그저 하루종일 즐거운 생각에 파묻혀있게 되었다.

전상복은 흐뭇한 생각을 안은채 채탄기를 조작하는 운전공 금철의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자기도 모르게 불안해져 다시 운전모습을 지켜보았다.

어째서 짧은 시간에 석탄이 더 많이 떨어지도록 위치를 정확히 선정하지 못하고 원통보습을 공연히 앞으로 내밀고 울러밀면서 불안하게 운전하는가?

이따금 장벽에서 석탄덩어리들이 떨어졌다. 장벽 상태가 좋지 못했다.

그런데 운전공은 장벽머리부초소에서 앞으로 나가는 채탄기 속도에 맞게 머리부를 이동하지 못해 찢찢매고있는것이였다.

전상복은 정황이 급하다는것을 알고 그쪽으로 달려갔다. 아직도 수평이 되지 않아 초소성원들이 들볶이는것을 본 그는 제가 직접 유압변을 잡고 조작했다.

그런데 이때 채탄기가 영문없이 멎는것이 아닌가!

전상복은 가슴이 섬찔했다. 어쩌서 채탄기가 멎는가. 그가 다시 채탄기로 달려가보니 운전공이 옷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다 실망한채 자기 눈치만 살폈다.

채탄기는 원통보습이 장벽에 폭 박힌채 서있었다. 들여다보니 런결치차가 순간부하를 이기지 못해 이발이 떨어져나갔던것이다.

전상복은 조금도 지체할수 없이 즉시 예비품통에서 부속품을 꺼내어 갈맞추었다.

채탄기는 다시 돌아갔다. 운전대를 잡은 그는 채탄기속도와 원통보습의 상하위치를 능숙하게 조절하면서 기대를 운전했다. 얼마간 애플 먹이던 구간이 극복되었다. 석탄을 폭포처럼 떨어던 전상복은 뒤따르던 다른 운전공에게 운전대를 넘겨주고 이쪽으로 왔다.

금철은 자기앞으로 소대장이 오는바람에 눈치를 살피다 일어섰다.

전상복은 엉겨주춤 서있는 금철에게 스스럼없이 《담배불을 인내게.》 하며 손을 내밀었다. 담배불을 받아쥔 그는 불만인지 노여움인지 심상치 않은 눈길로 금철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기대점검을 매일 빠짐없이 했소?》

《했지요...》

《그럼 왜 고장원인을 발견 못했소?》

《...》

금철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이고있었다.

전상복은 금철이가 기대점검을 했다고 말은 하지만 실지 랑심적으로 했는가에 대해서는 불을 보듯 뻔했다.

기대점검을 잔잔히 해야 기대고장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고 또 그래야 기대를 만가동하여 석탄생산을 높일수 있는것이다. 왜 기대점검을 순간이나마 소홀히 했을가.

전상복은 묵묵히 앉아있는 금철에게 조용하나 절절한 어조로 말했다.

《올해 신년사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석탄증산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기대를 만가동하여 그 크나큰 신임과 배려에 보답하여야 하지 않겠소?》

전상복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뜨겁게 울려나왔다. 금철은 자신을 자책하듯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있었다.

전상복은 준렬하게 말했다.

《벌써 다 잊었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이 기계를 받아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그날을 말일세.

그날 하늘같은 은정에 가슴이 뜨거워 울던 동무

가 오늘은 벌써 그것을 잊고있으니 그게 가슴이 아프단말일세.》

전상복은 가슴속에 그 무엇이 가득히 피어오르듯 말을 못하고 그저 가쁘게 숨만 내쉬었다.

배고플 때 밥 한술의 진미를 알고 목마를 때 한 모금의 물맛은 알면서도 뼈심을 들이지 말고 흥겹게 일하라고 베푸시는 그 하늘같은 은정은 왜 모르는가.

손끝 하나도 상할세라 안전모며 장화, 털내의와 비옷... 명절이면 갖가지 식료품과 지어 머나먼 남방과일까지 빠짐없이 보내주시는 실로 친부모도 못할 그 은정을 어떻게 순간이라고 잊을수 있는가.

그러나 전상복은 그 누구에게 이런 물음을 던지기전에 자신의 심장에 손을 대보지 않을수 없었다.

자신이 이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으며 또 그들을 제때에 일깨워주고 이끌어주었던가. 그렇지 못한 자신을 두고 깊이 자책하게 되었다. 그래두 당에서 가장 아끼고 가장 값높이 세워주는 사람들을 책임진 소대장이 아닌가.

그날저녁 전상복은 짐으로 들어가지 않고 탄광설비보수사업소를 향해 떠났다.

출근할 때부터 찢어찢던 하늘에서는 언제부터 눈이 내렸는지 발등이 잠기도록 쌓였다. 아직도 눈이 푸실푸실 떨어졌다. 오늘 써버린 예비부속품을 한 시바삐 보충하기 위해 가는 길이었다.

그가 가공직장에서 부속품을 가공해가지고 밖에서 나섰을 때는 밤도 퍼그나 깊었다.

그가 다시 소대휴게실로 달려오니 창문이 환하게 불이 켜져있었다. 이상한 생각이 든 전상복이 휴게실나들문을 열고 들어서니 바로 금철이가 무슨 도면과 노트를 펼쳐놓고 머리를 싸쥐고있는것이 아닌가. 그도 자기가 저지른 일을 두고 모대기던 나머지 끝내 퇴근하지 못하고 기술학습에 열중하고있는것이였다.

전상복은 그가 안고있는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문이 열리는바람에 얼굴을 들었던 금철은 종이에 쓴것을 어깨에 메고 방안으로 들어서는 소대장을 보고 놀라며 달려나왔다.

부속품을 맞들어 놓던 금철은 그것이 자기 부주의로 교체한 예비부속품이라는것을 알았다.

그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감동의 빛이 질게 어린 그는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소대장동지, 그럼 저때문에... 그 먼데를!》

《일없소. 우리가 석탄생산을 높이는 일이라면 어딘들 못가겠소...》

그저 난 동무가 애쓰는걸 보니 더 기쁘구만...》

소대장은 진정으로 기뻐 얼굴에 즐거운 웃음을 띄우며 말했다.

그 기쁨으로 해서 전상복은 일순간에 피로도 다 잊어버린 듯싶었다.

전상복은 다시 그의 옆에 앉으며 정겨운 소리로 말했다.

《그럼 우리 같이 도면 학습을 하자구.》

《밤이 깊었는데 또 저때문에!...》

금철은 더 말하지 못하고 말았다.

정말 고마운 소대장이었다.

티끌만치도 가식을 모르고 자기의 모든것을 다 해 아글타글 도와주고 뒤반침을 해주는 그가 얼마나 고맙고 믿음이 가는지 금철은 생각할수록 가슴이 뜨거웠다.

그날 금철은 각이한 장벽에서 원통보습의 깊이 조절과 속도 결합, 그리고 유압계통이며 있을수 있

는 고장 등 몇년을 두고도 미처 알지 못했던 귀중한것들을 모두 알수 있었다.

그후 며칠이 지나 분기계획을 끝내는 날이었다.

채탄기며 콘베아 등 모든 기대는 만부하를 걸었다.

전상복은 채탄기머리초소, 꼬리초소로 부단히 이동하면서 걸린 문제를 제때에 예견성있게 풀었다.

석탄장벽도 좋았다.

《보습날을 꼭 박아라.》

전상복의 환성을 터치듯 소리쳤다. 운전공 금철이 조작변을 당기자 채탄기원통보습이 불빛에 번쩍 번쩍 빛나며 검은 석탄장벽을 와드득와드득 물어 뜯었다.

보습날밑에서 석탄이 폭포처럼 끊임없이 떨어지며 장벽콘베아에 실려 강물처럼 흘러갔다.

탄부의 집

오영환

새집들이 한 탄부도시여
이 밤에 내리는 함박눈과 함께
내 들여다보노라
행복한 창문들을

거울을 걸어놓을 자리
옷장을 들여놓을 자리
젊은 탄부 어이 모르랴만
사랑하는 안해와 의논하누나

주소도 새로운 집
새 며느리 도우러 온 어머니도
집안에 탄부 세대가 여기서 시작된다고
아들의 탄부복을 다시 걸어보누나

새 고장에 자리잡고 웃어보는
그 마음들이 보배롭구나
백년을 내다보고 천년을 내다보며
모든것 제자리에 정하였구나

안주탄전의 억만 보화우에
삶의 보금자리를 정하고
땅밑의 탄맥이 끝나는 날까지
제대군인탄부 여기서 살련다

나서 자란 고향도 꽤히 떠날줄 알고
어머니슬하도 떠날줄 아는
참된 삶의 그 자욱자욱
당의 바름에 귀기울이며 살련다

아름다워라
제대군인탄부여
혈치 않은 나날로 한생을 엮으려는 마음
이를데 없구나 참된 그 맹세

아들을 낳아도
그 맹세를 물려주고
딸을 낳아도
그 맹세를 이어주려누나

아, 탄부의 집은
땅밑의 보화보다
땅우의 보화가 더 많음을
나에게 깨우쳐주누나!

영웅들을 낳으라
나라의 보배들이 사는 집이어
영웅들을 키우라
아버이수령님 지어주신 사랑의 집이어

련시

탄전에 별들은 빛난다

새 진군의 궤도우에
달리는 차창가
별을 지나 건설장을 지나
우리 시인 세사람
길을 떠났네

수령님 펼쳐주신
석탄전선을 찾아가는
홍분에 찬 가슴
열정에 불붙는 마음

탄전에 뿌리내리어
탄전의 주인
돌파구를 열어 가는 제대군인들
눈앞에 그려보며
우리 마음 달음쳐 갔네
우리의 사색은 나래를 뿔네

지하천길막장으로
석탄폭포 쏟아지는 채탄장으로-

수령님과 탄부

오피천

하늘의 별들도 설레이며
기쁨을 속삭이는 행복한 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잠들줄 모르는 탄부도시의 밤

한 탄부를 기다려
시간은 얼마나 흘러갔는가
밤은 깊어
돌아가실 시간도 지났건만
제대군인 탄부의 집에서
종시 떠나실줄 모르시는 수령님

집에 들렀다 그냥 가면
얼마나 서운해 하겠는가
그래서 머무르기를 얼마
퇴근시간도 되었는데
기다렸다 만나보고 가자시며
그래서 또 시간은 가...

못내 보고싶으신듯
다시 그 이름 불러보시고
일을 많이 한 동무라고
다시 또 칭찬해주시는
고속도 굴진소대장

아, 사람의 한생애
이런 밤이 몇이나 되던가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시간이

달빛 타고 흘러가는 한끝
지하천길막장에서
탄부야, 그대는
왜 이리도 돌아오지 않느냐

언젠가는 그가
탄전에 배낭을 풀어놓은 날로
제대군인소대를 무어
일을 잘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못내 만족해하시고

또 언젠가는 그가
《안주속도》의 창조자로
세계의 굴진기록을 펼친
그 위훈이 자랑스러워
친히 축하문을 보내주시고
30대의 젊은 소대장을
나라의 대의원으로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

아, 그 은덕이 고마워
자나깨나 맘속에 우려했던
수령님께서 너의 집에 어셨는데
탄부야, 그대는 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느냐
어서 한달음에 달려와
수령님 품에 안기거라

이윽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창가로 걸음 옮기시는 수령님
멀리 한눈에 안겨오는
탄전을 오래도록 지켜보시여라

급히 갱구를 나서
안전모를 벗어 들고 달려오는
탄부를 대견히 바라보시는가
엎어질듯 달려와 안겨 드는
그를 한품에 안아주시는듯

창문을 활짝 열으시며
환히 웃으시는 수령님

아, 탄전의 주인으로 자란
제대군인 탄부들을 한품에 안아주시는
위대한 사랑의 품에 안겨
행복이 설레이는 밤이여
탄부도시의 못잊을 밤은
이렇게 깊어가고있었다

80 년대의 별

-차광수청년돌격대원들에게-

여기서 보는구나
내 언제나
맘속에 그려보며
맘속에 따르던
청년전위들의 모습

여기서 돌는구나
내 항시
작은 심장에 담아보며
가슴을 뚫게 하던
청년전위들의 숨결소리를

천길막장 한끝에서
채탄기 틀어잡고
탄의 장벽을 헐어 가는 모습
안전등불빛에 번쩍이는
이마의 진한 땀을
내 마음 말없이 씻어주노라

한마구리 보기 좋게 털어놓고
시원히 웃는 사나이들의 모습
내 두팔 벌려
한품에 그려안노라
그렇게도 동경해 오던
청년전위들의 그 손을
내 한번도 잡아주지 못했거늘

막장이 떠나갈듯
당중앙 우러러
선서의 구령높이 추켜든 손은
한별을 지키자고
손과 손을 더위잡던
청년전위들의 그 손길인듯

사태처럼 석수 쏟아지는
불뿔는 화구같은 물구멍에
한품을 내대여 막장을 지켜낸
채탄공의 그 모습은

이역의 만리광야
혈전의 마지막언덕에서
한몸 육탄이 되어
위대한 한별을 받든
차광수의 그 모습이여라

한줄기 비껴가는 동음도
청년전위들의 뉘트로 울리고
한치 또 한치
탄벽을 밀어 가는 걸음도
전위들이 걸어간 그 길로 이어지며
30 년대의 숨결이 고동치는
조국의 막장

그 심장에서
석탄의 돌파구를 열어
영광의 80 년대를 빛내이려는
당중앙의 결심을 받들어 갈
열정이 용암처럼 끓거니

그 열정이 끓어
당중앙을 받드는
무쇠동발이 되고

그 심장이 불타
당중앙을 옹위해 가는
지하전초병이 되어

막장가득 빛을 뿌리는
80 년대의 별들

아, 여기서 보는구나

내 한생 따르며
생의 길 빛내어갈
향도성의 불변한 위성들
80 년대의 차광수들!

막장 한끝에 있어도

조빈

스스로 결심을 풀고
앞서가는 사람들이여라
제대군인탄부
불을 안은 사람들이여라

우뢰 치는 절삭날에
숨결을 주고
사태치는 탄 폭포에
가슴 쿵쿵 높뛰는 그들

오, 안전등의 빛발에
이글대는 눈빛을 보라
피끓는 심장이 내 비껴
떨떨 이는 불

탄
탄을 웨쳐 부르는
목소리도
내 뿜는 불

불이 이는 눈빛
타는 심장
뜨거운 웨침이
탄, 탄을 그려안았구나

그러안고 숨결을 주고

심장을 옮겨 지퍼
탄
탄은 온통 숨쉬는 불-

그 불
새움트는 봄날인양
땅우에 천리 빛발을 날리고
나뭇기는 기폭인양
철의 기지 하늘가에 불노을 펼치여라

총잡은 그날 지켜온 땅우에
당의 부름 따르는 병사의 자세로
심장을 받쳐들어
조국은 불야경 꺼질줄 모르는가

오, 탄부
신성한 그 이름 지녀
앞서가는 걸음 없인
달리 살줄 모르는
오, 불을 안은 사람들!

그 누가 보지 않는
수수백길 막장 타올라
외진 마을 작은 창문조차
불빛은 밝게 눈부시여라

막장의 포도송이

탄이 실려 흐르는 벨트우로
동발에 주렁진 송이송이 포도송이
고향의 포도밭 에서 보는듯
제대군인탄부 걸음을 멈추었네

푸른 물 들어여 청신한 잎새
알알이 빛어 망불한 포도송이

하도 희한해 처녀에게 물었더니
가볍게 흘기는 눈길- 그것도 모르는가고

어찌 알랴 제대군인탄부
탄전태생인 운전공처녀가
탄전에 그의 고향 옮겨주고싶어
송이송이 만들던 달빛어린 그 창가

어찌 다 알라 쉬이는 열지 않던
 처녀의 가슴속 소중한 자리에
 탄전에 뿌리내릴 그의 마음 받아준줄
 아직은 못한 말 송이송이 맺힌줄

어찌 다 알라, 운전공처녀도
 초소의 밤, 동트는 하늘가에
 장엄하게 열리는 조국의 새벽을
 후더운 가슴으로 안아 보던 옛 초병을

그래도 청춘의 가슴들은 뜨거워
 마주치는 눈길의 속삭임도 뜨거워

속깊은 제대군인탄부
 탄전태생의 숫된 마음 이제는 알아

《나한테 한송이 주지 않으려요?》
 《가지세요. 동무네 고향건데...》
 처녀의 가슴에 남아 못다할 말
 제대군인탄부는 알아들었네

한생을 언약하는 사랑의 뿌리우에
 청신한 열매 주렁진 막장은
 시들줄 모르는 청춘의 탄전
 너와 나 우리의 고향이라고

제대군인탄부들에게

변홍영

갱도속 굽이굽이
 오르며 내리며 십리길
 안전등 불빛을 앞세우고
 내 들어선 채탄장

빛과 열을 내뿜으며
 우뢰가 태어나는곳인가
 눈앞에서
 절삭날은 소리치며 돌고
 석탄은 번쩍이며 쏟아져내린다

참으로 절찬 사나이들의 일터로다
 시대를 안은 큰 심장이
 여기서 숨쉬는듯
 탄의 장벽을 허물어 내리는
 번뜩이는 눈빛들
 용을 쓰는 채탄기소리...

내 벽차오르는 흥분을 안고
 뜨거운 놀길로
 그대들의 땀젖은 어깨를 어루만진다
 한해전에 초소를 떠나
 병사배낭을 이곳에 풀었다는
 제대군인탄부들

어느새 벌써 풍성한 탄밭에 뿌리내리고
 것처럼 벽찬
 삶의 희열을 터치는것이나
 대자연의 숨결을 틀어쥐고
 억센 슬기를 펼쳐 가는것이나

아, 당이 가리킨 돌파구
 병사가 서야 할 최전선
 여기를 떠난 다른 삶은 몰라
 나서자란 푸르른 강변...
 어머니 기다리는 정든 집...
 그토록 그림던 상봉도 뒤에 두고
 탄전으로 달려온 그대들

진실로 삶의 뿌리
 탄전에 내리지 않은 사람들앞에는
 백년이 간대도
 가슴을 헤쳐주지 않을 대자연이
 그대들에게 천년 아꼈던
 가없는 탄밭을 내맡겼나니

그대들이 지켜 선 나라의 생명선
 탄을 부르는 모든곳으로
 벨트콘베아는 만부하로 돌고
 온 조국땅을 끌어안은
 그대들의 가슴속에선
 피끓는 심장이 돌격을 웨치누나

오, 정녕 이런 돌파구
 이런 전투장에
 심장을 내대지 않고
 그 어느 유보도 길만을 꿈꾼다면
 어찌 시대앞에 혁명앞에
 뿔뿔이 설수 있으랴

조국땅우에 피 더운 가슴을 대이고
병사가 간직한 량심은
천길 땅속에서도 흐릴줄 몰라

오직 당이 부르는 한길
참으로 청춘이 빛나는곳에
그대들은 사는구나

기적을 울려라, 통근렬차여

기적을 울려라, 통근렬차여
출발을 알리는 신호기처럼
또 하루 우리의 머리에
저 하늘은 노을을 펼쳐 들었네

우리는 가네 이 아침도
당이 부른 들끓는 일터
삼천포로
태향강으로

탄부도시 정다운 창문들이
노을속에 웃으며 우릴 바래고
저 멀리 탄전에 솟아있는 권양탑이
노을속에 손저으며 우릴 부르네

병사시절 습관대로
저마다 정해진 자리를 차지한듯
차창가에 들러앉은 한소대 친구들
어서 선창을 떼게, 우리네 손풍금수

가슴펴고 보무당당히 나아가던
대렬행진에서처럼
노래도 우리는 합창이 좋고
생각도 우리는 꼭같아 좋네

그렇거니 병사배낭 이곳에 풀고
우리 청년돌격대를 못던 날
고향에 가는 휴가마저 미뤘건만
우리중에 딴 생각 품은 친구 있었던가

하루 받은 지령은 병사식대로
언제나 우리 한번 어긴적 없고
암반이 막아서는 굴길에서도
고속도굴진의 첫자리 양보한적 없네

평양시 찾아온 예술인들이
우리네 가슴에 꽃다발을 안겨주고
탄전에 펼쳐진 축하방송무대가
우리네 이름들을 온 나라에 소개할 때

우리는 알았네
석탄의 산악을 쌓지 못하고는
당이 준 심장을 가슴에 지녔다고
우리모두 몇몇이 자부할수 없음을

노래를 울리게 더 높이 더 힘차게
당의 부름 받들어 가는 병사의 길
그 언제든 끝날수 없고
그 언제든 그 길에 우리 살거니

만속으로 달리라
우리네 생활의 렬차여
삼천포로 태향강으로
날마다 오가는 길은 멀지 않아도

우리는 가네, 당을 따르는
충성의 한궤도를 가네
종착점이 없는
종착점이 없는-

맺음시

우리는 보았네 천길막장에서
캐여 내는 한덩이 석탄에도
깨끗한 량심을 비쳐보는
제대군인탄부들을

그들과 함께 갱도길을 걸으며
노래를 불러주고 시를 바쳤건만
우리의 가슴속에 뜨거운 정은 남아

어제도 오늘도
조국앞에 선서한 영원한 병사로
막장에 서있는 그들의 모습을 안고가나니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우리 가고갈 천만리길에
그들의 모습은 별로 빛나리
탄전의 별들은 영원히 빛나리

세월은 흘러도...

리영복

세월은 흘러
지금은 모든것이 변한 땅
그 언제 이곳에
무서운 참화가 있었던가
공원에 꽃들이 다투어 피어나고
새들은 해종일 지저귀다

산천이여, 네 기슭에 서니
언듯 스쳐 가는 한줄기 실바람도
무심히 지나칠수 없구나,
정답고 살뜰한 내 땅이여도
한자욱을 성큼 밟을수 없구나

너의 살진 땅 한치한치에
그토록 이 땅을 사랑한 사람들의 피 스며있고
원한품고 숨지면서도
어버이수령님 우리려 남긴
복수의 당부가 이 가슴을 쳐,

고사리 같은 손들이 콩크리트벽을 허비며
어머니를 애타게 찾던 울음소리
사랑하는 자식을 부르며 웨치던
어머니들의 그 피타는 목소리
상기도 쟁쟁히 들려와

엄마의 젖을 찾던

그 천진한 어린것들 머리우에
휘발유를 끼얹고
살불이를 부르는
그 어진 어머니들의 얼굴에
독가스 뿜어 대며 쾌락을 느끼던
그 살인마들의 흉체가 되살아오는...

그때문에 생활은 꽃피고
행복은 더 해갈수록
비여있는 그네들의 꽃방석이
마음의 칼을 버려주는
오, 신천은 사랑과 증오의 땅!-

백학이 나는 사래긴 벌우에
수정같이 영그는 오곡의 알알도
아지가 휘도록 주렁진 과일의 알알도
백년간의 피맺힌 원쑤- 미제를 향해
총탄이 되어 터져오를 땅이거니

쇠물을 끓이며 오곡을 가꾸며
신천은 불을 품고 솟아있다
어질고 정직한 우리 겨레들의
그 푸른 꿈과 새 삶을 앗아간 원쑤
미제, 복수의 시각을 향해
온 조선은 분노의 피를 끓이고있다

장씨의 소원

박종상

향불을 태우는 연기가 가느다랗고 푸르스름한 곡선의 띠를 이루며 문틈으로 흘러나가고 있다.

다다미 방안에 자욱하니 서린 향내가 목안을 아릿하게 찌른다.

제사상 랑쪽 촛대에 켜진 초불이 거의 다 타들어 바람도 없는데 이따금 가물거린다.

장씨는 벌써 한시간나 제사상앞에 움쭙도 하지 않고 돌사람같이 멍하니 앉아있다.

40 키로그램도 될가말가한 자그마한 몸매, 뒤통수에서 모두어 묶은 하얀 머리채, 주름살이 쪼글쪼글한 약간 동그스름한 얼굴... 흔히 볼수 있는 다른 안 늙은이들과 별다른데 없는 그의 모습이지만 사람의 마음속까지 꿰뚫어볼것 같은 그의 눈만은 류달리 깊은 빛이 돌고 드세여보이었다.

(그렇게 건장하던 령감이 죽다니...)

장씨는 정말 거짓말 같았다. 꿈을 꾸고있는것만 같았다.

방금이라도 령감이 기침소리와 《여봐라》 하는 거친 목소리가 들려올것만 같았다.

그런 그에게는 령감이 제상우 흰보자기에 쓴 자그마한 나무함속에 들어있다는것이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았다.

벽에 걸어놓은 사진액틀속에서 령감이 금시 입술을 쑥 내밀며 《할망이 거기 무얼하고 명칭히 앉아있노. 점방에나 좀 안나가보고》 하며 면박을 줄것만 같았다...

령감의 초상은 성대했었다.

총련조직에서도 상공회에서 조문객들이 왔었고 조국에서도 조전이 왔었다.

령감의 생전생활에 비하면 너무나도 성대하고 뜻깊은 초상이었다.

그것을 생각하면 장씨는 더할데 없이 만족스럽고 자랑스러웠으나 그러면서도 한편 자기를 남겨두고 령감이 먼저 간것이 그지없이 원망스럽고 원통하기도 하였다.

갑자기 주변이 어설퍼지고 쓸쓸하였다.

(그렇게 고생두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 좋은 세상 불라하니 죽다니... 아이구 애석하구 원통해라 ...)

장씨는 가슴이 찢어지는것 같아 또 한바탕 목놓아 울고싶었다.

눈귀에 솟아오른 눈물이 주름살을 타고 흘러내려 입안으로 스며들었다.

령감은 사흘전에 심장마비로 급작스레 세상을 떴다. 일흔두살이었다.

생전에 모두 그를 《런맹아저씨》라고 불렀었다. 조선동포들뿐아니라 일본사람들까지도 《옷상》(총련아저씨)이라 하였었다.

그만 치 그는 어쨌든 어버이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제일조선인 조직이라면 열성적으로 받들고 따랐다. 그저 받들고 따르기만 한것이 아니라 늘 자기 지역에 있는 사무소에서 살다싶이 하였다. 자기만 그렇게 한것이 아니라 그 유명한 고집을 가지고 일가권속들까지 누구나 다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야말았다.

령감은 머느리를 보는데도 처녀의 인물이요. 뽀뽀이요 학력이요 그 집의 살림형편이요 하는 따위는 애당초 묻지도 않았다.

다만 그 처녀가 또 그 가정의 조직에 대한 열성적인 지지자나 많으나 하는 하나만을 물었다. 아니 물었다기보다 따지었다고 해야 옳을것이다.

《좀 열성이 있긴 한데》 하고 사이에 선 사람의 말투가 시원치를 앓으면 《그래》하고 그도 덩덤한 반응밖에 보이지 않았고 《조직과는 별 상관은 없지만 돈은 있는 집이요.》 하면

《조직과 별 상관이 없다면 우리 하고도 별 상관이 없소.》 하고 외면해 버렸으며

《아버지도 총련일군이요 오빠도 우리 학교 선생님이요 어머니도 녀맹이요 본인은 조청이요 동생들은 우리 학교 다니고...》 하면 령감은 무릎으로 앞에 나 앉으며 얼굴이 온통 주름투성이가 되어 흡족해하였다.

《그래, 그래, 응... 그렇구만. 그래 나이는?》하고 그제서야 이야기가 시작되는것이였다.

이렇게 해서 그는 아들 셋, 딸 둘을 다 장가들이고 출가시키고 하였다.

령감은 생전에 고생도 많이 했지만 해방후는 고철장사로 번것을 밑천으로 빠쩡고점이며 영화관을 해서 돈을 적지 않게 벌었다. 그는 지역상공회의의 유력자로서 이 지역에 한교를 건설하는데도 큰 힘을 썼고 총련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애국적상공인이라는 인정을 받고있었다.

그는 가정생활을 아주 검박하게 하였고 아이들도 여간만 엄하게 키우지 않았다. 가족들이 돈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는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딸애 둘이라도 사치품을 못가지게 무섭게 단속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조직이나 학교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할때에는 묵묵히 들고만 있다가 자기 힘이 자라는데까지 역시 말없이 내군하였다.

그는 아들 셋, 딸 하나에 손자손녀 일곱 그리고 언제나 손님들이 가득 들어차 웅성거리는 빠짱고집 하나와 그와는 대조적으로 늘 텅비어있다 싶이 하는 영화관 둘, 몇채의 세집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다.

부고를 받자 아들딸들과 그 가족들이 났을 잃고 부랴부랴 달려왔었다.

초상을 다 치르고 벽적거리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자 집안끼리만 호젓하니 남았다.

이들마저 제각기 자기 집살림때문에 오늘밤 다 돌아가고나면 이 넓은 집에는 장씨와 철이 단 둘이 남게 된다. (철이는 죽은 둘째딸이 남겨놓은 외손자인데 초급학교 3학년생이었다.)

장씨는 갑자기 고적감이 몰려들어 앞뒤를 둘러보았다.

안방쪽에서 유리문 여닫는 소리가 나고 사람들의 조심스러운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소리에 제정신으로 돌아온 장씨는 상밑에서 자그마한 마분지팩을 그리당겨 초를 두자루 집어다가 제상우에 올려놓고 한자루씩 불을 달아 다 타든 초대우에 눌러꽂았다. 그리고는 령감의 사진을 보며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여보소, 적적하게 되지만 저 애들을 돌려보내야겠소. 예.》

그의 머리에는 조금전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금 되살아왔다. 그가 집안사람들이 있는 자리를 떠나 홀로 령감의 유골이 있는 이 방으로 온것도 실은 그 일때문이었다.

조금전 안쪽 방에서는 령감이 남긴 유산을 둘러싸고 자그마한 승갱이가 벌어졌었다.

《어머니, 아버지가 보시던 점방들을 어머니가 보실수도 없을거고 이참에 점방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나도 사업을 너무 벌려놔서 자금회전이 급한때라 돈을 좀 얻어써야겠고... 어머니 나한테 오시면 되는게고... 혼자 있으면 적적해서 아버지 생각만 자주 하게 될테니... 우리 집엔 아이들도 있고 적적하지는 않을겁니다...》

홀렁 벗어진 머리를 전등불에 번쩍이면서 첫째가 말하였다. 아버지의 재산은 웅당 만이인 자기에게 차례져야 한다는 말투였다. 그는 도교에서도 중심가의 하나인 은좌에 부동산회사를 가지고있으나 최근의 불경기에다가 아버지의 자산을 등대고 지나친 사업확장을 한바람에 자금공급이 잘 안되어 쪼쪼매고있었다. 그는 너부족한 코를 벌름거리며 어머니나는듯이 좌중을 둘러보았다.

방안은 갑자기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형님.》하고 그 침묵을 깨뜨린것은 둘째였다. 형과는 대조적으로 후리후리한 몸매에 신경질적인

얼굴을 한 둘째는 도교의 위성도시의 하나인 하찌오지에서 조선로리점을 차려놓고있었다.

《어머니가 형님댁에 가시는건 전 반갑습니다.》하고 둘째는 말을 이었다. 《거기는 상점가가 돼서 소란스러운데 차라리 우리 집에 오시는게 좋을상 싶습니다. 집도 넓고 공기도 좋으니말입니다. 그리고 곤난하긴 우리 집도 매한가지입니다.》

둘째도 첫째처럼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으나 원조를 해달라는것이였다.

《넌 걱정 없잖아. 식당도 그만하면 작은 축은 아니고 경영상태도 비교적 안정되고있으니 말이다.》

첫째가 못마땅한 낫색을 짓고 둘째를 누르려들었다.

《그건 우리 집 형편을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개점때 은행에서 벌린 돈을 리자까지 달아서 갚아면 아직도 멀었는데요.》

둘째가 불부는 소리로 응수했다.

《넌 그래도 괜찮아, 나는 지금 말이 아니야.》

첫째는 최근 확장한 사업을 유지하느라고 수형을 란발한것이 동달이 나서 사실 지금 곤경에 빠지고있었다. 그는 아침에 아무래도 아버지의 유산에서 좀 크게 돌려 받아야 숨을 쉴수 있겠다고 단단히 마음먹고있었다.

《그건 형님이 허욕을 부려 타산없이 사업을 벌려놓은 후파이니 말하자면 자업자득이 아니요.》

그러자 이번에는 셋째가 또 끼여들었다.

《어머니, 난 결혼할 때도 집 한채 얻지 못했어요. 내가 어머니한테 오면 어때요? 어머니도 사시던 집에 그냥 있는것이 제일 마음편할거고 점방도 내가 보면 되잖겠어요. 형님들 생각은 어때요?》

셋째는 형들을 둘러보았다. 그는 아버지의 사업을 잇는다면 지금 다니고있는 신용조합을 그만두어도 좋다고 생각하였다.

《...》

《...》

첫째도 둘째도 어머니의 기색만 살필뿐 셋째의 물음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덤덤히 안장만 있었다.

장씨도 그들의 장사사정을 모르지 않았다.

일본의 경제가 이른바 《석유위기》 이래로 급격히 내리막길을 걷는바람에 그들의 장사일도 어려운 고비를 겪고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령감의 생존시부터 저들의 사업밑천을 좀 보태줄것을 간절히 바랐으나 엄한 아버지에게는 감히 말을 못하고 장씨를 보고만 졸라왔었다.

그러나 막상 자식들의 그런 승갱이를 눈앞에 보느라니 역겨운 생각과 함께 무어라고 형언키 어려운 노여움이 가슴속에 울컥 치밀어 장씨는 그만 움

쪽 자리에서 일어나 령감의 유골을 안치한 이방으로 빠져나오고말았었다.

그런데 노여움을 삭이고나니 이번에는 자식들에 대한 측은한 생각이 밀물처럼 가슴속에 밀려들었다.

마음같아서는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싶었다. 돈이 없는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노여움을 띤 령감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서물거리면서 그의 생각을 막는것이였다.

장씨는 애달픈 눈으로 령감의 사진을 더욱더 바라보았다.

《여보소, 어떡하면 좋겠소 예? 자식들이 돈을 달라고 하는데.》

장씨는 마치 눈앞에 령감이 살아있거나 하듯 마지막 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장씨의 귀에는 령감의 통명스런 대답소리가 들리는듯싶었다.

《그런데 왜 묻소. 내 마음이야 한평생을 같이 산 할망이가 잘 알지 않소.》

장씨는 고개를 끄덕거리었다.

《알고말고... 알고말고...》

불현듯 장씨의 머리에는 령감과 같이 살아온 꼭 절 많은 한생이 꿈속의 일처럼 되살아왔다.

그가 고향땅에서 민한한 소작살이군의 열여덟살 먹은 막내아들한테 시집을 온것은 열일곱살 때였다.

몇마지기 안되는 소작땅인데다가 거기 기대여사는 식솔은 많고하여 일가가 굶어 죽을 지경에 다달았다. 하여 그들 젊은 부부는 집을 떠나 부산에 나와서 지게 군노릇을 하였다. 그래도 먹고 살아갈수 없었던 그들은 《모집》에 끌려 산설고 물설은 일본땅에 건너와있었는데 어언 50년가까운 세월이 흘러갔다.

모진 고생속에 부부생활도 50년이 넘고보면 령감이 구태여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장씨는 그의 속마음을 다 알수 있었다.

장씨는 어머니로서의 자식들에 대한 정과 남편의 의사와의 사이에 끼여 피로움에 모대기였다.

그는 또다시 령감의 사진에 애달픈 눈길을 보내었다.

그 순간 장씨는 가슴이 선뜩하였다. 사진속의 령감이 눈을 똑 부릅뜨고 이렇게 꾸짖는것 같았다.

《애녀석들두 주대가 없지만 할망이 생각두 틀려먹었소. 그래 할망인 내 생전의 뜻을 벌써 다 잊어먹었단말이요?》

장씨는 지그시 눈을 내리감았다. 그러자 새삼스러이 첫째를 공부시키던 때의 일이 떠올랐다.

해방전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때였다.

돈이 없어 학교에 못보내고있던 첫째를 늦게나마 공부를 시켜야겠다고 마음먹고 학교에 보낸것은 첫째가 열살 되던 해였다.

그런데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지 나흘도 안되어 첫째는 머리에 주먹만한 혹을 만들어가지고 울면서 돌아왔다. 혹끝에는 검붉은 피가 영켜붙어있었다.

까닭을 알아본즉 일본아이가 《조선사람》이라고 놀리는바람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일본인교원은 덮어놓고 첫째만을 벌을 주고 《사구라》몽둥이로 머리를 갈겨 혹이 생겼다는것이였다.

그 말을 잠자코 듣고있던 령감은 비분과 애통함에 얼굴을 이그러뜨리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태일부터 학교에 가지 말아!》

장씨는 그때의 령감의 이그러진 얼굴이 지금도 눈앞에 선히 떠올라 가슴이 예이는듯 저리였다.

해방후 이곳에 조선학교가 처음 생겼을 때 령감은 기쁨을 못이겨 코물을 흘적거리며 울었다.

그때 그들 내외는 막내동이를 놔두고 우의 아이들 넷을 한꺼번에 조선학교에 보내었다.

그날 장씨는 직업안정소에서 알선한 로동을 하려나간 령감이 밤 9시가 되여도 안돌아오기에 고구마를 삶아 놓고 기다리다 못해 막내동이를 업고 밖으로 나섰다.

저녁을 먼저 먹은 아이들은 밤공부를 하려 학교에 나가고 없었다.

장씨가 학교에 있는 골목길을 지나가려는 때였다. 교실창문으로 내비치는 전등불빛속에 웬 사람이 창문밖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있는 모습이 언뜻 눈에 띄이였다.

장씨는 누군가 하는 호기심에 끌려 발뻘발뻘 그 사람 뒤로 다가가다가 그만 똑 발을 멈추었다.

뜻밖에도 령감이였다.

(아니 저이가...)

얼마나 오래동안 그렇게 서있었는지 아침에 일어나갈 때 끌고나갔던 리야까(손수레)에 실은 고철 쇠붙이가 밤이슬에 젖어 비를 맞은것 같이 번들거리고있었다.

장씨는 《여보》하고 령감을 부르려다가 교실안을 정신없이 들여다보고있는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소리를 되삼키고말았다. 령감의 얼굴에는 그가 여태 본적이 없는 흡족한 웃음이 환히 빛나고있었다.

그런 령감을 보니 장씨도 어쩐지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런데 그 학교가 일본반동놈들의 작간으로 폐쇄당할번하였다가 근근히 그것을 면하기는 하였으나 그대신 일본학교같이 되여버리고말았다. 일본인이 조선학교에서 선생노릇을 하게 되는 바람에 조선아 이들이 다시 일본말을 쓰게 된것이였다.

령감은 속이 뒤집히여 꿈꿨었다.

둘째가 졸업하는 날이였다.

령감은 어느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갈 차비를 하였다.

《오늘 둘째가 졸업인데요. 일 나갔다가 시간 맞추어 올락가요?》

장씨는 령감 등에 대고 물었다.

《안갈란다!》

령감은 잔뜩 불부은소리로 통명스레 대꾸했다.

《와익카요? 당신이 안가문 되는지요?》

장씨가 이렇게 고시랑거리자 령감은 더 화덕같이 성이 나서

《뽀락카노, 장군님의 초상화도 모시지 못하고 공화국기도 없는 학교가 무슨 조선학관가 응이, 꼭 가야 한다문 당신이나 가보지.》 하고는 힘하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날 끝내 령감은 학교에 안가고말았다.

총련이 결성되고 다시 **김일성**원수님의 초상화가 학교에 모셔지고 기발계양대에 오각별 빛나는 람홍색공화국기가 휘날리던 날 령감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얼마나 기뻐했던가!

지금도 장씨의 눈앞에는 훨훨 활개를 치며 동포들네 집에 학교수축금을 거두러 다니던 령감의 모습이 삼삼히 떠올랐다.

조국에서 교육원조비가 왔을 때 령감은 울먹이는 소리로 자식들에게 말했다.

《우리에게도 조국이 있다. 나같은 무식쟁이에게도 자식들을 공부시키라고 돈을 보내주는 우리 나라가 있다.

김일성원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김일성원수님의 은덕을 대대손손 잊지 말어라.

니 애비는 나라를 뺏기고 고향도 뺏기고 일본땅에까지 끌려와서 피땀도 많이 빼앗겼다. 니들은 조선 공부를 잘해서 애비가 뺏긴것을 제 나라를 위해서 도로 찾아야 한다.》

큰 딸을 시집보낼 때의 일도 장씨의 머리에 새삼스레 되살아났다.

손님들도 많이 올것이고 해서 장씨는 그때 마침 정거장앞에 낸 자그마한 뽀쟁고점을 괜찮은 값으로 양도해달라는 일본인이 있는김에 령감에게 그것을 팔자고 말했다. 그러자 령감은 벽력같이 소리를 쳤다.

《뽀락카노. 당신이 아주 생각을 잘못했다.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팔고사고할수 있는거라고 생각하는가.》

령감이 어찌나 화가 나서 말하는지 장씨는 그만기가 질려 방구석에 가서 몸을 웅크리고 주눅이 들어 숨을 죽이고 있었다.

령감은 한참동안 성을 삭이지 못해 혼자 풀떡거리다가 한결 누그러진 목소리로 깨우쳐주는것이였다.

《당신두 지각이 있으면 생각해보라고. 어느 덕분에 모은 우리 집 자산인가. **김일성**원수님께서

총련조직을 무어주시고 총련이 보호해준 덕분에 우리가 장사를 해서 모은 자산이 아닌가. 말하자면 우리 집 자산은 총련것이고 나라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 자산을 우리 마음대로 일본사람한테 팔잔 말이 될 말인가 응이?》

그때의 일을 회상하며 령감의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이였다.

(우리 집 자산은 총련의것이고 나라의것이라고...)

《어머니 여기 있습니까?》

첫째가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오는바람에 장씨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이 추운 방에 왜 혼자 와 계십니까? 안방으로 가입시다. 모두 기다리고있습니더 어서 가입시다.》

첫째는 어머니를 재촉하고는 제사상앞에 꿇어앉아 향에 불을 붙여 향로에 꽂았다.

그러는 아들을 지켜보며 장씨는 서글픈 얼굴로 말을 건넸다.

《니들은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됐나보다.》

《예. 모두 일이 있다보니... 점방문도 래일쯤은 열어야겠고...》

《오냐. 그래라. 모두 이 방에 오라고 해라.》

《이 방에요? 안방에 다 모였는데요.》

첫째는 의아쩍은 얼굴로 어머니를 여겨보았다.

《어서 모두 오래라.》

장씨는 첫째에게 다시 일렀다.

첫째가 식구들을 부르러 간 사이에 장씨는 령감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뇌이였다.

(령감님, 오늘은 내가 령감님의 뜻을 자식들에게 말하라고. 거기서 단단히 보고있소. 내 틀린말은 안할터이니.)

얼마후에 8조방이 비좁도록 집안식구들이 빙 둘러앉았다.

장씨는 그들을 흡족한 마음으로 둘러보았다.

그들도 장씨가 무슨 말을 할가하여 호기심에 찬 눈길로 숨소리를 죽이고 그를 지켜보고있었다.

방안에는 정숙이 흘렀다.

이따금 초불이 가물거리였다.

이윽고 장씨는 생전에 령감이 그랬던것처럼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내 오늘 니들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다. 내 말을 명심해 들어라. 니들의 애비 어미는 이 일본땅에서 종으로 살아왔다. 나라 없는 백성이다보니 정말 상가집 개보다도 못하게 살았다. 그런데 우리 수령님께서 나라를 도로 찾아주시고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셨다. 우리 동포들은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총련에 단결해서 조선사람으로서 살 권리를 찾

으라고 싸웠고 그러다보니 사람답게 살게 된 것이다.》

장씨의 쪼글쪼글한 얼굴은 피기가 돌면서 여느때 없이 근엄해보였다.

《... 너희들이 이 늙은 에미가 적절하게 지낼가봐 넘려해서 저마다 같이 살자고 하니 고맙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철이가 내결에 있고 한집에서 살지는 않아도 너희들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언제라도 돌아오고싶을 때 돌아오라는 고마운 조국이 있다. 나는 생전에 너희 아버지가 일본땅귀신이 싫다던 말을 잊을수 없다. 아버지의 유골을 일본땅에 묻을수야 없잖으나 응이?》

장씨는 이같이 말하고 다시 방안을 빙 둘러보고 있었다.

《너들 아버지가 벌여논 재산은 그리 많은건 아니지만 그건 다 고마우신 수령님의 은정과 총련의 보호가 있어서 장만할수 있는 재산이다. 그렇기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멋대로 너희에게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해서 안주고 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그 재산은 마땅히 너 아버지가 생전에 생각하던 마음에 따라 돌려져야 할 재산이다.》

방안은 엄숙한 분위기에 잠겨들었다.

장씨는 여전히 근엄한 표정을 짓고 말을 이어나갔다.

《너들 애비, 어미는 학교문앞에도 못가봤지만 너희들은 고마우신 수령님 덕분에 이 남의 나라 땅에서도 우리 조선공부를 다 하지 않았느냐. 너 아버지는 늘 그 학교가 귀중하여...》

장씨의 말은 웬일인지 중도에서 잦아들었다.

장씨는 깊은 한숨을 들이쉬더니 말을 이었다.

《나는 우리 자산을 조선학교에 돌리자고 생각한다. 그게 뭐 몇푼 되지는 않아도 우리 마음이고 너 아버지 정성이 아니가. 그러니 너희들도 재간껏 힘을 합쳐서 애비, 어미가 이 일본땅에서 흘린 피땀의 값을 기어코 받아내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야 한다. 안그러냐? 응 너희들...》

장씨는 첫째, 둘째, 셋째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찬찬히 여겨보았다.

자리는 더욱 숙연해졌다.

아무도 대꾸가 없었다.

늘 용돈을 졸라서 빼내던 그 만만한, 그저 자애롭기만 하던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딴 사람같아 서둘러 말대꾸조차 하지 못하는가보았다.

장씨는 푹 같았은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철이를 데리고 가산을 정리하여 빠르면 두어달안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조국으로 갈라칸다. 너희들은 애비, 어미의 백골이 조국땅에 묻혀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잊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은 남녘고향에 묻혀있다. 너희들은 부모의 넋을 이어 꼭 조국통일사업에 힘을 다하여야 한다. 그래야 애비, 어미의 자식이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를 사람답게 살수 있게 이끌어주신 수령님의 깊고 큰 은혜에 만분의 하나라도 갚을수 있을게 아니냐.》

장씨의 말소리는 걱정에 넘쳐 떨리었다. 그의 쪼글쪼글한 눈구석에는 이슬이 빛났다.

방안에는 흐느낌소리가 흘렀다.

향을 태우는 푸르스름한 연기가 꼭선을 그리며 문틈으로 조용히 새어나가고있었다.

향기

리호인

(1)

별경계 익은 앓은 뱅이난로앞에 말동무도 없이 서태빙지부장이 담배를 입에 물고 앉아있었다.

여느날 같으면 스키를 타고 관하동포네 집을 찾아 떠났을 지부장이었건만 초급학교건설을 추진할 데 대한 지부모임을 눈앞에 그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일본땅 홋카이도에서도 막바지인 이곳 지부에는 관하동포네 집들이 흩어져있고 날씨도 찬데다 눈바람까지 세관게 불어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했다.

(보란듯이 지어야겠는데...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높이 모시고 배울 학콘데... 그러자면 많은 관하동포들이 다 모였어야 했는데...)

태빙은 신장우에 놓인 스키를 바라보며 고개를 기웃거렸다. 저부일군들이 부지런히 며칠동안 동포네 집을 찾아다녔지만 날씨에도 관련되나 어쨌든 모임에 참가한 수가 지내 적어 일반적인 토론만 하고 건설에 관한 구체적인 토론은 하지 못했다.

현관문을 조심스레 두드리는 소리에 태빙은 생각에서 깨어나 눈썹이 핀 유리문을 바라보았다.

누군가 손바닥으로 눈썹을 지우며 방안을 살피다가 사람이 있다는걸 알아보자 반기며 문을 세관게 두드렸다.

(눈바람에 길을 잃은 사람일까? 아니면 지부모임에 참가했다가 길이 험해서 되돌아온 동포가 아닐까?)

서태빙은 후문으로 돌아오라고 손짓을 했다.

《후문으로 돌아오시오. 그 문은 잠겼소!》

태빙의 말이 들리지 않아선지 상대는 그냥 문을 두드렸다.

하는수 없이 태빙은 후문을 여닫고 바깥으로 나왔다.

북방의 칼바람이 눈가루를 몰아와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개털모자를 쓴 사람의 등에다 마구 뿌려놓군하였다.그러나 그는 눈을 털념도 않고 그냥 문을 두드렸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부사무습니까?》

뒤돌아보며 태빙의 물음에 물음으로 대답하는 개털모자를 쓴 사람은 늙은 로인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로인은 개털모자를 오른손에 벗어쥐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오래만에 거리에 내려왔다가 조선학교를 짓는다는 소문을 듣고》

태빙은 개털모자로 옷에 묻은 눈일 터는 로인을 내려다보았다. 로인은 등이 약간 구불사했지만 뼈마디가 굵고 체구가 컸다.

《로인님, 들어갑시다. 바깥날씨두 찬데.》

태빙은 로인을 추운 바깥에 그냥 세워 둔다는것이 죄스러웠다.

로인은 개털모자로 눈을 말끔히 털고 태빙의 뒤를 따라 사무소안에 들어섰다. 태빙은 앓은 뱅이난로곁에 앉아 손을 비비며 불을 켜는 로인을 유심히 뜯어보았다.

로인의 눈시울에는 부채살마냥 잔주름이 퍼져 갔고 이마에는 골깊은 주름살이 가로 쭉쭉 그어졌다. 광대뼈가 속 빼여져나온 얼굴은 눈썹에 탈대로 타서 검다 못해 청동색이었다.

아무리 뜯어보아도 이국살이의 세찬 풍파의 흔적은 엿볼수 있었지만 전혀 낯이 없는 로인이었다. 홋카이도는 다른데보다 지부관하구역이 넓다고는 하지만 해방전부터 살아온곳이 고 또 지부장사업을 거의 20 년을 해온 태빙에게는 손금보듯한곳이었다.

태빙은 재털이와 담배곽을 로인의 앞에 밀어놓았다.

《로인님은 어디서 사십니까?》

《짜리베즈에서 삽니다.》

짜리베즈, 홋카이도에서 가장 높고 험한 대 설산 속에 있는 교통이 불편한 산골안의 산골이다. 해방 전에는 징용으로 끌려와 학대와 멸시에 못견뎌 도망친 동포들 몇이 일제군경들의 눈일 피하기 위하여 숲구이를 했다는 심산이다. 일제가 망한후 더러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 나머지는 도시로 떠나가고 해서 동포들은 없어졌다. 지금은 벌목을 하기 위하여 토목청부업자가 차려놓은 《함바》가 두어채 있을뿐 인가 없는 짜리베즈였다. 거기에 동포가 깊숙이 배겨있을줄은 생각밖이었다.

《정말 멀리서 오셨습시다. 담배나 태우십시오.》

로인은 마디굵은 솔뚜껑같은 손을 내저었다. 그리고 옷웃주머니에서 담배쌈지를 꺼내더니 그속에서 담배잎을 집어내어 손바닥에다 비비었다.

《로인님, 이걸 피우십시오.》

태빙은 담배곽에서 권연 한대를 뽑아 로인에게 권했다.

《난 이제 더 좋습니더...》 로인은 두툼하게 만 마라초를 입에 물고 별경계 달아오른 연통에다 대고 불을 붙였다.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고 담배연기를 깊이 빨더니 자못 맛있게 후-내쉬었다.

《권연에 비하겠능교? 고향담뱃니더.》

로인의 마디붉은 손에 쥐여진 두툼한 마라초에서 피어오르는 푸르스름한 담배연기를 바라보는 태빙의 눈앞에는 더벅머리총각시절 도적 담배를 피우느라 찾아가던 마을앞 개울가의 아담한 담배밭이 펼쳐졌다.

어스름 저녁녘 아직 독도 채 오르지 않은 담배잎 몇잎을 뜯어 누가 불세라 바지주머니에 쑤서넣고 슬금슬금 나가던 락동강의 지류인 남강의 모래불, 옷통까지 벗어 제끼고 벌렁 자빠져 동무들과 함께 담배질을 하곤하던 시절 채 마르지 않은 담배잎을 손바닥이 닳도록 비비어 두툼하게 마라초를 말아 제법 어른처럼 피웠다. 두어모금도 빨지 못하고 기침을 쿵쿵 잴어대며 눈에 눈물이 글썽해져서도 서로들 마주보고 흥겹게 웃어대지 않았던가. 그러다 혹시 지나가던 동네어른들에게 들키는 날이면 걸음아 날 살려라고 냅다 도망치곤하였다...

《로인님, 현해탄을 건너온지가 언젠데 아직도 고향담배를?...》

태빙은 피엑스러운 로인이 눈을 스프르 뿔 때 물었다.

《그놈의 <징용>이라는 울가미에 걸려 이놈의 섬 나라에 끌려올 때 가져온 담배씨를 심어 키운겁니다. 보기도 맛도 고향담배그대로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고향에서 피우던 담배처럼 그런 향기는 덜 납니더만 권연보담...》

말을 마친 로인은 맛스레 다 태운 마라초를 섬돌에 비벼끄고는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한참 가슴 앞을 헤쳐대던 로인의 손에는 거무스름한 천으로 만든 천지갑이 쥐여나왔다. 로인은 그속에서 손때가 묻을때로 묻은 꼬깃꼬깃해진 돈을 꺼내어 손끝에 침을 묻혀가며 한장한장 손다림질을 했다. 로인의 손은 가볍게 떨렸다.

《지부장, 얼마 안되지만 우리 학교짓는데 보태주세요.》

로인은 그 돈을 태빙의 무릎앞에 두손으로 공손히 내놓았다.

《로인님 마음만은 감사합니다만 도로 넣어두시오.》

태빙은 황급히 돈을 로인앞으로 되돌렸다.

《여보이소, 지부장, 그러지 마소. 그러믄 이 늙은이 섬섬하지 않는교, 오십리가 넘는 눈길을 찾아온 보람이 없어지지 않는교, 학교짓는데 큰 보탬이야 안되겠지만 이 늙은것이 한푼두푼 모은 성의니... 제발 받아주어소. 우리 손자녀석들이 다닐학폰데...》

구들이 꺼질듯한 한숨을 내쉬는 로인은 눈에 서운한 기색을 질게 드리우고있었다.

태빙은 로인의 마음을 거절할수 없었다.

《로인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초급학교에 올 손자들이 몇이나 됩니까?》

질은 구름이 드리웠던 로인의 눈에 이슬이 펴 돌았다.

《아들 사형제를 낳아키웠는데 해방전에 다 굶어 죽이고 막내아들 하나 데리고 삽니다. 그런데 ... 글썽 생활형편두 그렇고, 사는 고장도 산골중의 산골이라 나서 늦게 며느리를 뵈옵니다. 그러다나니 손자가... 크게 세살입니다.》

《세살... 그 아래로는?》

태빙의 묻는 말에 로인은 마디붉은 손가락으로 눈곱을 누르고나서 또 천천히 마라초를 말기 시작했다.

《현젠 그 아래론 없습니더. 허나...》

로인은 흰하게 웃었다. 말은 채 마무리지 않았으나 태빙은 로인의 웃음에서 그의 속을 읽었다. 앞으로 태여날 손자들까지 생각하는 웅심깊은 로인의 마음을, 그러자 태빙의 눈앞에 해를 따라 커갈 초급학교의 청사가 떠올랐다.

이윽고 로인은 일어났다.

서태빙은 로인을 바래주려 현관밖으로 나갔다.

어느덧 바깥은 눈이 멎고 봄별마냥 따스한 햇빛이 내리붓고있었다.

로인은 방금 만 엄지손가락만한 담배를 두툼한 입술에 물고 눈길에 발자욱을 찍으며 걸어갔다.

(2)

준공을 끝낸 초급학교 교사를 한바퀴 돌고 밤늦게 지부사무소에 돌아온 서태빙은 별경게 익은 앓은 뺨이난로앞에 두다리를 쭉 펴고 앉았다. 그는 잠바주머니에서 담배곽을 꺼냈다. 며칠전에 도내 지부장들의 회의가 있어서 도에 올라갔었는데 그때 도교육회 회장이 태빙에게 준 담배였다. 회장은 사양하는 태빙의 잠바주머니에 담배를 깊숙이 찔러주면서 《교육일군대표단 성원으로 조국을 방문했던 친구한테서 받은 담배요. 피곤할 때 피우면 피곤이 풀리오.》라고 말했었다.

태빙은 짝에서 담배를 한대 꺼내어 입에 붙여 물고 담배연기를 맛스레 깊이 빨아들었다가 푹 내쉬었다. 물려오던 피곤과 눈시울을 타고오던 졸음이 담배향내에 밀려 사라졌다.

바깥에 날아가던 까마귀도 얼어서 떨어진다는 강추위를 물고 온 북방의 칼바람이 눈까지 싣고 와서 마구 퍼붓고있었다. 그 바람이 잦아들고 남쪽의 따스한 바람이 불어올 4월이 오면 초급학교 문을 열게 된다. 그날을 그러보는 태빙의 눈앞에 배움의 꽃대문으로 씩씩하게 노래부르며 줄지어 들어서는 관하동포자녀들의 모습이 선히 떠올랐다.

그는 담배를 입에 문채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짓고 눈을 감았다.

태빙의 귀전에 세관게 불어대는 눈바람을 타고 은은히 들려오던 방울소리가 점차 커지며 가까이 오더니 지부사무소앞에서 푹 멎었다. 현판문이 여

닫기는 소리가 나고 찬바람이 방안으로 밀려들어왔다.

태빙은 눈을 뜨고 고개를 돌렸다. 현관에 개털모자를 쓴 허리가 약간 흰 로인이 서있었다. 어데선가 본듯한 로인이었으나 딱히 생각나지 않았다. 이곳 설국의 늙은이들은 흔히 개털모자를 썼고 관하동포 늙은이들도 그런 모자를 쓰고 지부사무소에 자주 왔다. 그러나 눈바람이 세판게 불어대는 밤중에 온례는 펍 드물었고 그럴 때면 무슨 급한 일이 생겼을 때였다.

《이 밤중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로인에게 던졌던 태빙의 눈길이 긴장해졌다.

《우리 조선학교를 다 지었다길래 학교를 구경하러 왔다가… 그간 수고 많이 한 지부장 어른을 찾아보지 않고 그냥 갈수가 없지 않는교…》

로인은 옷에 묻은 눈도 털지 않고 문턱에 걸터앉았다.

긴장했던 태빙의 눈길이 삽시에 풀어졌고 그의 입에서도 안도의 숨이 나갔다.

《어서 올라오십시오.》

《네.》

로인은 개털모자를 벗어 옷에 묻은 눈을 털고 방안에 올라와 앉은 뺑이난로앞에 앉았다.

《바깥날씨가 여간 아니지요.?》

《이놈고장의 겨울이란게 쉬이 봄한테 양보하지 않습니다…》

로인은 안주머니에서 담배쌈지를 꺼내더니 마디 굵은 터갈라진 손으로 마라초를 말고 살금이 짙은 두툼한 입술에 물었다.

서태빙의 눈이 커졌다. 로인의 무릎위에 놓인 손때 묻은 담배쌈지가 눈에 익은 쌈지였다. 마디굵은 터갈라진 손도, 두툼한 입술도 긴 흰눈썹도…

(아, 감박 잊었었구나!)

속으로 이렇게 되뇌이는 서태빙의 눈앞엔 얼마전 설전, 오늘밤처럼 눈바람이 세판게 불어치던 날에 싸리베프스에서 왔던 로인의 모습이 석연히 떠올랐다.

《싸리베프로인님이 아닙니까! 그새 왜 까딱 앉겠습니까?》

서태빙은 로인의 손을 잡고 반기였다.

《지부장, 늦게 찾아왔다고 욕하지 마소. … 한해 남짓한 새에 글썽 우리 학교가 번듯하게 일어설줄 누가 알았겠능교, 세상에 회한한 일두 있다지만 이런 회한한 일이 어데 있습니까! 정말…》

로인은 조금조금한 입에 침을 튀어가며 인사를 늘어놓았다.

《관하동포들이 로인님처럼 도와준 덕택이지요.》

《원,내사 도와준게 있습니까. 학교를 다 지은줄 알았더라면 화목이라든 한달구지 싣고오는건데… 소문을 믿지 않고 제눈으로 봐야 한다며…》

로인은 한숨을 토하며 후회하였다.

태빙은 난로 아궁이를 열어 탄을 넣었다. 불쭉시개로 재를 털었다. 난로위에 올려놓은 주전자의 뚜껑이 까불기 시작하였다. 연통이 벌겋게 익었다.

《맘같아서야 내 나이를 주고싶지만 그렇게 되는교. 나이란게 한해에 한살밖에 못 먹으니… 어찌겠능교. 몇해 기다려야지. 설최고 4살이니.》

《로인님, 저 …담배나 피우시오.》

태빙은 손님대접이 무심하여 안됐다는듯 잠바주머니에서 담배팩을 꺼내어 로인의 무릎앞에 내놓았다.

《싫네, 그래도 고향담배가…》

순간 태빙은 전번에 왔을 때도 그랬던 일이 생각나 민망스럽게 빈 입을 찢찢다셨다.

《저… 이건 조국에서 가져온 담배이기에…》 태빙은 변명에 가까운 소리로 두런저렸다.

태빙의 말에 로인은 마라초를 말던 손을 문득 멈추고 태빙을 흘끔 바라보았다.

로인은 담배쌈지에 마라초를 집어넣고 손을 저고리 앞섶에 썩썩닫고는 태빙이가 쥔 담배팩에서 《홍초》한대를 빼들었다. 서태빙은 자기의 성의를 재삼 거절할수가 없어 마지못해 권하는 담배를 손에 쥐는 로인이 펍 감사하게 여겨졌다.

로인은 마디굵은 그 큰 손을 알릴듯말듯 떨면서 금테를 두른 《홍초》라고 새긴 글자를 눈가까이가져가서 찬찬히 들여다보고 입에 물었다. 터져갈라진 두툼한 로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었다. 혹- 그는 성냥가치를 쥔 손 역시 가볍게 떨렸다.

(아마 풍기가 있는 모양이지.)

북쪽의 추위속에 시달린 사람치고 늘그막에 풍기가 없는 사람도 펍 드무니말이다.

로인은 갈구리 같은 마디굵은 두손으로 담배를 쥐었다. 마치 피리를 불듯이 쥐고 빨아들었다. 로인의 두볼이 우물처럼 패웠다. 쭉뻘어져나온 울대뼈가 턱밑으로 바삭 올라붙었다. 내쉴 때에는 그 울대뼈가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

눈을 지그시 감고 입맛을 다시며 두어번 들이킨 로인의 얼굴은 취한듯 불그스레해졌다. 그런데 로인은 태우다 만 담배를 비벼끄더니 피촉에서 다시 담배쌈지를 꺼내들었다. 거기에다 《홍초》를 깊숙이 밀어넣어버리고 또 마라초를 미옥스레 말기 시작했다.

(마지못해 반아쥔 해도…)

서태빙은 로인의 그 마음이 너무나 석연히 헤아려져서 쑥스러운 눈길을 돌려버렸다.

서태빙은 그제서야 한쪽으로 기울어진 로인의 어깨에 락하듯처럼 커다란 혹이 나있는것을 알아보았다. 계절조처럼 목도에 짓눌려 값없이 흘러보낸 로인의 쓰라린 생활이 떠올랐다.

이때 현관밖에서 개짖는 소리와 함께 방울소리가 울려왔다.

그러자 담배를 말던 로인이 눈을 치떴다.

《이젠 가보겠습니다.》

《눈바람치는 이 밤중에 가시다니? 오늘 밤은 여기서 묵고 래일 떠나시오.》

서태빙은 개털모자를 빼들어서하게 쓰고 일어서는 로인을 만류했다.

《일없습니더, 길동무가 있으니 맘놓이소. 눈바람이 멎었으니 가자고 자꾸 소리치지 않능교. 가보겠습니다.》

로인은 방울소리가 자자하게 우리는 현관쪽으로 걸어갔다.

바깥에는 그렇게도 세관게 불어치던 눈바람이 멎고 눈송이들이 소리없이 조용히 내리고있었다.

《추운데 들어가이소...》

로인은 태빙에게 들어가라고 이르면서도 자신은 떠날념을 안했다. 개들은 방울소리를 울리며 떠나자고 재촉했지만 로인은 썰매결에 서서 움직일줄 몰랐다.

《로인님, 이 밤중에 그 험한 산길을 꼭 가시겠습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묵고 가시지요?》

태빙은 로인이 머뭇거리는것이 어쩐지 밤길이 내키지 않아 그런것 같아 묵어 갈것을 권했다.

《아... 아닙니더, 그런게 ... 아닙니더...》

로인은 말을 갑자기 더듬거리며 힘들게 번지였다. 그러면서 그 무언가 할 말을 못하고 고개를 숙이였다.

《저한테 어려워할게 뭐 있습니까? 말씀하시오.》

태빙은 소리없이 내리던 눈송이들이 휘날리는 통에 가로등이 주런이 서있는 거리를 바라보았다. 가로등들이 눈발속에 싸여 빛을 잃고있었다. 미구에 북방의 칼바람이 또 세관게 불어올 징조였다.

《지부장, 저... 조국담배를 한대만 더 줄수 없능교? 짜리베쓰에 우리 조선 늑은이들이 좀 있습니다, 저 내가 피우다 만 이 담배로는 한모금씩 다 돌아갈것 같지 않아서, 조국의 향기를 뉘나 다...》

로인은 죄지는 소학생처럼 어서 떠나자고 제자리걸음을 하는 선두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더듬거렸다.

태빙은 그제사 로인이 망설이는 사정을 알았다.

(조국담배... 조국향기...)

태빙은 속으로 이렇게 되뇌이며 잠바주머니에 《홍초》를 꺼내여 로인에게 드렸다.

담배팩을 받아든 로인은 온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굽석 절을 하였다.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아까 피우다 만 담배를 넣은 담배주머니를 꺼냈다.

로인은 《홍초》담배팩뚜껑을 조심스레 열었다. 싱그러운 향기가 코를 찌르며 확 풍겨왔다.

로인은 슬그머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담배팩에 얼굴을 바싹 갖다댔다. 싱그러운 향기를 마음껏 들

이키며 고개를 저었다. 취한듯이... 로인은 담배팩에서 담배 한대를 뽑아내더니 팩을 태빙에게 도로 돌려주었다. 《로인님, 다 가져가십시오.》 태빙은 받으려 하지 않았다.

《지부장, 이 귀한걸, 이거슨 짜리베쓰에 있는 우리 늑은이들이 다 한모금씩 조국향기를 맡을수 있습니다, 이 귀한 향기를 맡고 싶어하는 늑은이들이 아직도 많겠는데...》

로인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탁탁 털더니 피우다 만 담배와 새 담배한대를 손수건에다 정히 싸서 안주머니에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절을 하였다. 개들도 지부장을 쳐다보고 꼬리를 흔들며 목에 단 방울을 울리었다. 방울소리를 울리며 개썰매가 눈길우에 철길마냥 썰매자옥을 남기고 미끄러져갔다. 로인은 썰매우에 올라앉아서도 태빙에게 굽석거렸다.

땅의 눈을 휘말려 울리며 돌개바람이 지나갔다. 그뒤를 이어 북방의 칼바람이 휘몰아쳐왔다.

그러자 로인은 개털모자를 벗어 태빙에게 인사를 보내고 회초리를 휘-휘 돌리었다. 개들은 방울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뉘다 뛰기 시작했다.

서태빙은 현관밖에 그냥 서서 눈바람속으로 사라져 가는 개썰매를 바라보고있었다.

개썰매는 시야밖으로 점차 사라져 갔으나 태빙의 눈앞에는 로인의 모습이 더더욱 석연히 떠올랐다.

초급학교 정문으로 어린 손자를 앞세우고 들어가는 로인의 모습이, 손자는 정문으로 향하는 눈길우에 말자옥을 찍으며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라고 새긴 꽃대문으로 들어선다. 손자가 멘 달랑거리는 책가방에는 평양학생소년궁전이 새겨져있다. 손자를 바라보며 뒤따라선 로인은 개털모자대신 증절모를 썼고 양복에다 넥타이까지 댔다.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였으나 손자를 초급학교에 보내는 날을 명절로 맞이하려는 깨끗한 마음을 읽을수 있었다. 로인의 눈에는 기쁨의 이슬이 가랑거렸고 온 얼굴에 환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개썰매는 시야밖으로 사라졌다. 개썰매의 방울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았다.

눈은 와서 쌓이고 북방의 칼바람이 기승을 부리며 휘몰아쳤다.

그러나 서태빙은 그냥 서있었다. 그의 어깨며 머리에 눈이 소복이 쌓였고 귀를 에이듯 한 땀잔 바람이 세관게 불어쳤으나 지부장은 자리를 뜰념을 잃고 오직 한가지 생각을 좇고있었다. 일본땅 흑가이도에서도 막바지인 이곳 지부, 지리적으로 보면 사회주의조국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외진 이 지부관하구역에 조국의 해빛이 차넘치게 하리라, 관하동포들이 한결같이 조국의 향기를 맡으며 살게 하리라...

광주의 열 외 2편

-광주인민봉기 4 뚝에 즈음하여-

문재건

육신은
있고 없고
열만은
열만은 있어야 한다

놓을수도
던질수도
지켜야만 하는
아, 선혈에 젖은 광주의 열이어

저 구름뒤에
학원의 교정에
피 끓는 가슴속에
꿈틀이며 몸부림치느냐

열이어
너는 반만년 깨끗한
민족의 혈통속에 이어진 고귀한 빛발
모멸과 치욕을 원치 않는
송죽같은 절개

일장기아래
백의동포 도륙을 당할제
열이어
너는 그때
이 강산에 타오른
과중의 화불이었다

또다시 독재의 아성에
항쟁의 분화구를 터친
광주의 열이어
너는 조울던 뉘를 깨운
5월의 화산이었다

반독재!
민주를!
자유를!

통일을!

가슴쥐고 부르짖던
그 피타는 웨침을
살륙의 총검으로 짓뭇개고
거리를 메어던 시위의 광장을
피의 호수로 잠겨버릴때

오, 너는 보았다
그 무지한 총검의 숲뒤에
가증한 성조기가
유령처럼 너울거리고있음을

총포로도
대검으로도
화염으로도
죽이고 없애고 불태울수 없는 열이어

갔다
의로운 벗들은
갔다
무고한 형제들은

하지만 있다.
또다시 5월을 부르며
사라지지 않는 광주의 열이
수천수만의 심장속에

광주의 하늘을 배회하는 열들이
민족의 뉘를 지닌
모든 심장의 창문을 두드리며
힘차게 웨친다

반미의 화불이 되어
반독재의 화산이 되어
타오르고 터져오른
아 몸부림치는 광주의 열이어

원 한

오늘은 없다
여기 금남로에
랑자한 피자옥도
토막친 시체들도

오늘은 없다
여기에
몸서리치는 살륙의 흔적도
땅을 치던 녀인들의 울부짖음도

태워버렸다
씻어버렸다
지워버렸다
물과 불로 모조리

없어진듯하다
지워진듯하다
묵묵히 지나가는 얼굴들
침울한 건물들

어떻게 씻어낼수 있느냐
어떻게 지울수 있느냐
가슴속에 상처로 새겨진
원한의 피자옥을

그 누가 지울수 있느냐
씻어낼수 있느냐
미제가?
전두환이?

아무리
씻고
닦고
발라도

가슴속에 새겨진
원한의 피자옥만은
천주에 용납못할
원썬들의 죄행만은
지울수 없나니

번뜩이는 저 눈길들은
오늘도 보고있다
피에 젖은 아스팔트
방울나무가지에 휘감긴
너대생의 피묻은 머리채

혈육의 피를 보고
동족의 피를 보고
무심할자 누구냐

오늘은 잊은듯하다
씻은듯하다
지운듯하다
묵묵히...

하나
가슴에선
보이지 않는 가슴에선
불같은 그 원혼들이
심장을 부여잡고 부르짖는다

원한을 풀어달라!
형제여
동포여
살인마들을 처단하라!
미제를 몰아내라!

한송이 두송이 얹혀지는 꽃

산기슭 이름없는 분묘에
봄이 왔다
파아란 잔디
한포기 할미꽃이 이슬에 젖었는데

작은 상석우에
꽃들이 얹힌다

한송이 두송이
향기로운 정향꽃이

굿주린 개들의
포악한 눈이르 피해
소리없는 걸음들이
머리속여 엮고가는 한송이 두송이

그대가 사랑하던 정 향이다
그 향기를 즐기며
별많은 밤길을 걷고걸던
아, 정다운 동지여

민주를 위해
통일을 위해
데모의 앞장섰던
의로운 동지여

그 억실억실한 눈
두툼한 입술
꿈도 많던 청춘이
여기에 누웠구나

민주가 무성할 래일을 위해
이 척박한 땅에 더운 피 뿌려
투쟁의 씨앗을 심고서 갔구나

한송이 두송이

없혀지는 꽃
약속없이 왔다가
말없이 떠나간다

추모의 꽃송이로
복수의 맹세코
그대의 머리우에 꽃을 엮나니

무언의 시위가 여기서 시작된다
별빛속에
안개속에
없고가는
송이송이 꽃송이

그대 심고간
투쟁의 씨앗은 움트고 뿌리내려
봄이 오는 이 땅우에
민주가 교살당한 살벌한 무덤우에
맹세의 꽃으로
항거의 꽃으로 피었다.